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9월 10일 수요일 (주간) 제 438 호

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불교복지시설의 추석

"달 밝아도 마음 춥다"

장기불황 여파…후원금 등 온정의 발길 뜸해

9월 4일 오후 서울시립요양원(원장 김유탁). 벌써 일주일째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이곳에는 무거운 적막감마저 흐른다. 요양원 마당 한 귀퉁이에 모여 있던 20여 명의 노인들 사이로 체념 섞인 탄식소리가 들린다.

"올 추석도 가족과 떨어져 쓸쓸하게 보낼 생각을 하니 서럽기만 합니다." 추석을 맞는 실직노숙자 75명의 보금자리 부산 보현의 집. 2년 전 직장을 잃고 노숙자로 떠돌고 있는 박모씨(45)는 가족들 생각에 한숨만 나온다.

올해도 어김없이 쓸쓸한 추석을 맞는 불교계 복지시설들.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올 추석에는 장기불황 여파로 복지시설을 찾는 발길이 예전보다 더 뜸해졌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전국의 장애인, 노숙자, 노인, 여성 복지시설들은 명절 때만 되면 오히려 줄어드는 도움의 손길에 소외감마저 느낀다.

중증 장애인 100여 명이 모여 사는 부산 천마재활원(원장 박근련) 가족들은 이번 추석이 더없이 서글프다. 작년보다 절반이상 줄어버린 후원금에 명절마다 가던 남포동 구경을 올해는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추석 차례상은 엄두도 못 낸다.

여성노숙자들의 쉼터인 화엄동산(원장 이인숙)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오갈 곳 없는 여성 35명이 기거하는 화엄동산은 후원금은 고사하고 정부보조금만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태다. 명절이라 구청에서 놓고 간 농산물 상품권 70장은 쓸쓸함만 더한다.

실직노숙자들의 원주시립복지원(원장 현각), 가정폭력의 아픔을 가진 여성들의 보금자리 자비의 쉼터(원장 오정), 위안부 할머니들의 나눔의 집(원장 원행) 등의 시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비인가 시설이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원주 소쩍새마을은 추석 차례상조차 차리지 못한다.

복지관과 복지재단들도 장기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부분의 복지관들이 후원금, 자원봉사, 물품후원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남 문수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난해 추석 때만해도 500여 명에 이르던 후원자 수가 올해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 경기불황을 실감하고 있다.

부산 천마재활원 김정연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후원금이 줄어들어 외부 방문 프로그램은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럴 때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찾아 오는 이는 없고… 장기불황의 여파로 추석을 맞은 불교계 복지관이 썰렁하다. 찾아오는 이 없어 TV를 보며 소일하는 복지관의 노인들에겐 추석이 오히려 서글프다. 사진= 고영배 기자

기본 교육 마쳐야 신도자격

조계종, 내년부터 입교 · 교육과정 체계화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신도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삼귀의와 5계를 수계해야만 조계종 신도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기본 교육이 신도 의무교육 과정이기는 하지만 신도 등록 후 받게 돼 있어 참여율이 낮은 현실에서 나온 것으로, 신도 입교 및 교육 과정 전체를 체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9월 3~4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도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밝힌 신도법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수계(삼귀의, 5계)→신도등록→기본교육→전문교육 등 신행활동'으로 돼 있는 신도 입교 및 등록 절차가 '기본교육→수계(삼귀의, 5계)→신도등록→전문교육 등 신행활동'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예비신도'로 규정하고, 기본교육 이수 후 수계를 받은 사람에 한해 '신도' 등록을 받고 신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포교원 박용규 신도과장은 "조계종 신도가 된다는 것은 계를 받음은 물론 이의 의미와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자각, 불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신도 등록은 단순히 신청만 하면 되는 단일 사업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며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1월 중앙종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병원 · 학교 · 집 100여채 건립

스리랑카 '조계종 마을' 명명

조계종 대표단 3일 현지서 조성식

스리랑카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9월 2일 현지로 출국했던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포함한 조계종 대표단이 3일 수해지역인 라트나푸라에서 '조계종 마을 조성식'에 참석했다. 스리랑카 불교의식으로 진행된 이날 조성식에는 법장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과 스리랑카 랄 가마게 외교부 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주민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랄 가마게 부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교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양국 교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장스님은 "두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형제로서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화답했다.

조계종 대표단은 방문 3일째인 4일 오전에는 자야 수리야 부수상 겸 에너지부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한 달간 전국 사찰에서 모금한 2억3천여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스리랑카는 이 성금으로 병원과 학교, 가옥 100여 채 등을 건립하고 이곳을 '조계종 마을'로 명명할 계획이다.

한편, 법장 스님은 이날 오후 스리랑카의 주요 불교 종단 가운데 하나인 시암니카야의 붓다 라키타와 비파시 마하야나게 두 종정을 만나 양국 불교 교류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스리랑카= 박봉영 기자

선리연구원 10월중 개원

선학원 중장기 발전 계획

선학원이 내년 법인설립 70주년을 맞아 교육 불사를 통한 '선학원 중흥'에 나섰다.

선학원은 9월 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50여 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학원 중장기 발전을 위한 중진 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정체성 확립 및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선학원은 오는 10월 근 · 현대 불교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중앙선리연구원을 개원, 도봉 · 남전 · 석두 스님 등 설립조사 및 역대 이사장의 사상을 연구 · 조명하고 선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 · 보급하는 사업을 펼친다.

이와 함께 인재육성 및 확보를 위한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선학원은 이를 통해 '인재풀'을 형성할 방침이다. 관련 인터뷰 3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부산 · 밀양지역 스님들!
무료로 인터넷 배우세요
10월 1일부터 인터넷 · 한글 97 등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실시하는 '스님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 사업' 제 6차 교육이 부산과 밀양 지역 스님과 종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육일정: 2003년 10월 1일부터 4주간(매주 월~금 오전 10~12시)
▦교육과정: 윈도우 98, 인터넷 초급과정
▦교육장소: 부산우체국 정보화 교육실(051-466-0021)
밀양우체국 정보화교육실(055-354-2801)
▦수강료: 무료(교재비 본인부담)
▦신청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부산지사
지사장 김종열 051-632-0064, 011-219-5066
현대불교신문사 밀양지사
지사장 혜봉스님 055-353-1196, 017-650-1196
▦모집 인원: 부산 5명, 밀양 10명

※부산지역은 11월에도 1일부터 4주간 교육실시됩니다.

불교정보화협의회 ·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읽으신 뒤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제천:(043)644-4366 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지역축제 된 개산대재

개산(開山). 산에 터를 닦아 절을 세워 수행도량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개산대재(開山大齋)는 절을 창건한 스님의 열반일에 여는 기일 법회이다. 개산조에게 예를 표하는 의식을 통해 사상과 가르침을 되새기는 날이다.

최근 들어 각 사찰의 개산대재가 불교문화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지역문화축제로 변하고 있다. 사찰들은 이날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산사음악회와 찬불합창제, 전시회, 사생대회, 노인잔치 등을 열어 산문이 처음 열린 날을 자축한다.

지역주민들에게는 분홍빛으로 물든 가을산사에서 열리는 문화축제의 향연을 즐기며 불교의 향취를 느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산사의 문화축제는 그 동안 영가천도나 보살계, 수계식 등 전통적인 행사위주에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불교문화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산대재가 다채롭게 열리면서 사찰이 지역사회의 문화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포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통도사는 10월 3~4일 1358주년 개산대재를 개최한다. 산사음악회, 합창제, 진주 청곡사 괘불탱 특별전, 재롱잔치, 사생대회, 독거노인돕기, 도예전시, 서예전시, 꽃꽂이, 사진전이 열릴 예정.

1510주년을 맞는 동화사는 10월 10~12일 산사음악회, 보살계, 차문화제전 등을 개최한다. 또 갑사는 1583주년 개산대재를 기념해 10월 26일 제 4회 계룡산 산중음악회를 연다.

이밖에 금산사, 은해사, 해인사도 개산대재를 앞두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중이다.

김원우(취재1부 차장)

법보종찰 해인사 1029천도재 스무번째 49재 기념

대만 불광산사 성운(星雲)대사 초청법회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1029일 천도재를 봉행하면서 매번 49재 때마다 여러 큰스님을 모시고 감로법문을 청해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정 법전큰스님을 비롯하여 조계종 원로 대덕큰스님들이 법상에 올라 사부대중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 주었고, 영가들에게는 삼계(三界)를 벗어나 극락세계 상품상생의 가르침을 설하여 주었습니다.
오는 9월 15일 스무번째 49재는 1029일 천도법회 회향일을 앞두고 세계적인 불교지도자이자 대만불교의 선지식인 성운(星雲)큰스님을 법사로 공식 초청해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인사에서 열리는 성운대사 초청대법회는 한국의 불자들에게는 세계적인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초청일시 : 불기 2547(2003)년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초청법사 : 대만 불광산사 성운 큰스님
■문 의 : 해인사 (055)934-3105~6 해인사 천도재 사무실
서울 불광산사 02)2276-0993~4 의은법사
■온라인 접수 계좌번호 : 농협 843174-51-009176 /
우체국 611806-01-002618 (예금주 해인사 천도법회)

대한불교조계종 12교구 본사 법보종찰 해 인 사 주지 세 민 합 장

제2차 해인사 1029일 조상천도재에 동참하시면 천도재와 함께 동판 팔만대장경을 복간하여 장경법당에 봉안해 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옵길 축원드리옵니다.
한국 최고의 수행도량이며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1029일 조상천도재로 인한 불자님 각자의 신비로운 체험에 의하여, 1차에 동참했던 전국 불자님들의 한 번 더 모시자는 권유와 또한 해인사 동판 팔만대장경 복간 불사의 원만 성취를 위하여 1029일간 조상천도재를 한 번 더 모시기로 해인사 임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시 봉행하는 천도재에 동참하시는 불자님은 나라와 백성을 구한 호국정신의 결정체요, 세계불교문화 유산인 목판 팔만대장경을 오래 오래 보존하기 위한 동판 팔만대장경 복간불사의 시주자가 되시겠습니다. 이번에 제2차 해인사 1029일 조상천도재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천도재비 100만원으로 천도재와 함께 동판 팔만대장경을 제작하여 해인사 박물관에 임시 모셨다가 새로 짓는 팔만대장경 법당에 다시 모셔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인사 1029일 천도재에 동참하시어 내 집안의 조상천도는 물론 구천에 헤매는 호국영령과 일체 유주무주 고혼을 다 천도해 드리시고, 또한 최상의 법공양인 동판 팔만대장경판을 해인사 장경법당에 모시는 희유한 인연을 살아 생정에 지으시어 집안 대대로 무량한 공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참안내
• 불자님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조상천도재에 동참하시면 1029일간 조상천도재와 함께 동봉한 사진의 경판을 동판으로 제작하여 새로 짓는 팔만대장경 법당에 봉안해 드립니다.
(※천도비 100만원에는 경판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작되는 경판의 크기와 형태는 해인사에 봉안된 국보 경판과 동일하며, 재질은 1만년 동안 보존되는 동판으로 제작되며, 경판에는 동참자 직계가족(혹은 영가)의 성명, 주소를 마구리(손잡이 부분)에 새겨 드립니다.
• 가정에도 경판을 모시어 집안의 가보로 간직하고 싶으신 분은 경판대금 50만원이 추가됩니다.

사 설

납골시설 확대돼야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국토가 묘지로 변하고 있다면 감상이 어떨까?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1%가 묘지이며, 전국에 약 2천만기의 묘지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비해 유교문화의 본산인 중국은 이미 화장문화가 90% 이상 정착되어 있다. 마오쩌둥 치하에서 수상을 지낸 저우언라이, 덩샤오핑 등의 국가 지도자들도 솔선하여 화장한 뒤에 산골(散骨)했다.

불필요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실용적인 장묘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은 매장에 대한 선호도를 상당부분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된다. 서민들에겐 매장이 또 하나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기에 화장과 납골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문제는 화장과 납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책 당국자들이나 위정자들은 이러한 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회 인사들이 화장과 납골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납골시설협의회에 가입된 19개의 단체 중에서 13곳이 불교와 유관한 단체로 파악되고 있다. 불교계의 지도자들은 서민들의 생활공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복지사업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경제적 논리보다는 복지적 측면에서 납골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범불교계 차원의 후원과 캠페인이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영규대사 현창 불교계의 몫

임진왜란 당시 첫 승병부대 지휘자였던 기허당 영규대사를 기리는 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다. 기일(음력 9월 14일)을 전후해 공주 갑사, 옥천 가산사 청주 등 인연지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는 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그간 조명되지 않은 8백 승병들의 청주성 탈환과 금산성 전투 등 활약상을 재조명 하는 등 무게 있게 준비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4일 조계종 중앙종회는 영규 대사와 8백 승병의 순국충혼위령탑 건립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간 영규 대사를 정점으로 하는 8백 승병의 활약상이 학계는 물론 불교계에서도 그리 비중 있게 조명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조헌과 7백 의사들의 무덤인 칠백의총은 사적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지만 함께 전투에 참가했던 승병들에 대한 기념물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마당에 불교계가 영규 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위령탑과 기념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랜 세월 역사의 뒤안길에 가려져 있던 찬란한 보물을 드러내는 일이다. 학계는 영규대사의 정신과 승병들의 활약상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인연 있는 사찰은 영규대사와 8백 승병들을 기리는 불사와 행사를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뜻깊은 불사는 한국불교 전체가 함께 할 때 더 빛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종단과 종파를 초월해 한국불교의 모든 구성원이 동참할 때 비로소 오랫동안 조명 받지 못했던 '역사'가 보다 분명하게 다가 올 것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에서 영규대사 현창 사업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 보길 권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주5일근무' 포교대책 시급

종단주도로 체계적 운영·관리지침 수립
수행·휴식 구분된 효율적인 운영돼야
외국노동자·장애인 위한 복지개념 도입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법안이 8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불교계가 포교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재 불교계는 주5일 근무제를 포교의 호재로 평가, 종단 또는 개별 사찰 단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주말수련 프로그램 등이 불교문화의 지나친 상품화, 사찰의 관광화 등 포교의 역효과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8면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유승무 교수는 "주5일제가 엄청난 포교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는 금물이다. 안방을 보여주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치밀한 계획이 없는 사찰 개방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말프로그램을 개별 사찰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종단이 체계적인 운영 · 관리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말프로그램의 차별화도 지적되고 있다. 이는 참가자들의 성향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요구로 '휴식'과 '수행'의 개념을 구분, 주말프로그램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안홍부 사무국장(감사원 환경문화2과장)은 "종교색이 짙은 기존의 주말프로그램은 일반인이나 타종교인들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됐다"며 "폭넓은 참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계의 주5일제 접근방식이 보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해남 대흥사 윤효중 기획과장은 "쉴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소외계층인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저소득층 노동자 등을 위한 복지 개념의 주말수련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 전문가들은 종합적 ·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종단 · 교구본사 · 개별사찰과 신도 · 직장직능불교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5일제 불교계 대책 자문단'(가칭)을 조속히 구성,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시범사찰 선정, 모범 프로그램 보급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조계종 행자교육 회향

조계종 제25기 행자교육원이 9월 5일 23일간의 교육을 마치고 회향했다.

이날 열린 수계식에서는 남행자 77명, 여행자 73명 등 모두 150명이 사미(니)계를 받고 조계종의 예비승이 됐다. 여기에는 24기 5급 승가고시 불합격자 3명(사미 2, 사미니 1)도 포함돼 있다.

이번 25기 행자교육원에는 남행자 105명, 여행자 87명 등 192명이 지원했지만 서류심사, 입방고사, 갈마 등을 거치면서 38명이 탈락했고, 고불식 이후 교육 과정에서도 6명이 중도퇴방하고 남행자 1명이 5급 승가고시에서 떨어졌다. 외국인 행자 2명도 이번에 사미(니)계를 받았다.

권형진 기자

위탁·대여 성보문화재 환수논의

국보 2점 등 1160점 역사문화기념관 전시

성보보존위 7차회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8월 29일 상량함에 따라 기념관 내 박물관에 전시할 성보문화재 확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는 9월 9일 열린 제7회 성보보존위원회(위원장 탁연 문화부장) 회의에서 "조계종 소유지만 국 · 공립 박물관 등에 위탁 · 대여된 불교문화재는 98건 2121점"이라며 "이 중 일부 문화재에 대한 환수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들 문화재를 포함해 박물관에 전시할 성보문화재는 총 1160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국보 28호 금동약사여래입상 등 국보 2점, 보물 11점, 지방유형문화재 7점이 포함돼 있다.

조계종의 불교문화재 환수와 관련해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김 모 연구관은 "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기탁 및 기증 규정'에 따라 유물을 기탁한 소유자가 유물 반환을 신청할 경우, 기탁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만 거치면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교문화재 환수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사찰 문화재가 국 · 공립 박물관에 기탁될 당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가 드물고, 발급했더라도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관은 "상식선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증명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할아버지 대에서 맡긴 물건을 손자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오유진 기자

합동 득도 수계산림
태고종, 29~10월22일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9월 29일 오후 2시 순천 선암사에서 '제27기 합동 득도 수계산림' 입재식을 봉행한다. 합동 득도 수계산림은 조계종의 행자교육원에 해당하는 예비 승려 교육과정으로, 4주간의 교육을 마친 뒤 10월 21일 '득도고시'에 합격하면 22일 사미(니)계를 받게 된다.

한편, 이번 27기 행자 중에는 전 KBS 사장인 박현태(70)씨도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씨는 사미계를 수계하고 내년 3~4월께 2박3일 일정으로 열리는 연수교육을 마치면 태고종 승려증을 받게 된다.

권형진 기자

군법사 4명 소령진급

국방부는 8월 27일 군법사 4명을 포함한 군종장교 11명을 소령으로 진급시켰다고 발표했다. 군목사는 6명, 군신부는 1명이 소령으로 진급했다.

이번에 소령으로 진급한 군법사는 수도사단 백태현 법사(군승 26기), 특수전사령부 함현준 법사(군승 27기), 행정학교 고현등 법사(군승 28기), 67사단 박수준 법사(군승 29기) 등 4명으로 2000년 2명, 2001년 2명, 2002년 3명의 군법사가 영관급으로 진급했던 것에 비해 최대 진급 숫자를 기록했다.

조계종 군불교위원회 사무국장 전창응 법사는 "역대 최다의 군법사들이 영관급 장교로 진급한 것을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아직 일선 사단급 부대에는 군종참모 보직을 수행할 수 있는 영관급 군법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영관급 군종장교 진급에서는 군승 26기 1명, 군승 27기 4명, 군승 28기 2명 등 모두 7명의 군법사가 진급이 누락됐다.

이동혁 기자

"동국대 목왕리토지 매입때 부정"

영담스님, 종립학교관리위서 의혹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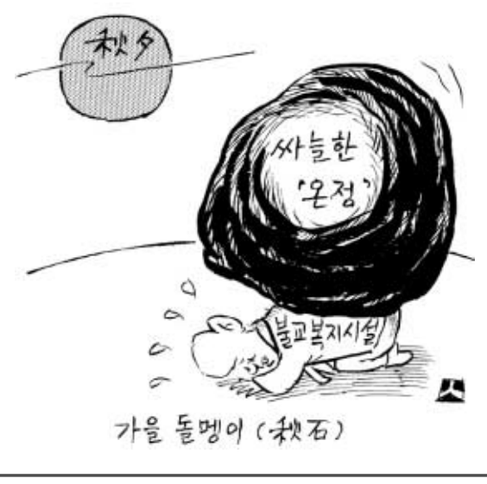
9월 2일 열린 제49차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택) 전체 회의에서 영담 스님은 "동국대가 96년 영탑 사업부지로 경기도 양평 목왕리 산 19-1외 17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횡령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국대학교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인 영담 스님은 그 동안의 서류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공공기관(학교)이 토지를 매수할 경우 감정평가액이 실 매수 가격보다 높은 게 관행인데도 실거래 가격(29억9896만원)이 감정평가액(19억224만원)보다 10억 원 정도 높은 점 △사업 타당성 문제나 인허가 문제, 민원 문제,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사업 승인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중간에서 10억원 정도의 횡령 의혹이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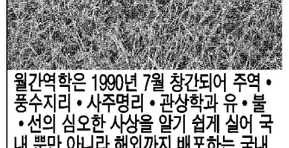
권형진 기자

'현대' 만평

심 민 섭



월간역학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 • 풍수지리 • 사주명리 • 관상학과 유 • 불 • 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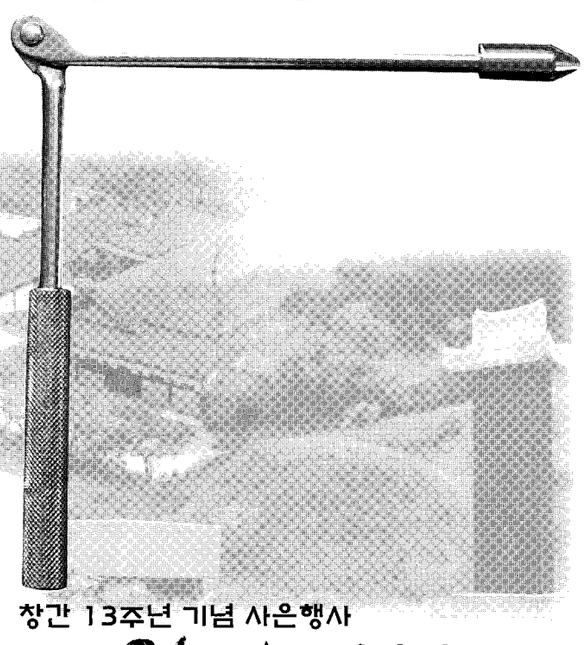
월간역학에서는 2002년 4월부터 역학전문학원인 월간역학교육원과 인터넷 동영상 역학 학원인 월간역학 원격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학원을 졸업한 분에게는 수료증과 자격증을 수여하며 개업시 월간역학을 통해 적극 홍보해 드립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www.kbs.cc)를 듣는 분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역학 수강생 · 강사모집 및 공개강의

사 주	수 상
• 초급에서 완성까지 (6개월 완성)	• 3개월 과정
• 월 15만원	• 월 10만원
• 매주 토요일 14:00~17:00	• 매주 목요일 13:00~15:00
• 개강 : 9월 6일(토)	• 개강 : 9월 18일(목)

▣ 공개강의 : 사주 · 수상 9월6일 13:00~

※강사모집
사주, 육임, 육효, 풍수, 기문둔갑, 자미두수
※강의실 위치 : 동대문 운동장역 10번출구 신당동 방향 20m



창간 13주년 기념 사은행사
월간역학

명당탐지기 관룡자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관룡자로 당신이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관룡자란?
심룡척이라고도 불리우며, 이미 수천년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은밀히 사용되어오던 기구입니다.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하는 진산실업(주)에서 완벽하게 재현에 성공하여 국내에 공급함은 물론 해외에 시험 수출하였습니다. 관룡자는 명당을 찾는 「명당탐지기」로 수맥탐지봉과는 완전히 다른 기구입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교회 등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산소나 납골당, 공원묘지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자리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혈(穴)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좌향(방향)까지 잡을 수 있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의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풍수지리사 등 4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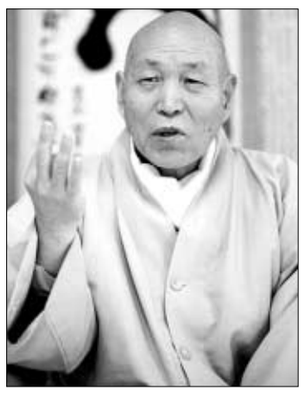
관룡자는?
1990년 7월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진산실업(주)에서만 생산 공급합니다. 조계사, 해인사, 수덕사, 상원사, 월정사 등 오랜동안 번성해오는 모든 사찰들의 대웅전 중앙과 서울 명동성당,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천도교대교당 등 종교단체의 건물 중앙, 세종대왕릉, 남연군 묘와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여러 문중의 묘, 일본 동경의 황거(皇居)와 오사카 성 등의 문화재, 중국 북경의 자금성을 비롯한 황제들의 능, 대만 타이베이 중정기념당(장개석 동상) 등 세계적인 유적과 시설물에서는 틀림없이 관룡자가 작동됩니다. 또한 아직 찾아내지 못한 명당자리도 국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교육장을 역임하신 김모선생께서 관룡자가 작동되는 지점에 은행나무 묘목을 이식하였는데, 수령 2년생인 나무들에서 호두알 굵기의 은행 열매가 50-70여 개씩 열렸습니다. 김선생께서는 이것을 보고 명당의 지기를 실감했다고 합니다.

원래 관룡자는 88만원 입니다만, 2003년 7월로 월간역학 창간 13주년을 맞아 130분께만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관룡자(88만원)+월간역학 1년분 (105,600)=985,600원을 80만원으로 할인해드립니다.
▣ 구입방법 : 수협 227-01-002756, 예금주: 진산실업(주)
80만원 입금하신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리며,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신용카드 소지하신 분 12개월까지 할부가능. 기업체에서 구입시 세금 계산서 발행. 구입 후 반품을 원하시면 3개월 이내 언제든지 즉시 환불해드립니다.
▣ 월간역학 1년분 구독료는 105,600원 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9만원으로 할인 + 수맥탐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월간역학 과월호(93년~2001년도분)를 1년분(12권)을 7만5천원에 판매합니다.
• 동영상(인터넷) 역학 강의 : 전국 어디서나 강의실까지 직접 오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내에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예 : 사주 초급 3개월 7만원)

(02)2264-0258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청옥빌라트 101호
www. kbs. cc

‘중앙선리연구원 · 교육불사’ 가 두 축

‘새로운 도약’ 기치 내건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



선학원이 ‘새로운 도약’을 기치로 내걸고 정체성 확립에 나선 데에는, 이대로는 선학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인재를 확보하고 불교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이렇게 선학원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은 ‘변해야 산다’는 이사장 정일 스님의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됐다.

1일 대전에서 열린 중진 분원장 회의에서 정일 스님과 만나 그 배경과 추진방향에 대해 들었다.

▲‘새로운 도약’을 천명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1921년에 발족한 선학원은 만공, 한영, 동산, 청담, 석주 스님 등 근 · 현대 선지식들이 몸을 담고 한국불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조계종의 모체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 스님들의 사상을 선양하지 못했고 따라서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근래 들어 선학원 내부에서조차 무사안일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약’은 내년 선학원 설립 70주년을 기점으로 선학원의 뿌리를 되찾고 이 과정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에 맞게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전개되는가?

“큰 틀에서 보면 중앙선리연구원 개원과 불교 소장학자 지원사업 두 가지를 축으로 사업이 전개되며, 핵심은 ‘교육 불사’다. 다시 말해 인재를 양성하고 선학원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10월에 개원하는 중앙선리연구원에서는 5명의 연구원을 중심으로 선학원 설립조사들의 사상을 조명하면서 <선학원사> <선학원 설립조사 문집> <정화운동사상사> <근현대 불교사상> 등을 출간할 예정이다. 또 정기 학술회의를 통해 선학원의 역사를 조명하고, 선을 중심으로 한 전통수행법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 보급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연구위원은 우제선(동국대) · 이종철(정신문화연구원) · 조성택(고려대) · 남동신(덕성여대) · 이주형(서울대) 교수로 이미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불교 소장학자 지원사업은 △불교관련 박사논문 △불교원문 번역 △외국인 학생 불교 관련 연구자 지원사업 등 세 개 분야에서 5명을 선발해 매년 총 6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자 선발은 중앙선리연구원 연구위원이 맡게 된다. 조만간 선발요강을 전국 대학에 배포할 것이다.

▲인재양성에 비중을 두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소장 학자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은 제외된다. 말 그대로 소장학자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다. 역량있는 소장학자를 발굴하고 양성해 선학원의 인재로 활용할 생각이다. 선학원이 도약하고 안하고는 여기에 달려있다. 선학원은 지금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가?

5명의 연구원 중심 조사들의 사상 조명
소장학자 발굴 · 양성 선학원 인재로 활용

“중앙선리연구원 운영비와 소장학자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1년에 약 1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선학원은 포교원을 포함해 모두 600여 개의 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60여 분원장이 뜻을 같이 하면서 후원금을 냈고, 신도들도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원장들이 동참할 예정이고 신도 후원회도 결성될 예정이다.

▲전통수행법을 현대에 맞게 보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

“선학원은 간화선을 모태로 하고 있다. 원전을 연구해 간화선을 쉽게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선리진작(禪理振作)’이라는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오늘날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을 재해석하고 대중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다른 수행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간화선과 비교하는 방식은 아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정부

‘북한산’ 접점찾는 과정서 혼선

“총무원장 정치적 보호 운운” 파동의 전말

총무원 · 청와대 부인, 환경연대는 2차 성명
관련자들 증언 엇갈려 … 과잉대응? 진실? 확인 안돼
“문제해결에 도움 안되는 상처 남겨” 여론

불교신문이 보도한 대로 청와대의 ‘조계종 총무원장 정치적 보호 운운’ 발언은 과연 사실일까. 그리고 이 같은 파문은 왜, 어떤 경로를 거쳐 파생됐을까.

정치적 보호 운운 발언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파문의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파문 경위와 배경은 대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소동이 3일 일반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이후 사태는 진정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불교환경연대 등이 ‘진실’을 가리자고 버티고 있어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사건 개요

불교신문이 8월30일 발행한 신문(9월 2일자)에서 ‘청와대, 총무원장 스님 협박’이란 제목의 기사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청와대 왜 이러나’ 제목의 사설로 다뤘다가 조계종 총무원의 지시에 의해 신문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는 소동을 빚었다. 불교신문은 머릿기사와 사설을 바꿔 이날 저녁 신문을 다시 발행했다.

불교신문 사장 현응 스님, 부사장 성관 스님(총무원 총무부장), 주간 현고 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등 불교신문 임원진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9월1일 사직서를 냈다.

불교신문은 문제의 기사에서 “여권의 한 정치인사가 청와대 고위 책임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산 문제에 대한 불교계 협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정치적 보호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불교환경연대의 성명 내용을 전하며 ‘청와대 고위직 인사의 총무원장 협박 발언’ 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불교환경연대는 8월29일 ‘불교계는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청와대의 정치적 보호를 거부한다’는 제목 아래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군사독재 시절에도 쉽게 할 수 없는 협박을 종교계에 하는가”라며 청와대를 강력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문제가 확산되자 조계종 총무원은 8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교신문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청와대 고위인사가 정치적 보호 운운 했다는 불교환경연대 성명서 내용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불교환경연대는 2일 발표한 2차 성명에서 “1차 성명에서 발표한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사건 배경 및 경과

이번 파문은 왜 일어났을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 보면, 북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조계종이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으로 보인다.

불교환경연대 성명에서 거론된 여권의 한 정치인사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종교특보를 담당했던 Y씨로, Y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총무원장 스님에게 북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조계종이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Y씨는 “8월20일과 28일 사이 총무원장 스님과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해법을 찾자는 양측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총무원 측도 “Y씨에게 (북한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측과 협의를 해달라는) 부탁한 적도 없으며, (Y씨는 청와대 측과 북한산 문제를 협의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 Y씨가 불교계 인사로서 나름대로 (불교계에)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청와대 측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며 Y씨 주장을 뒷받침했다.

●협박 발언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 Y씨는 “협박 운운은 말도 안되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Y씨는 또 “불교계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했고, 수경 스님과 현응 스님도 (정부에) 강력하게 어필하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개입했느냐고 하더라.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 꾸며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총무부장 성관 스님도 “대화 도중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치적 보호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며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한 결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Y씨와 청와대 관계자의 대화 내용이 완전히 왜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교환경연대 상임공동대표 수경 스님은 “Y씨가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총무원장 스님을 정치적으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청와대가 총무원장 스님을 협박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환경연대 조직실장 법현 스님은 “8월27일 법장 스님과 수경 · 현응 스님이 만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법장 스님이 Y씨를 거론하며 상당히 불쾌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드러난 문제점

이번 파문으로 불교계는 ‘정치적 보호 운운’ 발언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우선 북한산 문제와 같은 민감한 현안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런 파문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산 문제를 푸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통노선 불가라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 교계 일각에서 과잉반응을 보였고 그로인해 관계자들간에 불협화음이 돌출되었다는 것은 불교계 입장에서 보면 개운치 않은 여운이 남는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윤남진 기획실장은 “불교계의 주도로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산은 이후 불교환경운동뿐 아니라 불교 이미지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관통되더라도 ‘정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불교계의 주장이 진실성과 역사성이 있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우 · 남동우 기자



전통한정식 목 련

정갈하고 담백한 전통한식으로
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예약전화 : 02)2269-7155(주차장완비)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6번출구 (인쇄정보센터빌딩 지하) 금강심 합장 배례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오후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멋지게 걸어 보십시오

주[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Ⅲ-1030]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우리모두 원없이 기도합시다

고암대종사 1주기 추모제
104주년 탄신제
○ 추모제 : 2003년 10월 10일(9. 15) 10시 ○ 탄신제 : 2003년 10월 29일(10.15) 10시

제8주년 우리절 개산대재
2003년 10월 7일(화)10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재가불자 계율정신' 법문

하동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은 8일 대구 법왕사에서 열린 보살계 법회에서 '재가불자들의 계율정신'에 대해 법문을 했다

일주문



외국인 수행자 선 체험 교육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은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대전 자광사에서 제2회 외국인 수행자 한국문화 선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직장직능단체 의식교육 회향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8월 27일 서울 종로 조계사 설법전에서 2003년 전국 직장직능불교단체 집전의식교육을 회향했다.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김천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은 18일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한다. (054)436-6013



불교교양대학 수강생 모집

서울 북한산 노적사 주지 종후 스님은 7일까지 3개월 과정의 불교교양대학 제6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02)353-5016



우면산 보호 기금 조성

천태종 서울 관문사 주지 춘광 스님은 6~7일까지 경내에서 우면산 생태보전운동 기금 조성을 위한 추석 제수용품 알뜰장터를 개설했다.



'청정도론' 편집차 태국으로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은 올해 말 출간 예정인 <청정도론>의 교정과 편집 작업을 위해 1일 태국으로 출국했다.



히말라야 만다라 특별전

서울 사간동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은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불일미술관에서 '히말라야의 만다라를 선보이며' 특별전을 개최했다.



제8대 교수회장으로 선출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염중근 교수는 8월 25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열린 교수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교수회장으로 선출됐다.



'간디가 바라본 석존' 특강

우리는선우 이사장 박광서 교수는 6일 장충동 우리는선우 법당에서 경희대 허우성 교수 초청, '간디가 바라본 석존'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현대하이스코 부회장으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이상기 감사는 8월 29일자로 강관 및 냉연강판 생산업체인 (주)현대하이스코 부회장으로 임명됐다.

"육자진언 밀교신행에 동질감"

진각종 혜일총인, 달라이라마와 대담



◇한 · 티베트 밀교를 대표하는 진각종 혜일총인(사진 오른쪽)과 달라이라마가 8월 21일 인도 달라이라마 왕궁에서 좌담을 나누고 있다.

진각종 혜일 총인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 대담을 나눴다.

8월 17일부터 9일간 북인도의 따보 승원과 알치승원, 다람살라 등 밀교성지를 특별순례한 진각종 혜일 총인은 21일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왕궁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나 1시간 10여 분 동안 한 · 티베트 양국의 밀교수행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혜일 총인은 이 자리에서 "진각종은 '옴마니반메훔'의 육자진언을 수행의 본존으로 삼고 금강계 만다라 삽십칠존을 신행의 근본으로 삼는 생활 · 실천불교"라고 소개했다.

이에 달라이 라마는 강한 동질감을 표명하며 "불교의 바른 수행법은 '옴마니'를 통해 이타행의 자비를 생활에서 실천하고 '반메훔' 즉 수행을 통해 자신의 본성과 부처님의 근본 지혜를 깨달아 가는 이타자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와 일본의 삼십칠존 만다라 존상의 형상이 다소 다르다는 혜일 총인의 질문에는"인도에서 티베트로 전승된 밀교가 중국과 한국, 일본의 밀교와 전래된 과정이나 원전, 전래스승, 전통 등의 차이가 있어 다소 상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소외계층도 복지 혜택 받아야"

'2003 원주시민대상' 수상한 현각 스님



"불교복지는 중앙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복지의 후원이 필요한 것은 지역이 더 절실하지요. 앞으로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를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생각입니다."

2003년 원주시민대상(봉사 · 치안부문)을 수상한 현각 스님(원주 성불원 원장 · 사진)은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성불원 신도들과 함께 10여 년간 원주지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스님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복지 정책을 해결하는 데 조그만 힘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며 "장애인과 고아 등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들에게도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현재 명륜종합사회복지관과 원주시립복지관, 강릉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원주시민대상은 지역사회의 취약부문에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 등을 해온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역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자원홍보 지도자 워크숍 개최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가 8월 30~31일 1박2일간 설악산에서 '자원홍보 지도자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부이사장 성운 스님의 강연 등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자원홍보요원, 운불련 회원 등 모두 37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성찬회 장학금 전달



(재)불교문화 진흥 조계종(이사장 현해)이 8월 30일 성찬회를 열었다. 현해 스님은 이날 성찬회에서 고등학생 15명, 대학생 3명, 승가대 스님 3명 등 21명에게 장학금 총 2천 50만원을 전달했다. 스님은 "신심 깊은 이들을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회와 설법' 100호 발간 기념식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9월 1일 월간 '법회와 설법' 지령 100호 기념 전국 승가대학 학인 대상 설법 문안 공모 당선자 시상식과 지령 100호 발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었다. 도영 스님은 "'법회와 설법'은 기도 중심이 아닌 법회 중심으로 바꾸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대불청, 초급 집전자 교육



(사)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회장 인성호)가 '제3회 초급 집전자 교육'의 입재식을 8월 26일 봉행하고, 10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대불청 만해교육원에서 집전자 교육을 개최한다.

교육은 목탁집전, 기초교리 강좌 등 기초 상식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와/주/세/요

급성백혈병 고통 김태현 씨 치료비 없어 발만 '동동'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있고 외할머니는 70을 넘긴 고령이다보니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외할머니 신점이(76)씨는 고물 수집을 통해 김 씨의 간병을 하고 있지만, 항암치료비와 골수이식수술비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병원에서는 김 씨가 골수이식수술만 받으면 재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주위의 도움 없이는 수술은 물론 치료조차도 불가능한 상태다. 도움을 주실 분은 (02)734-8050 또는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로 동참하면 된다. 이동혁 기자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투병중인 김태현(23 · 사진)씨가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4살 되던 해 부모의 이혼으로 외가에서 자란 김 씨는 불우한 성장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최근 백혈병에 걸리면서 치료비 감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김 씨의 외삼촌은 근로능력이 없어 기초

납골당 설치 및 운영방법 안내

사회문제로 대두된 묘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화장 장려 정책' 이 효과를 보게 되어 대부분 국민들이 화장 문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정함으로써 점차 화장을 하는 수요가 늘어나지만 아직 납골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에 납골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골문화발전과 사찰 납골당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장안낙원에서는 획기적인 **"사찰 납골 활성화 사업"**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여 범위]
- 납골(추모)당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찰
- 납골(추모)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찰
- 납골 시설 설치부지가 협소한 사찰

해결방안

[장안낙원 지원사항]
- 납골당 시설 및 관리 운영에 대한 노하우제공
- 각종 법률적인 인허가 문제 해결
- 최고 시설의 안치단 저가 보급
- 각종 제사 유치로 부대수입 기대

초기 기획에서부터 납골시설 허가, 설치공사, 신도확보, 납골당 운영까지 책임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 031)901-1954, 017-755-1954, 011-276-2135

■ 주 최 : 장안사 장안낙원 ■ 협 력 : 한국납골문화연구원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CUMIN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8월30일 진각종과 대각종을 시작으로 북한산 살리기에 범종단적으로 참여했다.

북한산·천성산 살리기 전종단이 나섰다

관통노선 백지화촉구 릴레이단식
회룡사스님들 "북한산과 운명함께"

북한산 관통도로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정치적 보호' 발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과 천성산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조계종 교구 본말사 주지 스님들의 릴레이 단식 정진에 이어 북한산 문제를 범종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현됐다. 8월 30일부터 진각종과 대각종을 시작으로 총지종·여래종(31일), 태고종·미타종(9월 1일), 천태종·열반종(2일) 등 종단협 산하 주요 종단 스님들이 8일까지 참여정부의 북한산 관통노선 백지화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정진에 동참했다.

이에 앞서 8월 29일 경북 문경·예천 지역 인근 15개 사찰 주지 스님들은 북한산 관통도로와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구간을 조속히 강행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낸 신영국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 문경·예천 지역구)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천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 구미 도리사 주지 법등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등은 "위원들의 공론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건교위원장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낸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정부 회룡사 스님들도 북한산이 관통된다면 함께 죽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회주 혜주 스님, 주지 성견 스님 등 회룡사 스님 19명은 9월 2일 성명서에서 "총무원의 책임 있는 자와 청와대가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음해로 불교계 내부의 결속을 와해시키려는 음모를 시도하고 있다"며 "북한산에 구멍이 나는 날 우리 대중 모두는 북한산과 함께 죽을 것"을 천명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비전향장기수 30명 대북송환하라" 성명발표

비전향 장기수 송환 3주년 기념 및 2차 송환 촉구대회가 개최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천주교통일후원회, 통일광장 등 종교·사회단체들은 9월 2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열린 대회에서 2차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2차 송환희망자들이 전향 무효 선언을 하고 송환을 요구하고 나선지 이미 3년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남북사이의 화해협력을 촉진하는 본보기로 그리고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정순택, 정순덕 노인 등 비전향 장기수 30명을 조건 없이 송환할 것"을 촉구하고 2차 송환희망 장기구금 양심수 3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남동우 기자

경부고속철 서울~대구구간 주변

지하수 고갈·소음등 피해 심각

녹색연합, 두차례 조사

천성산, 금정산 구간을 관통하는 장대터널 건설시 야기될 생태파괴, 안정성의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는 지율스님의 3천배 기도가 21일째를 맞은 9월2일, 한 시민단체가 서울~대구 구간의 환경훼손 및 주민피해가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2일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고속철 서울~대구 구간의 환경훼손과 주민피해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수고갈, 수해, 토사유출, 소음 및 진동, 농작물피해 등 주민피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재철 생태국장은 "조사를 통해 밝혀진 지역 중 가장 극심한 환경피해가 발생한 곳은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일대"라며 "지하수 고갈을 비롯해 소음과 진동, 가축 집단 폐사, 양식장 물고기 죽음, 주택균열 등의 환경재앙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하수 고갈이 나타난 지역만도 경부고속철도의 대표적 터널 구간인 비룡터널이 지나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일대와 광명역 인근 지역 등 다수로 나타났다.

지하수 고갈로 식수 해결이 어려워지자 고속철공단은 대체 지하관정을 설치해 식수를 공급했지만 이마저도 식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자 정수기를 설치해 줬다. 그러나 잦은 고장과 수리비용 부담 등으로 주민들은 식수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연합 서재철 생태국장은 "경부고속철 공사가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거의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로 미뤄볼 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부산 구간 천성산, 금정산 장대터널공사로 인한 고층습지 고갈 및 지하수 누수, 지층 침하 등 심각한 환경문제와 안전의 문제가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지장사 수지포교원 앞에 내동댕이쳐진 현판과 초파일 연등.

지장사 수지포교원 훼불피해

동일건물 교회 목사 등 현판·연등 파손

기독교 단체에 의한 훼불사건이 발생했다.

8월 30일 경기도 지장사 수지포교원(주지 의선)은 현판과 초파일 연등 108개가 동일 건물에 입주한 에바다교회의 목사 외 3명에 의해 파손됐다고 밝혔다.

수지포교원은 지난 2001년 4월에 건물에 입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행사와 봉사활동 등에 총력을 기울이며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쳐왔으나, 올해 5월 외국어학원으로 계약을 맺은 옆 사무실 입주자가 임의대로 업종을 바꿔 교회를 열면서부터 크고 작은 불상사가 끊이지 않았다.

화장실에 붙여놓은 글귀가 떼어지고 낙서되는 것은 물론, 포교당 바로 위 옥상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지스님이 멱살을 잡히며 협박을 당하는 등의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났기 때문. 이에 수지포교원은 교회 측 실무자와 대화를 시도, 공동의 규정을 정하는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교회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김은경 기자

범종단 환경기구 설립 주요종단대표 간담회

범종단 환경기구 설립 지원 및 동참에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이 범종단적으로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9월 1일 하림각에서 열린 범종단 환경기구 설립 지원 관련 주요종단 2차 간담회에서 △범종단 환경기구 설립 지원 및 동참 △추진위원회 구성(추진위원회는 상임이사 종단에서 2명씩 추천) △8일 종단협 상임이사회에서 추진위 구성 보고 및 위원장 선임 △추진위원회 실무 진행을 위해 주요종단에서 실무위원 1인씩 추천 등을 결의했다.

남동우 기자

청년학생 200명 22일 방북

유적답사·경제교류 '첫인연 맺기'

남측청년 200명이 9월22일 방북하게 된다.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산하 청년학생위원회(단장 정상옥)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장 김인호)이 공동주최, 9월 1일부터 3일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청년학생대표자대회'가 방북단과 청소년교류 협의라는 성과물을 거두며 마무리됐다.

청학위 단장으로 방북한 정상옥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실무협의 결과 오는 22일부터 4박 5일간 남측 청년 200명이 유적답사단과 경제교류단으로 북측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와 청년학생 교류 협력 방안 및 남북한공동사업에 대한 논의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회장은 "남북 중·고등학생들의 역사탐방 및 문화체험에 대한 구두협의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방북의 중요 의제였던 10월의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 축전'에 대해서는 남북이 다소 의견차이를 보여,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기자

"새장묘문화 선도하자" 한국납골시설협 발족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해 나갈 납골 시설인들의 모임이 결성됐다.

한국납골시설협의회(KACI)는 9월 3일 발대식을 갖고 국토훼손방지를 위한 납골당 건립사업 추진, 화장문화 권장, 납골당 건립과 관련한 법령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동혁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목탁소리

'논문'과 중강자격



김철우 (취재1부 기자)

조계종 교육원은 2일 열린 제65차 교육원 회의에서 비구니 세등 스님의 승가대학(강원) 중강(부교수) 자격을 보류시켰다. 이날 교육원이 밝힌 보류사유는 지난 2001년 발표한 '팔경법의 해체를 위한 페미니즘적 시도'의 논문주제가 율장에 맞지 않는다는 것. 팔경법의 절대적 폐지를 주장한 세등 스님의 연구 전력이 중강 부적격 사유로 적용된 셈이다.

이 논문에서, 세등 스님은 "불교가 성 평등적 핵심교리에도 불구, 한국불교의 제도적 형식 속에는 여전히 불교의 대표적 성차별적 규정인 팔경법이 살아있다"며 팔경법 해체를 주장했다.

교육원은 이와 관련, 기자와의 전화에서 세등 스님이 승려기초교육기관인 강원의 중강으로서는 적격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세등 스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수적인 비구 스님이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자가 학문적 주제를 갖고 연구한 결과물로 중강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다양한 학문적 발전과 불교 내부의 건전한 비판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원의 입장이 듣는 이에 따라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과연 교육원의 중강 자격 보류가 적절했는가 곱씹어볼 일이다. 종단이 개인의 학문 전력을 시비 삼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복지법인 '제주태고원' 설립추진

태고종, 제주도에 첫사업으로 치매노인 요양원 건립

60여명 수용…내년3월 개원 예정

태고종 제주교구(종무원장 도성)가 최초로 제주도에 불교복지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태고종 제주교구는 9월5일 회의를 열고 제주도청에 '복지법인 제주태고원'이란 이름의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로써 제주교구는 사회복지시설 설립과 위탁 운영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종무원은 복지법인 제주태고원 설립인가 이후 첫 사업으로 태고치매노인요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제주시 하북동 소재 1천7백여평의 대지에 설립되는 태고치매노인요양원은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435평으로, 60여명의 치매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된다. 또 의료시설과 체육시설, 법당, 휴게실, 산책로 등을 갖춰 요양시설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지원금 15억여원과 제주교구 기본자산, 특별운영비 6억여원 등 21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제주교구는 복지법인 운영을 위해 75개 소속 사암의 주지 등으로 운영위원회와 시설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제주교구 종무원장 도성스님을 추대했다.

복지법인 운영위원회는 치매노인요양시설 외에도 장애인, 어린이 복지시설을 자체 건립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등의 중장기계획안도 마련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또 태고종 총무원을 중심으로 복지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교구, 충북교구와의 네트워크도 구축해 종단과 제주교구의 사회복지활동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원교구의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 충북교구의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이어 제주교구가 법인인가를 받음에 따라, 재단법인 태고원을 모태로 연내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태고종의 법인 설립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위원장 도성스님은 "제주교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지법인 설립이 이제야 결실을 맺었다"며 "태고종 총무원, 강원 · 충북교구와의 연계활동을 통해 보다 조직적인 사회복지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천태종 하안거 해제

1만8천여 재가불자 동참

천태종은 8월 28일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해 종단 산하 전국 사찰에서 실시한 '계미년 하안거'를 해제했다.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 하안거에는 1만 8천여 재가불자들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인사 해제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간부와 구인사 대중, 재가불자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박봉영 기자

각 사찰내 납골시설 건립

대승종 6원장회의 결의

대승종(총무원장 심월)은 8월 28일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으로 구성된 6원장 월례회의를 열고 종단 소속 사찰에 납골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대승종은 서울교구 2개소를 비롯해 경기교구 1곳 등 10개 교구에 총 11개소의 납골시설을 소속 사찰에 건립, 납골을 유치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총지종 홈페이지 대폭 개선

실시간 신행상담 코너등 신설

총지종 인터넷 홈페이지(www.chongji.or.kr)가 확 달라졌다.

8월 31일 재개통된 총지종 홈페이지는 총지종의 상징인 만다라와 육자대명왕진언을 배경으로 종단의 현황과 밀교를 소개하고 있다. 또 기관지인 <총지종보>와 종단 사원 안내, 공지사항 등 종단 홍보란도 강화됐다. 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신행을 실시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코너도 마련됐으며, 동해중학교,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산하기관에 대한 정보와 링크 서비스, 영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총지종 관계자는 "세련된 디자인과 알찬 내용을 갖춘 만큼 밀교와 종단을 알리는 대표적인 홈페이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무량종 창종 4주년 기념법회

무량종(총무원장 혜안)이 창종4주년 기념법회를 9월 1일 경남 하동군 지리산 칠보정사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감찰원장 혜운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혜안스님은 "세상이 날로 혼탁해지고 급변하고 있다"며 "종단은 혼탁한 사회 정화에 힘쓰는 동시에 중생계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대중들에게 올바른 정신문화를 창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고종, 녹색장묘운동 선포식 선포식에 참석한 총무원장 운산스님 및 사대부중 2000여명은 매장으로 인한 자연과 국토파괴를 막고, 친환경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사업방안을 담은 영상물을 보고 있다. 김은경 기자

北 개성영통사에 기와보낸다

천태종, 복원불사 지원…내년 10월 회향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이 북한의 개성 영통사에 기와 43만장을 보낸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9월 2일 교계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가 2004년 10월까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원 스님은 "북한에 보내는 기와 43만장(시가 8~9억원)은 18톤 트럭 80대 분량으로 육로나 선박을 이용해 전달할 계획"이라며 "영통사에 보낼 기와는 동파를 막기 위해 시멘트로 제작했지만 전통적인 디자인에 유약을 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는 영통사는 북한 조선경제협력위원회 산하 영통복원위원회가 1997년부터 29동의 건물을 건립하고 있다.

한중일 천태종단은 내년 10월 제903주기 대각국사 의천 스님(1055~1101)의 열반대재날에 맞춰 개성 영통사에서 복원불사 회향식을 개최할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종단소식

구화산등 중국 성지순례

원융종(총무원장 법륜)은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5박6일의 일정으로 중국 성지순례를 떠난다. 이번 순례는 구화산 지장보살도량인 화성사와 영파 보타산 관음보살 성지에서 여는 법회를 비롯해 항주 영은사, 상해 옥불사 참배 등으로 진행된다.

독거노인 경로잔치 열어

미륵종(총무원장 송정) 용화사는 8월 31일 창건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독거노인, 신도 등 400여명의 사대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전 조계종 신도회장 박완일 법사의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다.

대구포교원 무각사 개원

대각종(총무원장 만청)은 9월 21일 오전 10시 부여 미암사의 대구 포교원인 무각사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대구 중구 남산동에 소재한 무각사는 총무원 직할 사찰로 운영되며, 초대 원장에 혜광스님이 임명됐다. 무각사는 신도교육 부속기관으로 한국불교교양대학도 운영한다.

우면산 트러스트에 동참

천태종 서울 관문사(주지 춘광)는 8월 25일 서초구 우면산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생태계를 보존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우면산 트러스트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9월 6~7일 기금 마련을 위한 알뜰장터를 열었다.

게시판

행사 ▲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노인의 날을 맞아 10월 1일 '해올민속잔치'를 개최한다. (02)455-0551

▲노숙자 쉼터 희망의 집은 9월 10~12일 한가위 맞이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2)385-1351

모집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는 정기 후원자 및 단체를 모집한다. (02)365-3677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제3캠퍼스 건립추진단 건설본부장 최창선(崔昌善) △건학100주년 기념사업회 사업본부장 선상규(宣相圭) △비서실장 정창현(鄭昌賢) △대외협력처 협력담당관 차선구(車璇九) △대외협력처 협력담당관 김병수(金丙洙) △교무처 학생선발실장 김종진(金鍾振) △학생처 학생복지실장 황우열(黃禹烈) △문화예술대학원 교학부장 윤범대(尹範大) △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 이강현(李康賢) △교무처 학사지원실장 조원생(趙源生) △불교병원개원추진단 총무팀장 이건배(李建培) △기획인사처 기획심사팀장 박동수(朴東壽) △기획인사처 예산팀장 손재영(孫在英)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장 겸 기획사업팀장 안재봉(安載奉) △건학100주년 기념사업회 기념사업팀장 김준호(金俊鎬) △연구처 연구지원팀장 박광호(朴光鎬) △정보관리실 정보자원관리팀장 박승종(朴昇鍾) △체육실 체육부장 이우용(李愚龍) △사회교육원 교학과장 이성진(李聖鎭)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장 이익성(李益成) △기획인사처 인사관리팀장 윤동규(尹東奎) △제3캠퍼스건립추진단 기획팀장 겸 불교병원개원추진단 관리팀장 김재선(金載宣) △야간강좌 교학처 교학과장 조경진(趙庚辰)

▲동국대 경주캠퍼스=△총무처장 류풍운(柳豊雲) △총무처 총무팀장 신태용(辛台容) △사회과학대학원 교학부장 채찬호(蔡燦鎬) △불교문화대학원 교학부장 박정우(朴正佑) △금장생활관 관리과장 이진희(李鎭熙) △기획처 대외협력팀장 김영수(金英洙) △정보관리실 정보시스템관리팀장 이상기(李相淇)

▲동국의료원=△기획관리실장 신일식(申日植) △포항병원 사무국장 황주환(黃周煥) △분당한방병원 사무국장 안준옥(安俊玉) △기획관리실 기획감사과장 박상관(朴相寬) △기획관리실 인사과장 김종백(金鍾伯) △기획관리실 구매과장 문용주(文龍周)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유·리·거·울·은·내·몸·을·비·춰·주·고
종·이·거·울·은·내·마·음·을·비·춰·준·다

"〈종이거울자주보기〉운동을 시작하며"

《종이거울자주보기》는 우리국민 모두가 한 달에 책 한 권 이상 읽기를 목표로 정한 새로운 범국민 독서운동입니다.
국민 각자의 책읽기를 통해 우리나라가 정신적으로도 선진국이 되고 모범국가가 되어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운동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인간의 성숙 없이는 그 어떠한 인류행복이나 평화도 기대할 수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고, 오직 개개인의 자각을 통한 성숙만이 인류의 희망이고 행복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된 때문입니다.
이에, 우선 우리 전 국민의 책읽기로 국민각자의 자각과 성숙을 이루고자 〈종이거울자주보기〉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글을 대하는 분들께서는 저희들의 이 뜻이 안으로는 자신을 위하고 크게는 나라와 인류를 위하는 일임을 생각하시어, 흔쾌히 동참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7월 17일 〈종이거울자주보기〉운동

●공동대표 / 조홍식 이시우 황명숙

●지도위원 / 조홍식(성균관대명예교수) 박재동(에니메이션 감독) 박성근(낙농업) 황보상(의사) 김재영(동방대교수) 이근후(의사) 정웅표(서예가) 김영태(동국대명예교수) 박범훈(작곡가) 윤용숙(여성문제연구회장) 안장헌(사진작가) 방상복(신부) 이재운(소설가) 송영식(변호사) 이택주(한택식물원장) 이시우(前 서울대교수) 신희섭(KIST학습기억현상연구단장) 김숙자(주부) 김기철(도예가) 강대철(조각가) 이호신(화가) 김성배(미,연방정부공무원) 신송심(주부) 이일훈(건축사) 김세용(도예가) 김영진(변호사) 임현담(히말라야순례자) 안상수(홍익대교수) 박광서(서강대교수) 박성배(미,뉴욕주립대교수) 안숙선(판소리명창) 이각범(한국정보통신대교수) 유재근(연심회주) 한승조(고려대명예교수) 서혜경(전주대교수) 민희식(한양대명예교수) 이인자(경기대교수) 황명숙(한양대명예교수) 손진책(연출가) 박세일(서울대교수) 이중표(전남대교수) -무순-

● 〈종이거울자주보기〉 운동의 회원이 되려면,
· 먼저 〈종이거울자주보기〉운동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매월 회비 10,000원을 냅니다.
(1년, 또는 몇 달 분을 한꺼번에 내셔도 됩니다.)
국민은행 245-01-0039-101(예금주 김인현)
· 때때로 특별회비를 냅니다. 자신이나 집안의 경사 및 기념일을 맞아 희사금을 내시면, 그 돈으로 책을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분들에게 책을 증정하여 〈종이거울자주보기〉운동을 폭넓게 펼쳐갑니다.

● 〈종이거울자주보기〉 운동의 회원이 되면,
· 회원은 매월 책 한 권 이상 읽습니다.
· 매월 책값(회비)에 관계없이 좋은 책, 한 권씩을 귀댁으로 보냅니다.
(회원은 그 달에 읽을 책을 집에서 받게 됩니다.)
· 〈도서출판종이거울〉에서 발간되는 책마다 회원의 이름을 싣습니다.
· 저자의 출판기념 강연회와 사인회에 초대합니다.
· 지인이나 친지, 또는 특정한 곳에 동종의 책을 10권 이상 구입하여 보낼 경우 특전을 받습니다.
※평소 선물할 일이 있으면 가급적 책으로 하고, 이웃이나 친지들에게도 책 선물을 적극 권합니다.
· 〈도서출판종이거울〉및 유관기관이 주최 · 주관하는 문화행사에 초대합니다.
· 책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 자주, 기쁜 마음으로 책을 증정합니다.
· 〈종이거울자주보기〉운동의 홍보위원을 자담합니다.
· 집의 벽 한 면은 책으로 장엄합니다.

연락처 / 〈종이거울자주보기〉운동
전화 031-676-8700 전송 031-676-8700 E-mail dopiansa@kornet.net

주 5일 근무와 템플스테이

양보다 질로 승부를

▣ '호재' 로 기대 받는 '주5일 근무제'

'5일 근무, 2일 휴무' 시대가 우리 사회와 삶의 틀을 바꾸면서 라이프스타일 자체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종교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특히 변화에 민감한 쪽은 개신교계. 전통적으로 일요일에 주일 예배를 봐온 개신교계는 주5일 근무제가 신앙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한때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최근에는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갈릴리 교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토~일요일 연휴에 휴가를 즐기려는 젊은 신자들을 위해 '금요 저녁 예배'를 도입했고 금요일 저녁예배를 도입하는 교회는 앞으로도 속속 늘어날 추세다. 가톨릭에서도 미사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성당에 보육시설 설치, 가족 단위 주말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심을 쏟고 있다.

반면, 불교계는 주5일 근무제가 포교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쉬는 날이 늘어날 경우 산사(山寺)를 찾는 사람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이 같은 기대에는 단순히 절에 들러 '구경하는' 사람이 늘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템플 스테이의 '안착'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정착 단계에 들어선 템플 스테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산사 체험, 주말 수련회 등의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의 '주 고객'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다. 한 번 참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계속 참여하는 '마니아'층이 따로 형성될 정도다. 이들 마니아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해외에 있는 지인(知人)들에게 '입소문'을 퍼트려 '홍보 맨'을 자청하기도 한다. 국제회의나 관광차 한국에 들른 외국인들도 산사 체험을 원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고, 지난 3~4일 낙산사에서 열린 호주 언론인 템플 스테이처럼 단체 참가자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직원 연수 프로그램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7월 삼성SDI 부산 공장의 과장급 이상 간부 520명이 6차에 걸쳐 양산 통도사에서 수련회를 열었고, 금융자동화기기 전문업체인 노틸러스 효성의 팀장급 직원 50여명도 지난 6월 강화 전등사에서 1박2일의 산사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은 전 직원이 지난해 9월 부산 범어사에서 연수를 가졌다. 지난해 임원진들이 산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하나은행은 올해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교양과목으로 도입하는 대학이 생겨날 정도다. 인하대가 올 여름방학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강화 전등사에서 산사 체험을 실시한 데 이어 중앙대는 교양학부 프로그램에 3학점짜리 산사 체험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템플 스테이 담당 이고은 씨는 "내 · 외국인을 막론하고 가장 큰 이유는 정신적 휴식의 개념이고, 외국인의 경우 한국불교를 배워보겠다는 사람도 많다"며 "비불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절에서 한 번 자고나면 비불자나 타종교인의 90%는 친 불교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성화 ·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 절실

보완해야 될 점도 분명 있다. 가장 큰 지적은 "이젠 양보다 질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참선'을 할 때도 외국인의 경우 무조건 오래 앉혀놓을 것이 아니라 시간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발우공양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에게는 '체험'의 뜻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 그 정신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백화점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찰마다 그 절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특히 1박2일의 짧은 일정이 아니라 보다 긴 호흡의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특성화 · 전문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다.

종단에서 좀 더 종책적으로 다가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담당자가 1명밖에 없고, 예산 편성도 따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 제몫을 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종단적 관심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참여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과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템플 스테이나 주말 수련회 등이 인기를 끄면서 절에서 사원 연수를 실시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사진은 대흥사 주말 수련회 참가자들의 숲속산책 장면.

산사체험 · 주말수련회 개념 확장

외국인 위해 참선 · 발우공양 등 '주력상품' 갖춰야

절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이용성
지하철 '풍경소리' 사무처장

'전국구'된 풍경소리

기차 역마다 포교게시판 문화포교 건강한 씨알 자임

스님!

무더위에 평안하십니까? 전에 뵈었을 때 주신 차 잘 마시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마시는 한 잔의 차를 통해 처음 풍경소리를 시작할 때 해주셨던, "처음마음을 잊지 마라"는 말씀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풍경소리도 어언 창립 4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어려운 일도 많았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정말 뜻 깊은 일 한다는 주변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기운을 회복하고 한걸음씩 달려왔습니다. 처음 서울지하철공사에서 1~4호선 역사에 게시판 설치승인을 받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감명에 젖었던 일이 정말 꿈같게 느껴집니다. 포스터를 교체하고 나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문의 전화들. 글의 의미를 묻는 전화에서부터 작가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까지. 그리고 제일 반가운, 후원을 하시겠다고 전화주시는 후원자분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보람과 대중공간포교의 위력을 실감하는 순간들이었죠.

초기에 지하철 주변사찰에 협찬을 요청하러 들어갔다가 잡상인 취급을 당하고 나와야 했던 일들도 이제는 재미있는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전국 230여 개의 사찰이 저희 풍경소리 불사에 동참하고 계시니까요. 이제는 전국의 지하철(서울, 대구, 부산, 인천)뿐만 아니라 일반 철도역 대합실까지 다 포교게시판을 설치하였으니 명실공히 전국구(?)가 된 셈입니다.

게시판을 붙인 역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게시판을 철거해 달라고요. 타종교인들의 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역 관계자를 설득해야 하는 건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그만큼 게시판이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걸로 해석돼 즐겁기도 합니다.

요즈음 풍경소리에서 전통사찰문화체험이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반인들에게 사찰수행공간을 개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있진 못하지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직업, 연령, 종교까지 말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천주교 신자이신 50대의 여성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웅전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 봤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불교문화가 일반인들에게 아련한 향수를 풍기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반국민의 요구에 호응해 줘야 하는 것이 불제자의 의무라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일전에 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된 캐릭터전시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기 전엔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불교적인 소재의 작품이 나와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한편으론 대한민국의 캐릭터산업의 현실을 본 것 같아 씁쓸하기도 했지만 그곳에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를 너무 슬프게 했습니다. 문화포교를 해 보겠다고 자임하고 나선 단체의 실무자로서 앞으로 할 일을 확실히 알게 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경소리의 실무자들끼리 항상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일의 성과들은 사찰이나 포교당에서 거둬들여야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요. 우리 일의 결과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정체'라는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요. 그런 생각이 저희를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스님과 주변의 많은 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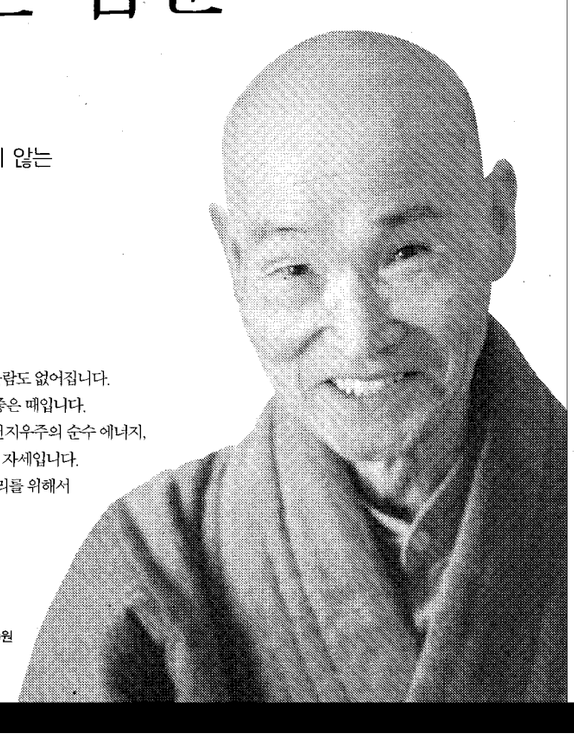
전화 588-0833 팩스 588-0835 www.sigongsa.com 시공사

우리 시대 큰스님,
청화스님의 맑고 깨끗한 법문



40년간 하루도 바닥에 등을 대고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수행,
하루 한 끼만의 식사,
그리고 철저한 계행(戒行)의 삶……
불교계의 큰어른 청화 스님이 전하는
행복한 마음 공부

참선을 잘 하면 내가 없고 네가 없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도 없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날이 좋은 날이고 때때로 좋은 때입니다.
우리 마음은 나다, 너다, 좋다, 궂다, 시비를 다 떠나서 천지우주의 순수 에너지,
순수 정기인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이 참선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것이고, 염불도 그 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늘 좋은 날 모두 좋은 사람" 중에서(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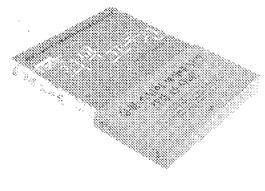
● 청화스님 말씀 | 신국판 | 269쪽(컬러 화보 포함) | 값 9,000원

청담스님의 딸, 성철스님의 제자인 묘엄스님 이야기

회색 고무신



낡은 걸망·하나, 기워 입은 옷 한 벌,
그리고 고무신 한 켤레가 가진 것의 전부였던 시절.
묘엄스님이 추억하는 이야기 속에는
맑은 가난을 즐기던 청빈한 수행자들의 삶이 가득합니다.



● 묘엄스님 구술, 윤청광 엮음 | 신국판 | 356쪽 | 값 9,000원

맹위를 떨쳤던 무더위도, 지루한 장맛비도 꼬리를 감춘 결실의 계절 가을. 지금 '일터 불심'이 설레고 있다. 의료·자원봉사활동이며 경전읽기, 합동수련회 등 펼칠 행사들이 푸짐하기 때문이다. 직장불자회의 다양한 가을맞이 준비. 무슨 행사들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미리 살펴본다.

자원봉사 · 경전읽기 · 각종 수련회

영그는 가을 불심



병원불자련 · 선재마을의료회 내달 의료봉사
건교부불자회 등 법화경 · 42장경 · 금강경 독경
전력인불자련 · 운불련 · 불교산악인련 수련회



그림 · 김영민

▼이웃과 함께 한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이하 공불련)는 10월 중순 '사회봉사의 날'을 제정한다. 그간 산발적으로 진행돼온 지역별 단위 기관불자회의 봉사활동을 일정기간에 집중, 대사회적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동참 방식은 인근 지역 복지시설의 불우 이웃들을 일제히 방문하고, 전국 205개 기관불자회가 동참한다. 앞서 우리은행불자회(회장 정진호)는 6일 추석을 맞아 서울 장애아 복지시설인 상락원에서 목욕 · 청소 · 빨래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무료진료 활동도 전개된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효, 이하 병불련)는 오는 10월 11~12일 이틀간 합천 해인사로 제7회 의료봉사를 떠난다. 병불련은 이를 위해 국립의료원, 국립경찰병원, 경희의료원, 한일병원, 동국대학교 강남 한방병원, 국립서울병원 등 7개 병원불자회 소속 의사 · 간호사 · 물리치료사 40여 명으로 의료봉사단을 구성했다. 또 내과 · 치과 · 안과 · 한방과 등 4개 진료과목과 물리치료를 실시 부처님의 자비인술을 펼친다. 특히 이번 진료는 진료대상을 스님들로 해, 회원들의 신심도 점검받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밖에 선재마을의료회는 10월초 남해 화방사로 진료봉사를 떠나고, 불자약사보리회는 이에 앞서 7일 천태종 서울 관문사에서 지역 주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투약봉사활동을 벌였다.

▼'경전읽기'로 불심 달군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부처님 말씀에서 신심을 북돋운다. 경전공부로 신행의 토대를 단단히 하는 직장불자회는 한국은행불자회, 철도청 서울구로승무소 · 성북승무소 법우회 등 20여 곳이 넘는다.

건설교통부 불자회는 지난 2000년 창립 이후 <반야심경>을 공부하고 있다. 또 과천 정부청사 5개 부처 불자연합회 정불회 결성을 주도, 매주 한 차례 보광사에서 <금강경> 독경을 이끌고 있다. 철도청 구로승무소 법우회도 마찬가지다. 이 법우회는 매달 <42장경> 등의 교리강좌 개최해 경전 읽기로 가을을 맞고 있다. 또 한국은행 불교회는 매주 <금강경>, <법화경>, <불교경전입문> 등을, 성북승무소 법우회는 <초발심자경문>을 독경한다.

특히 서울대 교 · 직원불자모임 '불이회'는 1998년부터 외부 강사와 스님을 초청, 특정 주제를 선정해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누는 법담회를 여는 등 체계적인 경전읽기를 하고 있다.

▼불자회 발전 방향을 고민한다

전국전력인불자연합회(회장 이인규)는 10월 연합수련대회를 해남 대흥사에서 연다. 당초 임원 중심에서 전 회원이 참가하는 수련회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17개 지회 300여 명이 참석하고, 연합회 발전과 법회 활성화를 위한 지회별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와함께 전력인불자 화합을 위한 철야정진, 삼보일배, 참선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조홍인)도 11월 1~2일 이틀간 부산 범어사에서 지역회 임원 수련회를 갖는다. 전국 23개 지역회 임원이 참석하는 수련회에서는 운전불자기사로서의 기본 예절, 직종 특성을 살린 포교방법 개발, 집전의식 실수 등의 프로그램들이 이뤄진다.

또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는 10월 19~20일 이틀간 경북 안동 홍은사와 청송 온천관광호텔에서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연합회는 그간 벌여온 사찰환경 및 생태보호 운동에 대한 단위 산악회별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 등을 집중 논의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창립 6주년 기념법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 · 사진)는 20일 서울 잠실 불광사 대웅전에서 창립 제6주년 기념법회와 하반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현진 스님 초청 가을법회

한국언론사불자연합회(회장 김진평 · 사진)는 21일 서울 여의도 포교당에서 원장 현진 스님 초청, 가을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직장불자의 수행법' 강좌

우리은행불자회(회장 정진호 · 사진)는 18일 은행 본점 4층 회의실에서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법현 스님에게 '직장불자의 수행법' 특강을 듣는다.



일명 스님 <42장경> 강의

철도청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우철제 · 사진)는 17일 구로 관음포교원에서 주지 일명 스님에게 <42장경> 교리강좌를 듣는다.



경북 정부부지사로 승진

경상북도청 김영재 경제통상실장(사진 · 경상북도청 불자회장)은 지난 9월 2일자로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로 승진발령을 받았다.



동화사 등 하계 성지순례

강원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황환철 · 사진)는 8월 31일 경주 불국사, 대구 동화사 등으로 하계 성지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우리불자회는요

광주불교산악회

산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불자님들이 힘겹게 오른 산 정상에서 맛 볼 보람과 짜릿함, 모두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불자든 비불자든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주불교산악회는 지난 1996년 10월에 창립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 밝히기'란 슬로건 아래 50여 명의 산악인들이 모였습니다. 전국의 명산 사찰을 찾아 포교와 신심을 맑게 닦아오기를 7년 째. 이제는 회원만 350여 명이 넘는 중견 신행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우선, 우리 불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본 회를 중심으로 광주 지역 단위 산악회를 결성, 그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게 된 요인은 각 지역별 회원들이 '한 사람 모셔오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올 6월 25일 발족한 '광주불교자비산악회'도 이러한 회원들의 노력 끝에 이뤄진 결과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불자회 자랑을 하겠습니다, 흔히들 명산에는 명사찰이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 불자회는 산사를 찾아 합장례하고 명산을 오를 때마다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들 모두는 불자라는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매월 둘째 · 넷째 주 일요일에 봉행되는 산상법회는 우리 불자회의 신심과 산 사랑을 확인하는 법석입니다.

불교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회원들은 불교대학 수강 및 각 사찰에서 실시하는 기초교리 강좌 및 법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간 정보교류를 위해 사이버법당(cafe.daum.net/1234jds)도 개설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합동 성지순례 및 산행법회에서는 '달리는 법당' 운영합니다. 버스 안에서 법회와 사시불공을 봉행하고, 새로 오신 회원들에게 불교를 아주 쉽게 설명해 불교신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사회봉사 활동도 왕성합니다. 그간 꾸준히 소년가장, 불우이웃 돕기, 자연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산악회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불국정토를 일굴 불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불교포교자로서 누비고, 한 분이라도 산상법회에 참석 그 참맛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간의 벽을 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8년 부산불교산악회와 2001년에는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산악회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영 · 호남 불자화합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악회의 올 목표는 전국적인 순례법회를 더 많이 갖고, 수계 법회 개최, 신도증 보급 등에도 중점을 줄 생각입니다. 또 회원들의 불교계 각종 행사와 문화, 봉사 및 사회 활동에도 독려해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정대석 홍보부장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 밝히자" 슬로건
영호남 불자 화합 · 봉사활동 강화 등 계획



◇영호남 불자산악인들이 지난 2001년 열린 합동신행법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

정 토 불 교 대 학

[4학기 2년과정]

정토불교대학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구체적인 우리 현실생활 속에서 쉽게 적용하여, 일상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자기수행과 실천활동을 위한 사회특강, 2002 막사이사이상 평화상을 수상하신 법륜스님의 영상법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 역	학 사 일 정				연 락 처
	학기	개강 – 종강	요일	시간	
부산(주/야)	4학기	9.15 ~ 12.15	月	오전 11:00 / 오후 7:30	051)557-2746
서울(주/야)	◇진리의 바다, 경전의 세계	9.16 ~ 12.16	火	오전 11:00 / 오후 7:30	02)587-8993
마산(주)		9.16 ~ 12.16	火	오전 11:00	055)247-8991
울산(주)		9.23 ~ 1.13	火	오전 11:00	052)271-8996
대구(주/야)	2학기	9.17 ~ 12.17	水	오전 11:00 / 오후 7:30	053)744-3025
광주(주)	◇불교사상의 뿌리, 근본불교	9.18 ~ 1.15	木	오전 11:00	062)265-9606
대전(주)		9.19 ~ 12.19	金	오전 11:00	042)253-8990
청주(주)		9.19 ~ 12.19	金	오전 11:00	043)284-5951

마음 다스리는 공부
◇ 기도 정진, 수행점검, 나누기
◇ 일상 속에서 자기 점검
◇ 교육생 면담, 상담
◇ 과제물 제출

특 강
◇ 특강 수련(법륜 스님)
◇ 불교와 사회 (환경, 복지, 통일, 평화)
◇ 야외법회 – 경주 남산 성지 순례(법륜스님 안내)

접 수 안 내
◇ 접수기간 : 2003년 9월 13까지
◇ 대 상 : 바른불교를 찾고자 하는 사람
◇ 구비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 2매
◇ 동 참 비 : 60,000원(한 학기)
◇ 문 의 : 각 지역법당

정토회 정토불교대학 JungTo Society 02-587-8994

명리학 사상 가장 확실한 교과서인
"최신팔자명리학비결" 소개

사주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다만,올바른 교재와 선생을 만나기가 어려울뿐입니다. 본서로 공부하면,여러분도 빠른 시일내에 사주학의 대가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서는 사주학의 근본원리에부터 고급 추명비결에 이르기까지 사주학의 핵심이론들을 확실하게 밝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 본서의 주요내용 소개 :
- 애매한 사주의 용신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비결 수록
- 사주구조의 좋고나쁨을 판별할 수 있는 비결 수록
- 육친분석 및 대 · 세운 해석 통변술 수록
- 국내에 전혀 알려진바 없는 각종 중요 비결들 수록



♠ 저자 : 오산 정대균
♠ 책규격 : A-4용지 620쪽
♠ 가격 : 220,000원 (단, 스님,법사님들에게는 우대가격 적용)
♠ 본서는 본 연구소에서만 판매함.
♠ 구입방법 : 하기 계좌로 송금하신후 전화로 주소를 알려 주시면 택배로 우송함. 자세한 서적소개에 관해서는 하기 홈페이지 참조.
♠ 계좌번호 : 국민 765202-04-019996 농협 170202-56-037616 예금주 : 정대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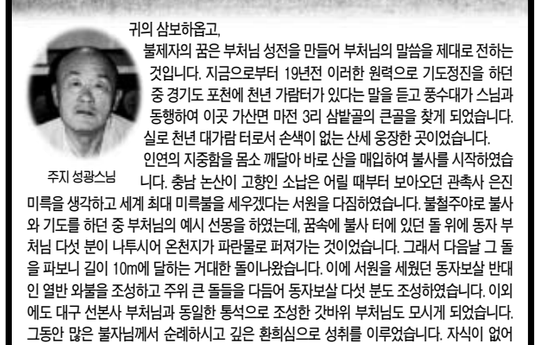
※ 수강생도 수시 모집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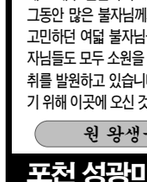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서울시 대림 3동 779-15호
전화 : 02-831-0055(대표)
FAX 02-831-0058 H · P 011-208-0051

세계 최대 단일석상 열반와불 봉안 성전
발원 원만성취 기도도량 성광미륵사





주지 성광스님

귀의 삼보하옵고,
불제자의 꿈은 부처님 성전을 만들어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전 이러한 원력으로 기도정진을 하던 중 경기도 포천에 천년 가람터가 있다는 말을 듣고 풍수대가 스님과 동행하여 이곳 가산면 마전 3리 삼밭골의 큰골을 찾게 되었습니다. 실로 천년 대가람 터로서 손색이 없는 산세 웅장한 곳이었습니다.
인연의 지중함을 몸소 깨달아 바로 산을 매입하여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충남 논산이 고향인 소납은 어릴 때부터 보아오던 관촉사 은진미륵을 생각하고 세계 최대 미륵불을 세우겠다는 서원을 다짐하였습니다. 불철주야로 불사와 기도를 하던 중 부처님의 예시 선몽을 하였는데, 꿈속에 불사 터에 있던 돌 위에 동자 부처님 다섯 분이 나투시어 온천지가 파란물로 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돌을 파보니 길이 10m에 달하는 거대한 돌이나왔습니다. 이에 서원을 세웠던 동자보살 반대인 열반 와불을 조성하고 주위 큰 돌들을 다듬어 동자보살 다섯 분도 조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구 선본사 부처님과 동일한 통석으로 조성한 갓바위 부처님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자님께서 순례하시고 깊은 환희심으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여덟 불자님들은 정성기도로 소원을 이루셨고, 중생의 여러 번뇌로 고민하던 불자님들도 모두 소원을 성취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불자님들이 지극정성 기도하며 원만성취를 발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단일석상 열반와불은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불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픔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원 왕생극락 – 지장보살 남골당 신청받습니다.

포천 성광미륵사(열반 와불사) 주지 성광 합장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마전 3리 13-1 삼밭골의 큰골
031-544-0048, 4800 / 011-9167-0048

사찰중심 다양한 사회운동 필요

다원화 된 사회속 차별화 된 대비 있어야

박수호 씨, 불교학 학술대회서 주장



"정보화에 따른 종교영역의 변화 전망에 따라 △불교 시민사회 형성과 지방화 △신행결사 △전문화 △차별화와 연대 등을 포교전략으로 수립해야 한다"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박수호 연구원(사진)은 9월 6일 고려대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제19차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정보화로 인한 종교영역의 변화와 포교전략 검토'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씨는 "불교계는 아직도 '정보사회'라는 환경적 변화에 대한 대응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변동은 인간의 본원적 한계로 여겨졌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해, 종교는 그간 전제했던 인간의 실존적 한계의 범위를 재설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불교의 현실을 지적했다. 박 씨는 "포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적 · 역사적 · 문화적 맥락 속에서 불교 역할 검토 △포교 컨텐츠에 대한 검토 △컨텐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매체의 확보 △포교영역의 개척과 담당인력 개발 △포교정책 검토 등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또 "개인주의화, 네트워크화, 유연화, 상대화라는 정보화의 4대 경향성은 종교의 사사화(些事化) 강화, 종교적 관계망의 확장, 종교적 권위의 재분배, 종교 다원주의의 강화라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씨는 종교의 사사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시민사회 내부에서 불교의 위상제고, 사찰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운동 참여, 지역문화 거점으로서 사찰의 활용, 사회운동과 관련한 불교 교리의 재해석과 정당화, 사찰의 역사 · 문화적 자원의 지역사회 공유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종교적 관계망 확장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에 적합한 신행유형을 개발하고, 포교주체들은 인터넷 사용 역량과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행력 · 리더쉽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종교적 권위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성직자의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신도들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야하며, 이는 '전문화' 전략으로 극복할 것을 제안한다. 또 상대적이고 다원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차별화' 전략과 타 종교, 이웃 사찰과의 '연대'도 적극적인 포교전략의 하나라고 박 씨는 주장했다.

인터넷에 적합한 신행유형 개발을
타종교 · 이웃 절과 연대 포교 바람직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백파 긍선(1767~1852)은 임제선을 중심으로 조선 선문의 정체성을 확립, 체질강화 작업을 착실히 계승한 인물이며, 초의 의순(1786~1866)은 고요한 혼자만의 깨침을 구하는, 체제로서의 선문에 무관심한 인물이었다."

불교학연구회 제19차 학술발표회에서 '조선후기의 임제선 연구: 선(禪)논쟁에 내포된 원형지향성'에서 박재현(경희대 강사) 씨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지금까지 '백파=임제선 지상주의자', '초의=합리주의자 · 객관주의자'라는 일반적인 평가와 상충되는 주장이다. 박 씨는 "고려불교에 비해 조선불교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 선 연구에서 편향된 시각이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백파의 <수선결사문(修禪結社文)>을 인용해 "백파는 결사를 통해 청정하고 투철한 계율 중심의 승가를 표방하면서 조사선의 이상을 구현하려 했다"며 "백파의 사상사적 정향과 수선결사의 성격을 통해 짐작해 볼 때, 백파의 선 이론이 임제선만을 취하고 여래선과 의리선을 버리자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좀 성급한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백파는 선불교의 정체성 확립 방안의 하나로 삼종선을 제기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백파, 조선禪門 정체성 확립, 청정계율 중심 승가 표방"

박재현 씨, 기존평가와 상충된 주장

백파의 삼종선은 조사선을 가장 수승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의리선이나 여래선과는 구분되지 않고, 그 둘 사이의 경계를 없애고 포섭한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 씨는 '백파가 임제선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종 5가를 분류했으며, 조사선만을 격외선으로 봐야한다'는 초의의 일관된 주장은 당시 대세로 자리잡은 임제선을 중심으로 조선 선문의 부흥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백파의 의중을 읽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사명당, 9월 문화 인물
16일 고성서 학술대회



문화관광부는 사명당(1544~1610)을 9월의 문화인물로 지정했다. 사명당은 임진왜란 때 의승도대장으로서 전투와 외교활동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조선 중기 고승이다. 저술로는 <사명당대사집>, <분충서난록> 등이 있다.

사명당기념사업회는 9월 16일 강원도 고성 문화의 집에서 사명당을 기리는 헌공다례, 판소리,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며, 28~29일에는 봉은사에서 보은 · 서산 · 사명 축제와 기념 학술강연회를 연다.



◇국보 제204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판본별 대장경 목록정리 등 3과제
불교관련 기초학문 지원대상 선정

교육부 · 학술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9월 4일 기초학문 육성지원계획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 297과제에 680억원(신규지원 155과제 280억원) 등 모두 737과제에 97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문사회분야에서 선정된 불교관련 과제는 국학고전 분야의 △불교 언어/판본별 대장경목록 정리 및 해제 작성 △국보 제204호 주본화엄경 편제 36에 기입된 각필구결의 해독 및 번역, 국내외지역 분야의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 불교 유적의 연구-4~8세기 인도불교미술과 문화교류양상의 탐색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고려대장경연구소의 '불교 언어/판본별 대장경목록 정리 및 해제 작성'은 지난해에 지원과제로 선정돼 연구가 진행중인 과제로, 5건이 선정됐던 지난해와 비교해 불교관련 연구는 크게 준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의 '불교 언어/판본별…'은 지금까지 한역대장경 14종과 티베트어 대장경 3종을 산스크리트원전과 대조하는 작업을 끝냈다. 올해 신청한 연구는 팔리성전협회에서 정리한 팔리어 대장경 전체, 새롭게 입수한 나르탕판, 쪼네판 티베트어 대장경 마이크로필름 내용에 대한 목록 작성 등의 작업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최종 연구결과를 국내 · 외 관련 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해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보 제204호 주본화엄경…'의 이승재(서울대) 교수는 "현재까지 가장 오래되고 정교한 변상도를 가진 국보 제204호 주본화엄경은 본문에도 각필이 기재돼 있음이 확인돼 화엄경 해석에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구법승과…'의 연구자 이주형(서울대) 교수는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혜초 외에도 일찍이 인도를 찾았던 고대 한국의 구법승이 존재한다"며 "한국불교미술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인도의 영향이 다양한 양상으로 반영돼 있다고 알려졌다"고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불 상(7)

신선세계의 아미타불

필자가 근무하는 경주대학교의 뒷산이 선도산(仙桃山)이다. 우리에겐 장수를 상징하는 선도복숭아로 알려진 선도라는 말은 신선사상과 관련된 명칭이다. 신선사상의 극락은 신선세계이고 그곳에는 서왕모(西王母)가 주재하고 있다. 고대에는 죽어서 이곳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널리 유포되었다. 그런데 이 산 위의 정상을 오르면 큰 바위 위에 불상이 조성되어 있다. 게다가 바위 뒷면에는 '성모구기(聖母舊基)'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불상 옆에는 새로 복원한 성모사가 있다. 성모는 신선세계의 서왕모와 같은 신이다. 어떻게 산 정상 위에 불상과 성모가 나란히 모셔져 있는 것일까?



◇서악동마애삼존불상 선도산은 신선세계와 서방극락세계가 공존한 신라의 이상세계이다.

이 의문은 <삼국유사> 감통편 '선도성모가 불교행사를 수희하다(仙桃聖母隨喜佛事)'에서 풀어볼 수 있다. 선도산의 성모는 원래 중국 황제의 딸 사소(娑蘇)이다. 그녀는 신선의 술법을 배워서 신라에 머물자, 아버지가 소리개 발에 서신을 매달아 다음과 같이 소식을 전했다. "소리개가 머무는 곳을 따라가 집을 삼아라." 사소는 아버지의 분부대로 소리개를 놓아 따라가니 선도산에 멈추어서, 그곳에서 살며 지선(地仙)이 되었다. 그리고 성모는 신라의 시조가 된 성자 둘을 낳았는데, 바로 박혁거세와 알영이다. 신라는 건국 때부터 신선사상을 믿었고, 그 신선세계가 선도산이라고 믿었다. 중국의 신선세계가 서왕모가 계신 천산(天山)이듯이, 신라의 신선세계는 성모가 계신 선도산인 것이다.

신라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선계인 선도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성모를 모신 정상에 마애삼존불상을 조성한 것이다. 그것도 좌우에 대세지보살과 관음보살을 거느린 아미타삼존상을 모셨으니 서방극락세계를 구현한 것이다. 신라가 불교의 나라가 되면서 선도산이 신선세계에서 서방극락세계로 바뀌었음을 선포한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선도산에 아미타불을 모시면서 성모를 배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성모는 불사를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진평왕 때 안흥사에 지혜라는 비구니가 불전을 새로 수리하려 했는데 힘이 모자랐다. 그때 꿈에 예쁜 구슬로 머리를 장식한 선도산 성모가 나타나 금 10근을 주어 불사를 돕겠다 했다. 꿈을 깬 뒤 성모의 자리 밑에서 금을 꺼내어 불상 3상을 장식하고 벽 위에는 53불과 육류성중 및 여러 천신과 오악의 신군을 그리고, 해마다 봄과 가을 두 계절의 10일에 남녀 신도를 많이 모아 모든 중생을 위해 점찰법회를 베풀었다. 신선세계를 믿던 신라인들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별 마찰도 없이 평화롭게 이양한 것이다. 성모가 불사를 돕고 불상과 더불어 신군도 모셨으니, 서로 밀월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닌가. 통일신라 때에도 성모는 줄곧 활동하였다. 불교의 나라가 되었어도 성모는 신라인들에게 여전히 사랑받는 신이었던 것이다.

세계는 끊임없는 종교전쟁으로 죄없는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른 종교들이 어깨를 나란히 했음을 역사가 실증하고 있다. 지금도 종교간의 갈등이 다소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미미한 편이다. 선도산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이전의 신앙을 탄압한 것이 아니라 포용하였는데, 이러한 너그러움이 우리민족의 고유한 심성인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경주 선도산에 신선 · 서방극락세계 공존
성모 모신 신라인들 마찰없이 불교 수용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증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구인 구직

49재, 천도재, 생전 예수재, 천수, 바라, 오공양, 작법 등 각종 행사에 임시로 염불 스님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주십시오
011-9209-5691
범음범패, 제의식, 염불, 바라춤, 나비춤 배우실 스님 연락주십시오

부전 스님 모십니다
▷ 창 원
011-735-8887

기도 스님 구함
062-269-653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북 칠곡군
016-521-0003
054-975-0003

비구스님(60세이상) 공양주보살님(55세 이상)모십니다
02-408-1368
02-408-9368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7766
02)353-3004

비구니사찰에 평생 사실 스님과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11-783-6970
041-544-6619

위장약을불자님들께 원가에드립니다
소화,복만,위장, 설사, 하복통, 구역질, 소화 계통 일절, 오래된위장병자신있음
1개월분 5만원 대도한의원
011-392-49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강원도 춘천
011-9958-8747

공양주 구함
▷ 신심있는 40~60세 보살님
조계종 사찰
054-636-0229

범 패 모 집
초급반 : 이침셋송,아침도량,상단, 중단예불
중급반 : 관음의식, 잣는소리,거불 유치
상급반 : 천수바라, 태징치는법, 복청게, 도량게
031-865-4893/011-661-9119
장소 : 동두천 대원사

자연 친화적인 토탈 장례 시스템
(주)자유로 청아공원
017-239-8488

전통 의식 행사에 스님 필요하신 곳
- 전통의식 각종 행사
- 천도재, 시식, 다비의식
- 기타 불공 등
02-939-3327
범음,범패, 제의식, 바라춤, 나비춤, 염불 배우실 학인모집中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명당
탐지기 관룡자
월 간 역 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기도도량에서 기도하고 같이 살아갈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1-554-7986
011-568-4417

함께 수행하실 노스님과 행자님,공양주 보살님을 찾습니다
▷ 65세이상
041-546-8346
011-9803-6301

주지소임을 원합니다
제방에서 40년간 수행했습니다
011-9211-529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전북 부안
www.hewonsa.or.kr
daum까페→혜원사
063-584-5710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보현사 · 속명 : 장성원
· 주 소 : 대전시 가양2동 154-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과 맞지않아 대승불교 조계종에서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9월 10일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부처님 등불" 수공예 양초
◆부처님 등불 특징 :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색 상 : 흰색, 자주, 청색, 노랑, 옥색 외 다수
※ 원하시는 모양과 규격에 맞추어 하실경우 별도 비용 추가 됩니다.
전국 불교용품점에서 구입가능
● 물에 뜨는 아로마 향기 양초 – 향기로운 마음을 전합니다.
문의전화 및 취급점 상담
기나공예양초 서울시 도봉구 쌍문 2동 81-119번지
사무실 02)996-8830 / 공장 02)997-2801

운세(2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실력테스트 해보세요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오산 선생의 사주학 비결 강좌

♠ 핵심강의내용:
–용신을 확실하게 잡을수있는 비결
–사주구조의 좋고나쁨 판별 비결
–육친분석 및 대.세운 해석 통변술
♠ 3개월 완성 수강료: W800,000원
(오산선생의 명리학 비결 교재대 포함)
♠ 매주 2회 수강/오전, 오후, 저녁반
♠ 수강신청:수시접수
오산팔자심리학 연구소
(2호선 대림역에서 도보 10분거리)
(02) 831-0055/011-208-0051
www.sazoopalza.com

성 수 철 학 원 (학 인 모 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산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시장 네거리 (명당약국 3층)
053)472-4784. 018-531-2237

- 난치병 치료 -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프다
디스크,관절염,당뇨,간질환, 두통,우울증,화병, 불면증,신(神)병,원인모를병 기타 불치병
사업실패, 가정불화등으로 마음의 병을 얻으신 분 상담합니다
천지사포교원 02)2051-5549

다 슬 기
지방간 · 간경화 · 눈의출혈 · 신장

<항아리에서 직접내린 다슬기>
● 특징
강원도 동강인근의 맑은 물에서 채취한 다슬기만 선별하였습니다.
전통적 항아리 제조법으로 다슬기 자체의 냄새를 최소화하여 다슬기 자체의 성분을 유지
※ 직접 방문 환영합니다.
033)747-4830 치악산 유정암

수인작법 사주팔자
강의와 교육으로만 성취되었던 수인작법이 수수리 수인작법 책으로 발간되어 나왔습니다
■ 자신과 인연된 모든 수치에 대해 여러분들은 이 책 한권으로 인해 눈밝은 이로 다시 성장될 것입니다
■ 우주의 조화를 품고 있는 천리도수
■ 천기로만 묻혀있던 신비의 수치세계를 열어보입니다
※공부를 원하거나 책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조계사 가까운 곳 [책방 여시아문]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금주: 이광래 (국민 093-21-0592-051)
031)633-1517. 016-213-5451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부처님의 자취가 그리워 떠나는...
佛敎聖地
삼보에 귀의 하옵고...
성지순례 전문 혜초여행사는 12년을
初心의 마음으로 佛者님과 함께합니다.

혜초여행사
HYECHO ADVENTURE TOURS,LTD.
대표 : 02)733-3900 / 직통 : 02)6263-4848
대구사무소 : 053)567-8848
www.hyecho.com
불자님들이 편안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친절!과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할인 항공권 ▣ 여권 제작 대행 ▣ 세계 각국 비자 수속 대행업무
※ 스님은 수수료없이 대행하여 드립니다.
◆ 서울 담당자 : 석채언 / 이진영 / 김진석 / 이아름
◆ 대구 담당자 : 신동우, 김선희

대한항공 태원(중국) 특별 전세기 운항
대 한 항 공 KOREAN AIR
中國 오대산 불교성지순례
NO팁!! NO옵션!!
오대산(중국4대불교성지 : 문수보살 도량) 운강석굴(중국 3대석굴, 세계문화유산)
대한항공이 불자님들의 자비로움에 보답하고져 중국 문수보살 도량으로 유명한 오대산으로 특별전세기를 3차례 운항합니다.
매년 불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지만 찾아가기에 멀고 힘들었던 중국 태원으로 특별 전세기를 이용하여 편이 모시고자 하오니 이기회를 부디 놓치지 마십시요!
문수보살이 모셔진 수상사와 현통사를 비롯하여 중국 3대 석굴의 중의 하나인 운강 석굴까지 많은 불자님들이 부처님을 가깝게 친견할수 있는 가슴에 오래 남을 순례여행이 될 것입니다.
3박4일 ₩ 449,000
● 출 발 일 : 10/1, 4, 7 단3회 한정 / 선착순 마감
● 성지순례 : 오대산(중국 4대 불교성지 : 문수보살 도량) 운강석굴(중국3대석굴, 세계문화유산)
4박5일 ₩ 599,000
● 출 발 일 : 9/27, 10/10 단 2회 한정/선착순 마감
● 일 정 : 인천-태원-오대산(수상사,탑원사,현통사,보살정, 대라정)-현공사-대동-(구룡벽,운강석굴)-태원-북경-인천
● 포함사항 : 공항이용료, 중국 국제선 공항 이용료, 여행자보험, 출국납부금, 전쟁보험료 포함
● 특기사항 : 개인비자 (여권, 사진1매,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명함), 단체비자 (여권 복사본) 가 필요합니다. (비자 별도)


인도 / 네팔 佛敎聖地巡禮
NO팁!! NO옵션!!
싱가폴 항공 전세기 취항!!! (싱가폴 ↔ 부다가야)
佛敎 聖地巡禮만을 위한 싱가폴항공 특별기가 최고의 佛跡地인 부다가야로 모십니다.
불교성지 순례여행 - 189만원 단2회
● 출발일 : 11월 21일
● 순례지 : 싱가폴-가야-나란다(불교대학)-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열반당 및 다비터)-룸비니동산-스라바스티(기원정사)-고락푸르-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싱가폴
● 출발일 : 12월 8일
● 순례지 : 싱가폴-부다가야-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바라나시-델리
불교성지 배낭여행 - 108만원
※ 일정은 불교성지 순례여행과 동일합니다.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료, 인도 성지순례에 따른 교통, 숙박, 가이드
● 불포함사항 : 비자, 관광진흥기금, 식사, 입장료, 싱가폴 지역 관광
*** 승가대학, 신행단체, 학생 단체 대환영!!! 미리 계획하시면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성지 순례가 될 것입니다.

고품격 인도/네팔 성지순례
15명 이상일 경우 1분은 무료로 모십니다(15 + 1 free)
▣ 불교성지순례 - 8박 9일(아시아나항공) 215만원
델리 직항편을 이용하여 편안하고 빠르게 다녀오실수 있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 일정 : 인천-델리-스라바스티(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나란다불교대학-라지기르(영취산,죽림정사)-보드가야-바라나시(녹야원)-아그라-델리-인천
● 출발일 : 1/8, 2/5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성지지역 및 각 도시 최고의 호텔과 한식 전문 요리사가 함께 합니다
▣ 불교성지순례 - 10박 11일(상가폴 항공) 225만원
불교성지순례는 물론 인도 문화유적지의 보고 델리/아그라의 여유있는 탐방과 싱가폴 투어까지 이어지는 엄선된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 일정 : 인천-싱가폴-델리-스라바스티(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나란다불교대학-라지기르(영취산,죽림정사)-보드가야-바라나시(녹야원)-아그라-델리-싱가폴투어-인천
● 출발일 : 12/25(성도재일), 1/26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 불교성지순례 - 12박 13일(상가폴 항공) 259만원
8대 성지와 불교미술의 보고 아잔타,엘로라 그리고 산치 대탑의 화려함까지 느껴보실수 있는 불교성지순례의 모든것이 담겨 있습니다
● 일정 : 인천-룸바이-엘로라/아잔타석굴-산치대탑-아그라-상카시아-스라바스티(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라지기르(영취산,죽림정사)-보드가야-바라나시(녹야원)-델리-인천
● 출발일 : 12/8, 1/2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후원 SINGAPORE AIRLINES

스리랑카 6일 119만원
불교의 보고로 불리우는 "아름다운섬" 스리랑카 성지순례
● 일 정 : 콜롬보-네곰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 플론나루와-담불라-캔디-켈라니아- 콜롬보
● 출발일 : 10/1,10/17,11/7,11/28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미얀마 6일 159만원
황금불탑과 살아있는 불교의 나라 미얀마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싱가폴까지 함께하는 최적의 불교성지 순례!!! - 대만족
● 일 정 : 인천-싱가폴-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싱가폴-인천
● 출발일 : 10/21,11/4,11/18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티벳 세미배낭 여행 시리즈
3-4명이 팀을 이루어 쾌활한 티벳 고원을 질차로 달립니다.
● 출발일 : 매주 화, 목, 토, 일 (3-4인 수시 출발 가능)
● 상 품 : ❶ 티벳 8일 - 155만원 ❷ 티벳 11일 - 179만원 ❸ 티벳 / 네팔 8일 - 169만원 ❹ 티벳 / 네팔 11일 - 179만원 ❺ 동부티벳 12일 - 183만원 ❻ 티벳 / 에베레스트 BC / 네팔 16일-197만원
● 포함 사항 : 국제선,국내선,티벳여행허가서,숙박, 전용차량여행자보험,전문인솔자,현지가이드
● 불포함사항 : 관광진흥기금,중국비자비,현지공항세,식사비,입장료
대만 5일 95만원 9/27, 10/11, 10/26
중국 구화산/황산 5일 9/22, 10/6 89만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 법당 : 13평 / 요사 : 40평 / 부지 : 513평 / 가액 : 1억8천
- 위치 : 경북포항 / 법당 : 17평 / 요사 : 90평 / 부지 : 1,100평 / 가액 : 6억5천
- 위치 : 전남 순천 / 법당 : 20평 / 요사 : 45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3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천도재, 점안식,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대로변
- 사정상 급매
-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 권리금 1천만원

053)566-8203
011)9850-8208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산 국립공원문화재보호구역내 소재 웅장한 미륵바위와 빼어난 산세,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매
- 평수 : 총면적 3천평(허가필,등기필), 종교용지 1600평, 임야 1400평, 법당 30여평, 요사채 40평, 기타 10여평
- 교구본사,사찰,연수원,수련원,기도터,기타종교시설.
- 주차장완비, 시내와 5분거리 ● 사리 33과
- 가액 : 4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1)613-1775 / 016)838-9394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 홍제역 부근
- 평수 : 40평
- 법당. 방 2개, 주방 1개
- 전세 6천 2백만원(시설비 포함)
- 즉시 법회 가능

02)3216-1118
016)9590-909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가평 / 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6평 / 가액 : 1억8천
- 위치 : 서울 / 대지 : 25평 / 법당 : 20평 / 요사 : 5평 / 가액 : 1억매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절터 안내

- 위치 : 안동시청서 5분거리 2차선 도로접. 버스정류소 앞
- 평수 : 임야 약 3천평
- 시가3억, 급해서 2억2천만원.
- 현재토목공사 완료

011)9677-2411

사찰 안내

- 노원구 수락산 부근
- 당고개역 3분거리
- 부지 : 약 340평
- 건물 : 40평
- 법당 따로
- 가액 : 3억 2천만원

016)274-3338

토굴 별장 펜션 안내

- 위치 : 남 덕유산 자락
- 부지 : 1,631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가액 : 5억3천만원(대출 가능)
- 특징 : 맑은 개울과 집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 주인 직접 살고 관리해 옴

016)367-2112

포교원 안내

- 일산신도시,주엽전철역 150m
- 25평. 방1. 3층건물에3층
- 시설 A급. 삼존불,후불,신중,산신탱화
- 바닥은 전기온돌판넬
- 철학관으로 적합
- 2천, 7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31)907-0603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진구 5거리 코너
- 평수 : 75평. 3층
- 보증금 3천만원, 월 170만원 보증금 +시설비 : 5천만원
- ※ 삼존불+약사여래+지장보살. 10년이상 포교지
- 법당 요사채 분리형. 도시가스 시설완비

02)444-3918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강북지역 / 대지 : 160평 / 법당 : 50평 / 요사 : 200평 / 양도가 : 10억
- 위치 : 서울 근교 / 대지 : 70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200평(3동) / 양도가 : 12억

※ 불교어린이집 운영중 유서깊은 도심 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 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암자 안내

- 태백산 아래 제일 시원한 암자
- 산신각,약사전,용왕각,지장전
- 별도로 되어 있음
- 대지 83평
- 가액 : 9천만원

033)553-6860
011)368-7653
011)9790-5515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시 한라대 옆
- 평수 : 210평
- 법당2개, 석탑3개, 산신각
- 가액 : 2억 3천만원 (시설비 포함)

011)471-1996
033)766-005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시 최고 요지
- 4층 건물 중 3층. 80평
- 법당 30평, 방4, 공양방1, 목욕탕, 실내화장실
- 보증금포함 5천만원, 월 80만원
- 스님 직접 통화함
- ※ 스님사정으로 인계함

011)9642-1202
032)546-4121

사찰부지 안내

- 서울 근교(강남 45분거리)
- 부지 : 1500평 (1000평 종교부지 허가)
- 산세수려, 수목울창
- 양쪽에 계곡을 끼고 있음
- 교통편리, 도로 인접
- 서울 근교중 최고의 명당터
- 가액 : 5억5천

017)438-3377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김천, 상주에서 20분 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천3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462-5275

사찰(토굴)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 부지 : 21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150평 / 가액 : 8억2천
- 위치 : 대구광역시 / 부지 : 20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4억3천

※ 사찰(토굴)양도 · 양수 상담 환영

서방불사 011)9851-5952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정릉
- 평수 : 34평
- 법당(大)1개, 부엌, 생활할 수 있는 방, 창고방
- 전세 4천만원
- 시설비 : 2천5백만원(시설일체)

02)909-2534
011)9956-287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 평수 : 40평
- 보증금 8백만원
- 시설비 : 1700만원(절충 가능)

053)636-9306
011)815-9986

사찰 안내

- 위치 : 중구신당동 대로변 역 1분
- 중앙시장 입구 요지
- 3층중 3층. 2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700만원
- ※ 포교에 따른 비법 전수

02)2235-2219
011)9150-2284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경기도 승마공원 입구
- 부지 : 1,293평
- 건물 : 53평, 25평, 17평 3동
- 서울에서 50분거리
- 특징 : 산세수려, 전망좋음
- 가액 : 3억 8천만원

031)533-2420

토굴 안내

- 경북 봉화군 소천면 근교
- 건평 : 지상 25평
- 산세수려함
- 최고의 약수물 나옴
- 가액 : 3천5백만원

054)672-6872

사찰(토굴) 안내

- 위치 : 도봉산 / 부지 : 2000평 사용 / 법당 : 20평(목조 단청) / 요사 : 60평 / 가액 : 6억원 ※ 서울의 명산
- 위치 : 공주 / 부지 : 1만8천평 / 법당 : 20평(임) / 요사 : 20평 / 가액 : 2억원 ※진입로 노송 울창
- 위치 : 충남금산 / 부지 : 25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 가액 : 7억원

◈전국소재 사찰 · 암자 ·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참 인연됩시다 - 정인불사
서 울 ☎ 02)722-8968
대 구 ☎ 053)782-5504
휴대폰 011-707-8204
-(조계사앞 도장전각전문점 02)735-0750 정인사)-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 선산읍 부근
-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 부지 : 350평(국유지 100평) 총합계 450평
- 가액 : 8천만원

011)540-3313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최고의 위치)
- 3층 건물중 3층 전체 (65평)
- 법당, 종무소, 화장실, 방, 상담실, 사우나실(최고의 시설)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00만원
- 시설비 : 3천만원(시설완벽)

016)9744-1317

사찰 안내

- 위치 : 포항
- 월포, 칠포 해수욕장 중간
- 대지 80평. 1층 22평, 2층 32평
- 별장형 법당, 조립식 15평
- 샤워장 4, 화장실 4
- 심야 전기, 주차 무한대
- 특징 : 스님노후나 휴양처로 최고. 조용한 바닷가
- 가액 : 2억원

011)9372-5977

포교당 안내

- 위치 : 의정부시내 전철역앞
- 평수 : 65평. 최상층
- 법당,주방, 사무실, 방,화장실
- 전철역 앞. 옥상 사용 가능
- 매월 정기법회 즉시 사용
- 전세2천만원,월50만원(전세가능)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31)872-8227

포교당 안내

- 부산 금정구 장전2동 588-19(식물원 앞)
- 평수 : 40평
- 법당, 방2, 주방, 욕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2700만원

051)516-3374/011)598-8673

사찰 안내

- 위 치 : 양산 / 대 지 : 95평 / 법 당 : 15평 / 요사채 : 25평 / 가 액 : 9천 / ※별장형 토굴
- 위 치 : 포항부근 / 부 지 : 약 2,0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80평 / 가 액 : 절충 / ※ 세계 유명불상 사찰
- 위 치 : 부산 / 부 지 : 74평 / 법 당 : 20평 / 요사채 : 20평 / 가 액 : 2억 / ※ 도깨비터의 도심사사찰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도봉구(방학역 5분)
- 30평. 2층 시설완벽
- 삼존, 관음, 지장, 약사 등
- 보증금 1천5백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1)298-203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인근(섬)
- 대지 : 100평
- 법당 : 30평(한옥기와)
- 요사채 : 17평
- 가액 : 1억8천만원
- ※ 불심 깊은 곳(운영 잘됨)

011)9677-2724

사찰(급)안내

- 60평
- 시내 한복판. 시장 입구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 목동사거리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2)2645-2445
011)9947-4458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부항면
- 대지 : 300평. 건물 40평
- 목조 인법당. 마을 종점
- 가액 : 9천만원

054)437-1857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부지 : 사용평수 2백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방3개, 주방1개, 5층석탑
- 바위불상, 다수 민속품으로 경내조성
- 환산의 지기가 집중된 명당터로 270여호마을소재. 옥천 톨게이트 및 대전 국도접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043)733-8186 / 011)9405-8186

사찰 · 수련원 안내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서울에서 1시간 10분 소요)
- 전 3351평→통나무 청기와 주택 25평 1채
- 가용면적 2천평 추가(총 5500평)
- 배산임수(국유림과 밤나무숲 그리고 개울)
- 4차선 계곡물 따라 5km (아스팔트 포장도로)
- 가액 : 4억 5천만원(급매)

031)771-7110/011)531-5562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시설 일체
- 가액 : 3억 5천만원

011)226-2880

도심사찰 안내

- 위치 : 일산신도시
- 평수 : 114평(7층 중 5층)
- 법당1, 사무실1, 공양간1, 방 4, 화장실 2, 욕실1
- 시설 , 위치 A급
- 가액 : 2억 7천만원(융자 별도)
- ※본인이 분양을 받아 포교원을 하였으나 개인의 사정에 의해 양도하고자 함

011)749-455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동
- 법당 : 4층 건물 3층(30평)
- 시설 : 주불 석가모니불,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법회가능. 집기일절
-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1천5백만원

016)9393-5050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00평
- 임야 : 2000평
- 가액 : 9억원
- ※ 소개업자 일체 사절

011)9338-2993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완산동 명상수련원 적지
- 시내 10분, 금호강앞, 농사가능
- 대지 : 1400평
- 가격: 보신후 절충, 전세도가능
- 법당 : 30평, 방3칸, 공양간
- 가액 : 1억5천만원(절충 가능)

011)430-0655
011)718-3524

포교당 안내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 4층건물중 3층 30평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 방1, 주방,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지금 법회중,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 집기포함 2천5백만원

011)9852-8386 / 051)782-9386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 평수 : 총 460평중 대지 90평 창고부지 30평
- 건물 : 법당 및 요사채(구건물) 산신각 1채
- 가액 : 2억 3천만원(조정가능)

031)773-2289
011)477-774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읍 7분거리
- 대지 150평, 요사채 25평
- 법당(목조토기와) 11평
- 교통 편리. 도로 접
- 가액 ; 1억 5천만원

016)652-754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150평, 법당 18평
- 삼존불 봉안
- 산신단, 용왕단 각각
- 요사채 2동
- 입주 즉시 법회 가능
- 사정상 급매 • 가액 : 5천만원

055)533-0354
011)845-618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명륜동 전철역 롯데백화점 5분거리
- 평수 50평, 5층건물에 4층 현대식 건물. 주차장 완비. A급시설.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절충 가능)

051)556-3312
016)549-8357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943. 준 유원지
- 대지 200평, 전 500평. 산장(돌과 나무집 30평)방3개, 거실,다락,모두 완비
- 가액 : 1억 5천만원

054)262-6673

사찰양도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 장호원 소재 5분거리
- 대지 : 약 530평
- 건평 : 113평, 법당 (27평)
- 법전 요사(거실1, 방3), 식당, 주방, 요사 고시원(방 18개)운영
- 교통 : 전망있는 지정시가지의 산세좋은곳
- 가액 : 답사후 결정

031)643-9051
019)375-9051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시장내
- 평수 : 30평. 2층
- 법당, 방2, 주방, 종무소, 집기일체
- 조계종 스님이 직접 운영함
- 불사관계로 인계를 원함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02)938-3567
011)9889-3544

태백산 명당자리

- 터 정리되어 있음
- 전 175평
- 대불지 300평
- 차 진입로 있음
- 차도에서 300m 거리
- 가액 : 3천만원

033)553-6860
011)368-7653
011)9790-5515

양도및교환(급)안내

- 불교용품 백화점과 교환하실 분
- 암자, 사찰, 대지, 기도터
- 내부방4개-주방, 욕실
- 법당 조성 및 살림 가능
- 답사후 가격 절충

02)478-4334
011)9410-0031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평수 : 240평(대지, 건물)
- 시내사찰(포교당 및 총무원 본산지 가능)명당터
- 가액 : 4억 5천만원

054)332-3032
016)898-4542

토굴 안내

- 위치 : 태백산 자락
- 부지 3,600중 대지 300평
- 건물 : 방2, 부엌1
- 조경 및 토목공사 완료
- 700고지 산세 수려함
- 가액 : 7천만원

011)9759-5047
031)318-5090

사찰(급)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 부지 : 260평
- 대웅전 24평, 지장전 5평, 산신각 2평, 용왕전 0.5평
- 주지방2, 종무실1, 공양실 大 1, 小 1, 기도방 1
- 가액 : 4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1)9124-8489

가족묘지터 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 면적 : 3,300평(국도변 인접)
- 지목 : 임야(산소용지로 최적)
- 특징 : 팔당호반의 최고의 명당, 정남향
- 가액 : 평당 30만원(가격 협의 가능)

016)235-7373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200평이상
- 법당 30여평, 요사채 20평
- 차 진입가능. 포교지 적합함
- 가액 : 4억7천만원
- 주인직접. 소개인 사절

011)883-7856

목어

달



김 징 자
본지 논설위원

'월인천강지곡'만한 멋진 시 제목이 있을까.

드넓은 바다, 호수, 강, 우물, 아니 조그만 물웅덩이에도 달은 골고루 그 모습을 하나씩 던지고 있다는 것이니, 우선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부터 장엄하고 아름답다.

차고 이지러짐을 반복하며 변화무상한 세상사를 사람들에게 은근히 가르치고, 천강에 그 모습을 고루 비춤으로써 차별 없는 세상을 보여주려는 달은 그 상징하는바 또한 적지 않다. 계절의 고비마다 만월을 큰 명절로 삼았던 조상님들의 정서가 이해될 직하지 않는가. 세종대왕과 그 아들 세조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에 '월인(月印)…'이란 제목을 부친 것에서도 달에 대한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연중 가장 투명하게 밝아 보이는 보름달은 추석 달이어서 우리는 추석을 가장 큰 명절로 친다.

하지만 그 추석 달을 받아들이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예와 같지 않다 한다. 아직도 고향을 찾고 일가친척과 모여 추석 달을 즐기는 이들이 없지 않으나, 이런 만남의 추석이 아닌 단절의 추석으로 습속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물과 떡값 등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휴양지로 떠나거나 추석 손님을 아예 사절한다는 웃지 못 할 이유도 있고, 모처럼 쉬는 연휴에 힘겨운 손님접대를 피하고 싶다는 이유도 있다.

하긴 '이래야만 한다'는 영원히 지켜져야 할 습속이란 것이 있을 리 없다. 추석명절 자체가 농경시대의 유물이므로 따스했던 그 시절, 만남의 인정을 마냥 그리워 할 일도 아니다.

그렇다 해도 달은 일천 강에 그림자 드리우고 우리들 마음에도 여전히 그 빛을 던지고 있음이 신비하지 않은가.

만남은 설레임으로부터 시작되어 진한 아쉬움으로 남아야 제 맛이다. 설레임, 두근거림이 없는 만남이 어디 제대로 된 만남이겠는가. 어릴 적 손꼽아 기다리던, 가슴 깊은 설레임으로 맞이했던 것이 추석이었다. '더도 덜도 없이 한가위 같기만 하라'던 말은 그러한 추석을 잘 표현하고 있다.

내 또래의 육촌형제는 20여명이 있었는데, 추석날 아침 제사가 시작되면 모두들 머리 속엔 제사상 위에 올라온 배를 차지할 생각뿐이었다. 5번 절을 하고 음복을 하는지, 아니면 7번 절을 하고 나서 음복을 하는지에 대하여 큰집으로 가는 동안 서로 다른 학설을 주장하곤 했다. 그리고 큰할아버지께서 '이제 음복들 하세요'하고 말씀하시면 모두 단거리 주자가 되어 배를 집기 위해 달려 나가곤 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우리들은 두 신세로 확연히 달라지곤 했다. '배를 들고 의기양양해서 걷는 사람' 그리고 '형아 한입만을 외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배를 차지하기 위해 뛰어 나가기가 어색할 나이쯤 되면 철이 들었고, 그렇게 철이 들어도 추석을 기다리는 마음엔 여전히 설레임이 있어 좋았다.

'벌초대행 1기당 ○만원' '제사음식 대행 1상당 ○만원'이란 문구의 플래카드를 이젠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조상의 산소를 찾아 벌초하는 마음, 음식을 장만하며 조상님의 은덕에 감사하는 마음, 온 가족이 고향에 모여 훈훈한 정을 나누는 모습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벌초를 대행하고, 차례상을 맞추어 오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콘도나 해외에서 차례를 지내는가 하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한다.

일부에선 추석이 연휴의 개념으로 변해가고 있다. 올해 추석연휴 시작인 13일과 14일 외국으로 나가는 비행기표는 이미 동이 났다고 한다. 유럽 일본 중국 노선은 최고 113%에 달했다. 이처럼 연휴를 즐기기 위해 차례를 추석 전이나 다음주 일요일에 지내기도 하는데, 그것을 '샌드위치 차례'라고 한단다. 이런 추세라면 아마도 '제사 대행업체' '성묘 대행업체'도 수년 내에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같은 시대에 누가 그들을 탓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이자, 변화의 흐름에 순응하는 자들이고, 합리적으로 앞서나가는 자들인데. 그러나 그들에겐 잃어버린 것이 있다.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 본능 중에 간직하고 있는 회귀본능 말이다. '삶의 놀이'는 인연이 모여 있는 모습으로 잠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흙이다. 조상은 사라진 자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삶의 놀이'를 하고 간 자들이며, 또 우리가 다시 가야할 자리이다. '고향과 조상을 잃은 자'들이야 말로 어쩌면 돌아갈 곳을 잃은 불쌍한 자들이다.

'기다림을 즐길 수 있는 자'들이야 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귀경길이 길면 어떠랴! 그 긴 시간을 설레임으로 충만시킬 수 있다면. 그 옛날 마을운동회가 끝나고 밝은 달밤에 마을 뒷산에서 가슴 콩콩거리며 만났던 갑돌이 갑순이도 생각하면서, 참외서리 닭서리하다 붙잡혀 혼이 났던 추억도 되새기면서, 밝은 달 쳐다보고 가다보면 고향에 다다르지 않겠는가.

차창 속에 비친 달이 아름다우면, 문득 '나의 진짜 고향은 어디이지?'하고 돌이켜본다면 그건 또 불자(佛子)다운 낭만이 아니겠는가.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참 마음의 고향을 설레임으로 그리워하고 있다면, 남들이야 달나라에 가서 제사를 지낸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김방룡
보조사상 연구원 선임연구원

추석단상

열린마당 통합신도회 정체성 확립위한 2차 실무자 워크숍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체계 필요



◇8월 29~30일 공주 동학사에서 열린 '통합 신도회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2차 실무자 워크숍' 장면.

통합 신도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조직 체계는 어떤 방향에 따라 어떤 구조를 갖춰야 하고 중앙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통합신도회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2차 실무자 워크숍이 8월 29~30일 공주 동학사에서 열렸다. 김진관 중앙신도회 부회장, 손안식 전국신도회 부회장과 소속 단체 실무자, 정책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에서는 통합신도회의 조직 체계 및 발전 전망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정리=권형진 기자〉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임동현/중앙신도회 기획실장)

생활윤리 제정해 실천운동 전개

중앙신도회는 아직도 이념적 좌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 형태에 대해서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접근해온 방식 탓이다. 제도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할 것인가를 세우고 그에 걸맞은 제도화가 고민되어야 한다.

지난 98년, 99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불교의, 조계종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본질은 불교의, 조계종의 정체성 위기라는 진단도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 정체성 위기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다른 말로 한국불교가, 조계종이 불교답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통합신도회의 지향점은 바로 여기에 둬야 한다. 한국불교의 불교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것은 곧 불자들이 불자다워지는 것을 말한다. 불자들이 불자다워진다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불자들 일상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자로서 기본인 계에 입각해 출발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계의 정신에 기반한 불자생활 윤리를 제정하고 실천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신도회 조직체계 및 발전방향

(이상근/중앙신도회 총무부장)

교육, 종책연구 등 '센터' 기능 갖춰야

신도회는 신도 대중을 교육 · 조직할 뿐만 아니라 그 조직 상호간의 관계를 체계화하고 신도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신도 조직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고 통합 신도회 역시 21세기 지식문화 · 정보사회에 맞게 조직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먼저 조직 체계의 방향과 관련해 그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다. 당연히 생활 근거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사찰은 신앙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고 실제 신도들의 활동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봉화 청량사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참여 구조의 확대 역시 필요한데, 교구신도회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말사 신도회가 중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식문화 · 정보사회에 맞게 기존 신도 조직뿐 아니라 NGO, 온라인 모임, 직장 · 직능 등을 포괄하는 중층적 · 다원적 · 포괄적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

▧신도 종책의 핵심과 개선방향

(박용규/포교원 신도과장)

기능주의적 접근 재고

현재 종단에서는 △신도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한 신행체계화 △신도 교육을 기본으로 한 신도 조직화 △조직화된 신도역량의 대 사회적 역할 수행 등 조직체계화의 문제를 신도 종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행 신도법에 나타난 신도 종책의 핵심과 개선 방향을 설명하기에 앞서 출가자와 재가신도의 개념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흔히 사부대중 공동체라고 했을 때 '4분의 몇'이라고 분리해서 다분히 기능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출 · 재가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가주의적 사고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도 종책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과연 현재의 신도회 조직체계의 편제가 오늘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신도 조직의 형태가 신도 조직화와 활동을 진작시키고 있는가,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보다 다양한 조직을 포함하는 형태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스님과 목사의 죽음 초월한우정

간암으로 투병하다 8월 6일 입적한 광주 증심사 주지 일철 스님과 강진남녘 교회 임의진 목사의 종교와 나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한 진한 우정을 담은 음반 '산'이 나왔다. 일철 스님이 열었던 '무등산 풍경소리' 음악회에서 임 목사가 사회를 맡는 등 우정을 과시하던 두 종교인. 임 목사는 도반을 살려야한다는 일념으로 음반을 기획했다. 음반 발매 며칠 전 스님이 먼 길을 떠나 '산'은 추모음반이 됐지만, 임 목사가 일철스님을 위해 직접 부른 노래만은 남아있다.

장군죽비

부산시 관제단체 조직 개입 의혹

경부고속철도와 관련, 부산시가 관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관제단체 구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부산 지역 시민 · 사회단체들은 9월 2일 기자회견에서 "'고속철도 조기 개통을 위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부산시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관변인사들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라고 폭로했다. 단체들은 3일 열린 △안상영 부산시장의 사과 △관변단체 해체 등을 요구했다.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벤처히트상품 선정
★ 스포츠 굿데이 2003 굿브랜드 대상 선정

※주의 : 저희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지자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선정기념. 선착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54-3733

제3기 이혼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이혼의 원인은 작은 견해차부터 여러 가지 심각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지만, 평등한 부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이뤄지는 그릇된 대화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긍정적 언어표현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부부간에 인격체로서의 상호존중을 통해 부부정체성을 확인하여 '이혼'이라는 심각한 폐해를 예방을 하고, 또한 가족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에'이혼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원' 교육을 통해 한 개인으로서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더불어 가정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전문상담원이 되어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상담원의 교육을 하고저 합니다.

◆ 일 시: 2003년 9월17일(수) ~ 11월 3일 (90시간)
◆ 장 소: 연꽃 교육장 (인사동 사거리) ◆ 인 원: 30명(선착순)
◆ 문 의: 02-738-5586,5568 / 상담소: 02)735-0406~7
◆ 수강료: 12만원(우리은행 : 098-088769-01-501/한국여성불교연합회)
◆ 주 최: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1.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9월 17일	1. 성 • 가정폭력법 해설	9월 18일	3. 가족구도와 가치변화
	2. 가부장 제도와 여성인권		4. 한국 가족의 현주소
2. 아내 학대 발생과 원인 분석			
9월 22일	5. 가정폭력 배경과 원인	9월 27일	8. 부정적 감정 다루기
	6. 가정폭력	9월 30일	9. 부부의 갈등 및 외도, 이혼가정상담
9월 27일	7. 가정폭력 상담의 전반적 이해	10월 2일	10. 여성의식 변화로 이뤄진 가정
3.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정 위기			
10월 2일	11. 여성인권과 여성운동	10월 4일	14. 이혼의 실태와 제반문제
10월 10일	12. 현대사회의 변화와가정문제		15.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10월 11일	13. 왜! 이혼가정이 늘어나는가!	10월 11일	16. 이혼가정의 자녀생활과 실태
4. 건강한 가족제도 및 치료상담			
10월 18일	19. 건강한 가족제도	10월 13일	17. 정신적 수양을 위한 음악치료
10월 20일	20. 성폭력 상담의 이론과실제		18. 전화상담의 기법과 운영사례
10월 21일	21. 가족문제 상담, 성폭력 상담사례	10월 28일	22. 부부대화법 및 가족치료
5. 가족문제 상담 및 역할연습			
10월 27일	23. 경전에 나타난 상담	11월 1일	26. 가정폭력에 대한 핵심적 기법
10월 31일	24. 상담자의 자질과 역할		27. 가족치료의 통합적 접근
	25. 상담사례를 통한 역할연습	11월 3일	28. 가정폭력 비디오 및 수료식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2. 본 행복한가정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 • 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사회안정을 위한 종교인 심포지엄

부산종교인평화회의(상임대표 정각)는 8월 28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사회안정을 위한 정신문화와 종교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은 정각스님,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방영식 기독교 공동대표 등 불교,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 종교인 3백여명 참여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정각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종교인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종교인들이 스스로의 책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안정을 위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이라는 김형석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용태 전 신라대 총장의 사회로 이경희 가야대학교 총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종교인의 역할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천미희 기자

범어사

10월 3~5일 '불교문화대제' 개최

"부처님 나라로 초대합니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성오)가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의 구심체로 거듭난다.

범어사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불자들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불교문화축제인 '범어사 불교문화대제'를 열고 불교문화와 불교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선보인다. 범어사가 일반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초가을 산사의 정취에 축제의 멋과 향을 곁들여 불교 알리기에 나선 것이다.

범어사 문화대제는 부산시와 금정구청의 후원으로 일반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첫 문화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특히 범어사 불교문화대제는 6일부터 열리는 금정예술제에 앞서 열려, 금정구민들만의 축제였던 금정예술제의 축제 분위기를 부산시 전체로 확산시키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처님 나라로 초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범어사 불교문화대제의 가장 큰 특징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불교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초가을의 산사정취와 함께
영산재 · 다도 등 다양한 행사
30명엔 템플스테이 기회도

있는 다양한 전시, 공연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3일 개막식에서 선보이게 될 선무도 시범을 비롯한 영산재 공연, 불교합창단, 무용단, 가야금병창 등을 비롯 전통등 만들기, 달마조사상 그리기, 탁본 체험, 페이스 페인팅, 다도시연,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비디오 상영 등도 펼쳐진다. 깨달음의 세계를 사진작업으로 시각화하고 있는 관조스님 초대사진전과 금정산 사진 전시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이다.

특히 3일 동안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는 30명이라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어사는 범어사 불교문화대제 기간동안 진행된 체험 프로그램 중 관조스님 초청 사진전, 탁본 체험과 대중들의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상설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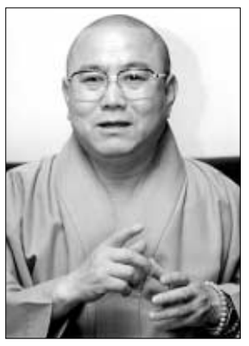
범어사 포교국장 지종스님은 "이번 금정산 불교문화대제는 문화를 통한 포교와 지역 문화 발전의 중심이 되기 위한 범어사의 변화를 이끄는 물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U대회 북한선수단 응원을 마치고…

특/별 기/고

법타 스님
은해사 주지
통일U대회 시민연대 상임대표



2003년 대구하계U대회가 막을 내렸다. U대회 사상 최다 174개국 1만 여명의 임원 · 선수단 · 보도진들이 모인 세계 젊은이들의 우정과 화합의 제전이었다.

필자는 평불협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운동 단체 90여개 2만여 명으로 '아리랑 응원단'을 조직해 주로 조선 선수들의 출전장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했다.

8월 21일과 23일에는 '조선: 덴마크', '조선: 네덜란드' 배구경기에 참석해 '조선 여대생 응원단'과 함께 응원했다.

8월 24일 대구시민운동장에서는 조선여자축구단과 프랑스의 경기가 시작되었다. 웬일인가? 3분여 만에 조선에서 먼저 한 골을 넣었다. 와와! 나도 모르게 일어서 박수를 쳤다. 감탄사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골! 또 한골! 3 : 0. 아니 전반전이 9:0으로 끝났다. 후반전에는 조선선수들의 가벼운 연습시간이었다. "이겼다. 이겼다. 우리선수 잘 한다" 하늘이 진동한다.

관제 장벽을 넘어 온 대형 한반도기를 조선응원단이 받아 펄럭일 때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볼 위로 흘렀다.

그러나 8월 26일 조선과 미국의 배구경기에서는 남과 북이 함께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전날 있었던 반북 단체들과 북한 기자단과의 충돌사건 때문이다.

미국의 일방적 우위로 끝난 경기 후, 패배한 조선 선수들에게 열렬한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우리는 이 자리에 반미나 미제타도 구호를 외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요. 순수하게 '세계 대학생 젊은이 축제'를 함께 빛내기 위함이요. 동포로서 이 자리에서 응원을 했다. 보라! 통일의 열기를 '우리는 하나'이고, 꼭 '하나됨'을 앞당겨야 하는 공감대를 피부로 느끼지 않나?" 라고 대표연설을 했다.

이번 U대회는 경주의 세계문화 엑스포와 함께 열려 정말 훌륭하고 멋진 축제가 되었다. 남북이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 꿈(Dream for Unity)만이 아니라 모든 벽을 넘어 하나로, 꿈을 펼쳐 미래로 가고 있음을 현장에서 대구 U대회가 보여주었다.

"찬시로 고대신라사회의 패러다임 정리
불교사 · 역사 · 설화 아우른 유사적 서술"

인각사, 경북대서 삼국유사 학술대회

해방 후 처음으로 삼국유사 영인본을 발간하는 등 민족의 스승 일연성사의 현창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는 군위 인각사(주지 상인스님)가 삼국유사 학술대회를 지난 3일 경북대에서 개최했다.

일연삼국유사 문화제의 일환으로 '삼국유사의 체재와 성격'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찬시'를 삼국유사의 체재와 연관지은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 고운기 교수는 '삼국유사의 찬시와 그 체재상 역할에 대하여' 라는 주제발표에서 "찬시가 이야기와 입체적으로 한데 어우러져 서사와 서정의 절묘한 조합이라는 고리역할"이라며 "삼국유사만의 독특한 기술체재는 향가로 구현된 심미적 세계를 찬시를 통해 이어받아 신라로 대표되는 고대사회의 패러다임을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 김상현교수는 '삼국유사의 체재와 편목 구성' 주제발표에서 "9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국유사의 체재상 특징은 중국 승전류를 참고하면서도 모방하지 않고, 일반 역사와 불교사를 포함할 뿐 아니라 역사와 설화를 아우른 유사적 서술"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이강래 교수는 '한국고대사를 위한 삼국유사의 독법' 주제발표에서 "삼국유사의 왕력과 기이편은 불교적 신이가 전개된 시간과 공간의 배경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삼국유사의 본질은 불교신앙의 홍포를 위한 감동과 이적의 증거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SOS천성산" 사이버홍보단

어슬렁 달리기 · 생태비디오 아트展도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공유하기 위한 사이버홍보단이 조직됐다.

3천배 기도 25일째를 맞은 6일 천상산환경보존대책위와 대불청 부산지구는 천성산 관통반대 어슬렁 달리기와 생태비디오아트, 환경콘서트 등이 열고 시민들에게 천성산의 가치를 알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SOS 천성산이 아파요'라는 주제로 천성산의 생태자료를 보여주는 '비디오 아트'는 30여대의 노트북을 시청 광장 나무 위, 길거리 등에 설치하여 천성산 생태자료 및 영상물을 전시 상영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생태비디오아트전과 함께 포크가수 이진석, 청소년노래음악제 대상수상경력의 이성현, 난타, 살풀이, 대금산조 등의 환경콘서트가 열려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천미희 기자

월산 대종사 추모 다례식

1일 불국사서 봉행

성림당 월산대종사 열반 6주기 추모 다례식이 9월 1일 경주 불국사에서 봉행됐다.

불국사 무설전에서 열린 월산대종사 추모다례식은 불공, 개식, 헌다, 삼배, 육성법문 순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추모 다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비롯 문도대표 성타스님, 불국사 주지 종상스님 등 문도와 사부대중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스님의 생전 수행정신을 기렸다.

월산스님은 한국불교 선종사의 경허-만공-금오스님의 법맥을 이은 선객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97년 세수 85세 법납 54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

박원구 기자

용산 스님 2주기 추모
종호 스님 초청 법회 열어

부산 공덕원(주지 효선)은 8월 30일 용산스님 추모 2주기를 맞아 제주도 제석사 주지 종호스님 초청법회를 가졌다.

공덕원 부산 대구 신도들을 비롯 신도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추모법회에는 추모사와 공덕원 부산 대구 합창단의 추모곡, 법어, 헌화, 추모재 순으로 진행됐다.

천미희 기자

스님들, 주차장 불법행위 시정 나섰다



◇9월 2일 갓바위 선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법타스님(가운데)과 장적스님(왼쪽), 상인스님(오른쪽).

"공공시설물의 목적은 시민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과 선본사 주지 장적스님 등 10여명의 스님들은 9월 2일 갓바위 선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산시측에 특혜 수의계약된 주차장 관리대행권 해지, 관련공무원 파면, 경산시장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는 5개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산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물리력 행사도 불사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스님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선본사쪽 갓바위 공영주차장 관리대행권이 배모(43)씨에게 넘어가면서 도로를 막고 통행료 개념의 주차비를 강제 징수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 모씨는 입찰과정 중 불법 담합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다. 박원구 기자

통일기원 편지 전달못해
북측, 방침 내세워 거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이하 평불협) 경북대구본부(공동대표 장적스님)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보내기 위해 모은 초등학생들의 편지와 선물들이 북한측의 거부로 전달되지 못했다. 북한측은 '특정종교 단체의 편지와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이 방침'이라며 통일기원 편지 30여통과 인형 등 선물 20여점을 거부했다. 박원구 기자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파동명상 수련 후 스님. 법사님들이 경험하신 이야기를 싣고있습니다
여기에는 허락을 하신 분의 사례만 싣고 있습니다.

◎ 명성스님에게 상담을 의뢰한 이창명씨(가명, 40대 초반)는 건축업을 하는 사업가이다. 이씨가 상담을 의뢰한 이유는 사업 성취의 결정적 순간만 되면 알 수 없는 인간관계의 구설과 시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동업자가 일을 그르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해 3번이나 사업의 절대적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었다. 이씨는 사업이 잘 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자, 스님에게 **파동명상** 상담을 하게 되었다. **파동명상**상태에 들자 이씨는 전생에 자신과 얽혀져 있는 많은 사연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연의 주인공들이 현실에서 이씨와의 사업관계의 얽히고 설킨 시비와 송사의 상대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외가댁 뒷산 큰 나무에 눈을 뜨고 죽은 처녀영가, 그 영가는 전생에 이씨와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으나 신분의 차이(무당집 딸)로 이씨 집안의 집사(현재는 이씨의 집안의 가까운 친척으로 와 있음)에 의해 강제로 죽임을 당해 엄청난 원한을 품고 있었다). 이씨는 자신의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영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에 적절한 방편으로 그 영가를 천도하고 난 뒤부터 사업이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고 한다.
(스님의 요청에 의해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음)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9월 넷째주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 可)
◈ **수련과정**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영규대사와 800의승을 아십니까?

역사속에 묻힌 업적 재조명 활발

조계종 종회, 위령탑 건립 국회청원
옥천 가산사 영정각 해체후 사당건립
표충사등 주요사찰 추모열기 가득

임진왜란 당시 의승과 의병들을 규합해 왜군으로부터 청주성을 탈환했던 의승장 기허당 영규 대사(?-1592) 열반일인 9월 14일(음 8월 18일)을 맞아 추모제 및 재조명작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종회의장 지하)는 최근 임진왜란 당시 사망한 승군 800명, 의병 700명 등 1500명을 추모하는 순국충혼 위령탑 건립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중앙종회의원스님들은 3월 28일 "정부는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순국충혼 위령탑을 건립하고, 영정을 모시는 사당을 건립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다. 국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순국충혼 위령탑이 건립될 경우 영규대사와 칠백의승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직전 영규 대사가 중건했으며 승군훈련사찰이었던 충북 옥천 가산사(주지 지승)는 9월 14일 영규 대사 서거일을 추모하는 추모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산사는 약 2만여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영규대사 순국충혼 위령탑 및 기념관, 전시관 건립불사를 계획하고 있다. 가산사는 영규 대사 영정이 안치된 영정각(충북기념물 115호)과 산신각을 해체한뒤 가산사 인근에 영규 대사 사당과 청소년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영규대사 출가사찰인 계룡산 갑사(주지 장곡)는 11월 2일 추모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갑사 신행모임인 영규대사 보존 현창회도 전사지인 공주 계룡면 유평리 묘소에서 이달내로 제향을 올릴 계획이다. 옥천사암연합회도 이달에 옥천 관성회관에서 중봉충렬제의 일환으로 영규대사 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규대사의 영정을 모시게 되면서 호국사찰로 지정된 밀양 표충사(주지 혜오)는 10월 1일 표충서원에서 추계향사를 지낼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행장소개, 헌향, 헌공,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청주성탈환추모사업회(회장 이주원, 청주불교실업인회장)는 9월 23일 공주 갑사, 유평리 등 영규 대사 전적지 순례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사업회는 6일 청주 중앙공원 전적비 앞에서 청주성 탈환 411주년 추모대제를 열고, 금산전투에서 순국한 영규대사와 승병들의 뜻을 기렸다. 사업회는 부대행사로 사진전, 기념공연, 경로잔치 등을 개최했다.

청주 · 청원사암연합회는 9월6일 무심천체육공원에서 불자가수 정태춘, 박은옥씨등을 초청, 영규 대사 청주성 탈환 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기허당 영규대사는?

기허당 영규대사는 조선시대 고승으로 속성은 박씨, 속명은 영규, 호는 기허당. 공주시 계룡면 봉명리에서 태어난 영규대사는 공주 갑사에서 서산대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대사는 갑사 청운암에 주석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군 800명을 규합하여, 청주성을 탈환하는 등 공을 세웠으나 선조 25년(1592) 금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스님은 입적후 종2품 당상관 중추부사의 직위를 하사받았다.

스님의 영정은 해인사 영자전, 갑사 보장각, 표충사 표충서원, 보석사 의선각등에 모셔져 있다. 보석사에는 또 기허당 영규대사의 충혼을 기리는 위병승장비가 세워져 있다.



◇계룡사 갑사 보장각에 모셔져 있는 영규대사 영정.

서산대사 제자로 출가
승군 800명과 청주성 탈환

임란시 승병부대 첫 지휘
금산성 전투서 맹렬히 전사
숭유억불정책에 공적 묻혀

역사에 묻혀온 영규대사와 800의승은?

영규대사와 800 승병의 이야기가 일반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2000년. 계룡산 갑사(주지 장곡)가 기허당 영규대사 열반이후 처음으로 대제를 지내고, 학술회의를 열면서 부각됐다.



◇1592년 8월1일 영규대사와 800승병들이 조헌의 700의병과 청주성을 탈환하는 모습.

임진왜란당시 승병이 전투에 참여한 것은 영규스님의 부대가 최초이다. 또 임진왜란시 조선군이 일본군을 이긴것도 처음이다. 영규대사를 비롯한 승병 8백여명은 의병장 조헌의 700의병과 함께 일본군이 차지한 청주성을 공격했다. 이후 금산성으로 진격했다. 이 과정에서 영규대사는 중과부적임을 알고 조헌에게 전라감사 권율에게 편지를 보내 1592년 8월 17일 금산성 공격을 결정하였음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할 것을 말했다. 그러나 조헌은 권율의 회답을 기다리지 않고 또 영규대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금산성을 섣불리 공격했다. 이 전투에서 조헌이 들판을 결전장소로 결정하자 영규대사는 병법에 맞지 않는 곳이니 산등성이로 옮기자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헌은 속내로 자신이 순절하면 이곳이 사당을 지을 명당터라고 생각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 한다.

조헌이 적군의 칼날에 쓰러지자 휘하 장수가 영규대사에게 후퇴를 권유하였으나 뿌리치고 분전하다 전사했다.

그러나 스님을 천대했던 조선왕조의 숭유억불정책으로 인해 영규대사와 800명의 의승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으며, 오늘날에도 스님들의 공적은 거의 묻혀져 왔다. 조헌과 700 의사를 모신 금산의 700의총은 존재하지만 영규대사와 800 의승의 사당은 없다.

우리 절 우리 신도

"지장선원 더욱 번듯하길…"

안양 지장선원 심정구·이필상 거사



◇이필상 고문(사진 왼쪽)과 심정구 회장(오른쪽)이 지장선원 법당에서 담소를 나누며 활짝 웃고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위치한 지장선원(주지 현호)에 들어선 순간 눈에 띈 것은 선물용 식용유 세트. 추석이 가까워 신도들이 주지 스님에게 전달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기엔 양이 많아 보였다. 궁금증이 일어 주지 스님에게 물어보니 추석맞이 신도용 선물세트란다. 추석을 맞아 신도들에게 선물을 주는 도심포교당, 그곳이 바로 지장선원이다.

140여평 규모에 월간 〈지장〉을 발행하고 불교대학인 안양불교대학과 중국 구화산 육신보전 한국포교원을 운영하는 지장선원이

안양불교 발전위해 자비들여 회관마련
닮은꼴 인생, 마지막 회향 목표도 같아

이 정도 발전한 것에는, 안양불교의 두 큰 봉우리 심정구 신도회장(79, 설봉)과 이필상 신도회 고문(79, 고봉)의 역할이 컸다.

축협 · 농협 지회장 등을 역임한 심 회장과 안양경찰서에서 재직한 이 고문이 안양불교 발전을 위해 안양불교회관 마련을 발심한 것은 1985년. 알음알이로 알게 된 안양시 불자 16명과 1985년 5월 20일 안양시 안양1동에 45평 규모의 4층 건물을 임대했다. 법문을 듣고 싶어도 공간 마련 등 사정이 여의치 않자 자비를 갹출한 것이다.

한달에 두 번 씩 무진장 스님이나 이기영 교수 등을 초청해 법문과 교리 강좌를 들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상주하면서 지도해 줄 스님이 필요했다. 우연한 기회에 현 주지 스님과 인연이 닿은 심 회장과 이 고문은 스님이 지도법사로 와 줄 것을 요청, 주지 스님이 이를 허락하면서 현재의 지장선원이 생겼다.

지장선원이 처음 열렸을 때 심 회장과 이 고문은 선원 문을 열자마자 신발장부터 눈여겨봤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법회에 참석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심과 노력들이 모여 현재의 지장선원이 된 것이다.

25년생 동갑인 심 회장과 이 고문은 함께 안양불교회관을 설립했을 뿐 아니라 안양불교대학 1기 동기생이자 각각 슬하에 1남 5녀를 뒀다. 이 외에도 공통점이 많은 심 회장과 이 고문은 생의 마지막 회향 목표도 같다.

"지장선원을 지금보다 더욱 번듯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남동우 기자



추천의 말

현호스님 지장선원 주지

심 회장과 이 고문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활동 뿐 아니라 매일 법당을 참배하는 등 청년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발심 후 실천의 사표

불교대학을 졸업했지만 여전히 강의에 참석하고 각종 재일을 빠뜨리지 않는 심 회장과 이 고문은 지장선원의 역사입니다. 발심 후 실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 불교 현실에서 심 회장과 이 고문은 말 없는 사표입니다.

저 효사는 「육임(六壬)」 지방 강의를 재개(再開)합니다

저는 금번 전국 여러 어른들의 요청에 따라 아래 지역에 육임학당을 직접 개설하고 매주 직강(直講)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현인 · 기사 · 이인 각위(各位)께서는 이번 기회에 저와 육임 공부의 인연을 지어 활인천역(活人天役)에 큰 활용 되시기를 권하옵고, 저는 신명를 바쳐 실기(實技) 위주의 육임을 알려 드리므로써 단기간에 좋다는 육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육임은 모든 술법에 앞서는 정확 기민한 오행술 입니다. 우리 활인천역자가 인연만 주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습득해 둘 필요가 있는 고등술법인 것입니다. 이번 저의 지방강의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오니 등록하십시오. 후회없는 3개월이 될 것입니다.

■ 강의 일시 및 장소

- 육임학당 「광주숙」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 2003년 9월 15일 시작 (종전의 「광주숙」은 장소 · 지회장 · 강주가 폐지 교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육임학당 「진주숙」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 2003년 9월 23일 시작
- 육임학당 「부산숙」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 2003년 9월 24일 시작
- 육임학당 「대구숙」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 2003년 9월 25일 시작 (종전의 「대구숙」은 장소 · 지회장 · 강주가 폐지 교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육임학당 「효사숙」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현재 제 6기 진행중(10월 14일 금 - 제 7기 시작)
- 육임학회회원 지도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무료) — 현재 정기 지도 강의중

신 간 안 내

「각일 각시 출생자 운명예언 비법」

- 태아(胎兒) 선택 분만 吉日 吉時 선정 -

우리가 선택 분만에 따른 길일 길시를 뽑게 될때 매우 지난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번 써 놓은 이 책을 사용하시면 60갑자 각 일과 각 시간에 따른 출산 길흉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한 눈에 살펴 길일 길시를 선정 할수 있고, 또 여러 날과 여러 시간을 순서적으로 잡아 줄 수 있게 끔 해 놨습니다. 이 책의 활용요령은 비디오와 CD에 담아 책과 함께 보내드리오니 이것을 보시면 인연따라 더욱 크게 활용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주기둥세우는 기초」, 「격북 용신잡는 원칙」, 「여자 성(性)능력 판단」 등이 실려있습니다.

- 값 74,000원

● 입금처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 수강료는 3개월 150만원(효사육임강의록 상 · 하권 - 값 410,000원 - 교재로 드림) 입니다. 본 강의록을 이미 구입하신 분은 수강료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는 02-996-3335로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받겠습니다. 효 사

개발·불사 욕심 줄여야 자연이 산다

사찰환경 평가 긍정반 부정반
아직 산막기능 건재, 녹색의 중심
고발 아닌 기록위주의 탐사에 중점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16개 사찰생태기행 '明과 暗'

근래 들어 사찰의 환경이 여기저기서 많이 위협받고 있다. 사찰환경의 중요성은 단순한 자연환경 문제가 아니라 수행환경에 직결돼 있고, 수행환경 문제는 곧 한국불교의 사활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중차대하다.

필자가 2002년 3월에 사찰생태연구소를 만들어 108사찰 생태조사에 나서게 된 것도 사찰환경을 지키기 위한 일념에서였다. 10년 원력으로 시작한 이 작업은 오늘의 사찰환경의 명암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지석으로 삼고자 함이었다.

이 작업은 학술적인 생태조사라기보다는 탐사(探査)와 기행(紀行)의 중간형태로 시작됐다. 양산 내원사를 비롯해 몇 곳의 사찰을 제외하고는 일반인 참여 없이 필자와 동식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많게는 4~5명, 적게는 2~3명이 1박 2일 동안 해당사찰 주변을 탐사해 생태현황을 기록하고 사진에 담았다. 현재까지 돌아본 사찰은 모두 16개이며, 1개 사찰당 원고지 60~80매 분량의 기록물과 50매 내외의 자료사진을 모았다.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 지난 1년 반 동안 돌아본 사찰의 자연환경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반반이었다. 사찰주변의 생태환경은 우리나라 자연의 마지막 보고이자 산막(山幕)으로 아직 건재하다는 점이 긍정적인 결론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발지상주의의 피해(被害)로, 더러는 사찰불사로 인한 자해(自害)의 결과로 위기에 처해있다는 탐사자들의 진단이 있었다.

내소사 전나무 숲 등은 수행자들 원력이 낳은 결과물

탐사를 마친 16개 사찰의 자연환경을 돌아보고 느낀 점은 오늘날 우리의 자연이 이렇게나마 존속하게 된 데는 사찰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사실이다. 어디나 녹색의 중심에는 사찰이 앉아있고, 사찰 주위는 어디나 잘 보존된 숲이 감싸고 있다. 아무리 명산이라도 그곳에 사찰이 없었더라면 누가 그 숲을 지금껏 지켜올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예컨대, 백암산 비자나무숲은 백양사가 산막이었고, 양산 화엄벌의 산중 늪은 내원사가 산막이었으며, 오대산 전나무 숲은 월정사가 산막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즉, 그동안 사찰이 내셔널트러스트 기능을 해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자연은 그대로 둔다고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가꾸고 지킴으로써 가능하다. 돌아보건대 1천6백년 한국 불교의 수행자들은 자연지킴이로 각 지방의 기후풍토에 맞는 숲을 유지하여 국토를 푸르게 하는데 공헌해왔다. 그리고 내소사 전나무 숲이며, 백양사 비자나무 숲이며, 불영사 금강송 숲이며…. 이 모두가 수행자들의 원력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물려진 숲들이 아니던가.

뿐만 아니라, 수행자들은 멸종의 위기에 처한 것들을 지키고, 희귀종들을 보존해왔다. 현재 절집과 절집 주변에 남아있는 많은 천연기념물들과 희귀종들이 그것을 잘 증명해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우리의 사찰환경이 개발지상주의에 의해 크게 피해를 보았고, 현재도 정부의 실책으로 천성산과 북한산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돼 있다. 특히 지자제 이후 지자체의 개발정책으로 사찰이 원하지 않는 진입로 포장, 주차장 건설 등의 불사가 잇따랐고, 그 결과 환경이 많이 훼손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108사찰 생태기록은 고발위주의 실태조사가 아니라 자연생태 탐사를 통해 우리시대 자연생태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두는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모니터 차원에서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겼다. 이는 후인들에게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사찰환경을 이야기할 때 인구에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것이 분별없는 불사 문제다. 경상도 모 사찰은 근래 지장전을 새로 지으면서 무리한 욕심을 부려 건물 뒤쪽 산을 무려 8미터나 무지막지하게 절개 훼손했다. 조금만 욕심을 줄였더라면 전각 모양새도 살리고 산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자연미 잃어가는 조경 아쉬워, 귀화 식물 생태계 위협

그리고 상당수의 사찰 계곡들이 인공적으로 쌓은 보(洑)에 의해 자연성을 잃고 있었다. 생활용수를 얻기 위해 부득이 설치한 곳도 있었지만, 대개는 불필요한 일본식 조경문화의 잔재였다. 이 보에다 관상어까지 풀어놓고 인공사료를 넣어주고 있다. 보는 물 흐름을 저해하여 수질을 떨어뜨리며, 사료 속에 들어있는 영양제, 방부제, 항생제 등은 계곡에 살고 있는 토종 어류계에 예상치 못하는 유전자변형을 가져다줄 위험이 있다.

1년여 사찰생태 탐사에서 놀라웠던 것은 사찰 주변에 귀화식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산중사찰의 고유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귀화식물들은 지자체의 관광지개발과 분별없는 불사의 후유증으로 생긴 것이다. 고유생태계가 파괴되면 맨 먼저 어김없이 침범해 들어오는 것이 귀화식물이기 때문이다.

일부 귀화식물들은 토양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고유종과 서식공간을 잠식하거나 파괴하고, 우리나라 고유종을 멸종시키거나, 곤충이나 새 등의 먹이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더러는 병원체 등 전파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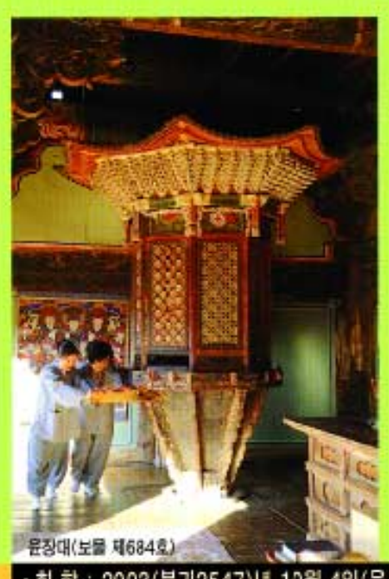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한 방안으로서, 각 사찰마다 1~2종씩 지표종을 선정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지표종이란 해당 사찰의 환경의 변화나 고유한 물리적 또는 생태적 특성을 대변하는 동식물 종을 말한다. 굳이 천연기념물이나 희귀종일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범어사의 계곡의 버들개, 서울 국사봉 사자암의 꾀꼬리, 강화 정수사의 가재, 예천 용문사의 홍점알락나비, 고한 정암사의 열목어…등등이 지표종이 될 만하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


윤장대(보물 제684호)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용문사 대장전 • 윤장대 보수, 목각탱 • 석탑 • 석등 점안 회향 만등불사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 시대부터 1,200여 년 동안 부처님 가르침인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천년고찰입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정신이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어느덧 용문사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용문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국보급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호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그리고 세조의 교지 등 다수의 보물 및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 윤장대는 부처님의 힘으로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1,200년 동안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비로운 가르침을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면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용문사에서는 앞으로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윤장대 윤전 법회를 봉행하여 온누리에 불법이 두루 퍼져 한없는 복덕이 성취되길 기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2003년 10월 4일(음 9.9) 중양절에 윤장대 윤전 법회 및 대장전 · 윤장대 보수, 목각탱 · 석탑 · 석등 점안 회향 만등불사를 봉행합니다. 세월의 무게 만큼이나 퇴락하여 빛이 바래 보수하고 수선하여 새롭게 부처님 위의를 빛내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그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가 구족하여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은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청 안 합장
신도회장 대행 박우식

• 회 향 : 2003(불기2547)년 10월 4일(음 9월 9일)토요일 • 동참금 : 등(1인1등) 1만원, 영가등 1만원 • 윤장대 윤전하실 분 동참금 1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47028-51-009313, 우체국 702191-01-000252 예금주 : 용문사


대장전(보물 제145호)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영부전 지장보살 · 업경대 보광명전 삼존불 진영당 교지(보물 제729호) 지문부(문화재 자료 제143호) 극락보전 영남제일경원 범종각



용문사 오시는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만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명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 (우)757-800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만다라 문화원
진품 만다라 천견 · 감상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02)3673-3881

“누구를 돕는일 나이 중요치 않아요”

日 호텔에 비치된 경전보고 ‘역경사업지원’ 발원

“남에게 베풀면 그만큼 사업 번창해 이윤 생겨요”



주 / 영 / 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진정한 법문은 그 법문이 끝난 뒤의 행(行)에 있다.’ (법구경)

1백가지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한다는 행을 강조한 경구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수많은 원(願)을 세우지만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일은 결코 녹록치 않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올해 팔순을 맞은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사재를 털어가며 자신이 세운 원을 묵묵히 실천하며 살아온 이 시대의 진정한 유마거사다.

‘행원(行願)’. 주 이사장이 평생토록 좌우명으로 살아온 이 법명은 지난 72년 관응 스님(현 직지사 조실)에게서 받은 것이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다닌 절이 구로동 심원사였는데 증명법사로 참석한 관응 스님이 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과 함께 지어주었다.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도움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그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교를 위해 힘쓴 이들과 어려운 이들에게 내가 번 돈의 일부를 환원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이사장은 이런 발원을 평소 인연이 있던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 스님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스님은 불교계엔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지원 등이 타종교에 비해 열악한데, 이 분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했다. 발원에만 그쳤던 재단 설립에 대한 그의 의지가 구체적인 현실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은 70년경 용인에 부지를 매입해서 15년동안 키워온 밤나무 농장을 처분한 2억여원의 이윤이 계기가 되었다. 처분한 돈으로 아산 레미콘 회사를 설립해 기틀을 마련한 주 이사장은 91년 12월 자신의 법명을 딴 행원문화재단을 세웠다.

“80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묵었던 호텔의 서랍속에 비치된 불교경전을 보고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경전은 대부분 한문으로 돼 있어서 읽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때 역경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1회부터 4회까지는 종립학교 학생들의 장학금과 역경상만을 주었지요.” 이후 주 이사장은 아산 레미콘, 서전운수, 서전시멘트 등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나온 이익금을 꾸준히 보태 계속 재단 출연금을 늘려 나갔다. 지난해 까지 10여년간 5억 5천만원이나 적립했지만 계속되는 예금 금리의 하락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올해초에는 1억원을 더 출연하기도 했다.



◇세상사는 이야기를 알기 위해 매일 아침 교계 및 일간신문을 탐독한다는 주영운 이사장.

“재단법인의 기금이란게 본래 출연금의 이자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요즘은 워낙 금리가 낮아 힘이 든다”는 주 이사장은 10여개의 통장을 꺼내보이며 “원금이 손상되지 않는 한 이자 한푼이라도 더 받아 불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직접 이자 좋은 은행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판다”고 말했다. 넉넉한 형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당시 혜성 중앙승가대 학장 스님의 가르침은 재단을 이끄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

“혜성 스님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일을 하는데 빠져 나간 돈은 반드시 채워진다는 겁니다. 인생 팔십의 나이에 지난 날을 회고해 보니까 이 진리가 딱 들어 맞더라구요. 남에게 베풀면 또 그 만큼 사업이 번창해 이윤이 생깁디다”며 소탈한 웃음을 짓는다.

역경상으로 출발한 행원상도 폭을 넓혀 5회부터는 불교 문화계에 공이 많은 예술인들에게도 시상하며 이름도 행원문화상으로 바꾸었다. 어떤 때는 추천자가 많지 않고 또 호응도 부족해 괜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실망도 했다는 주 이사장에게, 10회 때 역경상을 수상했던 각성 스님의 수상 소감은 지금도 기억속에 또렷이 남아 큰 격려가 되고 있다. “각성 스님이 처음 수상 소식을 접할 때까지 행원문화재단이 뭐 하는 단체인지 잘 몰랐더랍니다. 그런데 시상식장에서 그 의미를 알고서 종단의 무관심속에서도 12년 동안이나 끌고온 저에게 고맙다고 손을 잡으시면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행원문화상은 불교계의 유일한 문화상이다. 또한 평생의 원을 실천행에 옮기며 살아온 주 이사장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결실이기도 하다.

요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인 장기옥 보살(75)과 함께 <반야심경>을 암송한다는 주 이사장의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교계의 신행단체나 언론사들과 연계해 한글 경전을 각 관공서나 호텔등에 보급하는 운동을 펼치고 싶다고 답한다.

글=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주영운 이사장은

△1924. 9.24 경기도 개풍군 토성면 출생
△1937. 3 경기도 개풍군 토성초등학교 졸업
△1962.6~1985.2 (주)한일시멘트 입사, 전무이사 역임
△1983.2~1989.2 한일산업주식회사 이사
△1987.7~1991.3 서전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1991~현재 (주)아산 레미콘 대표이사,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지장 제일기도도량 도솔천 내원궁 도솔암

1029일 천도재

도솔암은 최근 극락보전을 중창 낙성하고 아미타부처님을 개금해드리는 한편 후불탱화를 새로 모셨습니다. 이 뜻깊은 불사 회향을 선망부모 · 유주 · 무주 고혼과 함께 하고자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지내는 대규모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동참 불자께서는 천도제사를 매주 올리게 되며 기도회향때까지 **총 147회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을 지켜온 마애불(보물 제1200호)과 지장보살(보물 제 280호)이 보살피시는 도솔암에서 다시 천년을 이어갈 가람으로 중창하고 열리는 ‘1029일 천도재’에 많은 불자들께서 동참하시어 뜻하신바 소망을 성취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 도솔암 지장보살(보물 제280호)

두번째 49재 안내

제 1재	8월 17일	제 2재	8월 24일	제 3재	8월 31일
제 4재	9월 7일	제 5재	9월 14일	제 6재	9월 21일
두번째 49재 – 9월 28일 원명사 묘허큰스님 영가법문					

▶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 철야 지장기도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천도제사 (영가천도 법회 총 147회)

■ 교통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조계사앞 출발 /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 30분 조계사앞 출발

도솔암 전화 063)561-0075 / 팩스 063)561-4080 서 울 017-221-8778(이회장) 02)821-3242,4689(진여회)
부 산 011-855-8741(부산고속관광 박길하), 016-842-4272(유정희) 대 전 011-409-2702(동선관광 이현호)

조계종제24교구본사 선 운 사 **도 솔 암 주지 지 정 합장**

릴레이 수행일기 〈上〉



이계복

'마하넷' 대표(송사모 회장)

대학 1학년 때 불교학생회에 입회함으로써 불교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으니 벌써 10년이 넘는 셈이다. 한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활동을 하던 2학년 4월의 어느 날,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 속에서 출가를 감행하게 되었다.

달랑 가방 하나를 메고 떠나온 길이었기에 낯선 곳에서의 행자 생활은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렇게 6개월여가 지나 어느 정도 행자생활에 적응할 때쯤, 군 입대 영장을 받게 되었다. 이런 저런 고민 속에서 한 번은 다녀와야 할 곳이라면 피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입대를 결심했다.

함께 생활하던 누군가에게 군종병 제도에 대해 듣게 되었고, 절을 떠나기 전 군대에서도 군종병으로서 불교와의 인연이 지속될 수 있기를 부처님께 기원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이 과정에 하루 5천배씩 꼬박 이틀에 걸쳐 만 배를 하였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나자마자 절하고, 밥 먹고 절하고, 땀에 절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절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과연 기원이 이루어질까하는 의문이 슬며시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하는 '인욕 공부'라면 어떻게 힘든 군대 생활과 출가 생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분심이 일어났다.

당시, 마음 속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기도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온 몸이 땀에 절고 탈수 현상으로 서있기 조차 힘들었지만 마지막 3배를 드릴 때의 희열은 절 수행을 해본 불자들만 알 것이라 생각한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려는 간절한 일념으로 기도를 한 탓인지, 입대 후 사단 군종병으로 군 법사님을 시봉하면서 불교와의 인연은 지속될 수 있었다.

사단 내에 훈련소가 있던 탓으로 훈련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과 조석 예불, 정기 법회 인례 등으로 정신없는 시간들이었다.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꼽으라면 학창 시절과 군 생활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보람있는 시간들이었다.

군종병으로 불교인연 지속되길 기원
마하넷 운영 '송사모' 활동등 삶에 보람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복학을 하게 되었고 대불련 지회장, 지부장, 간사로 이어지는 활동을 통해 불교는 대학시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 인연들로 인해 졸업 후에도 불교전문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마하넷'을 운영하고 있으니, 전생에 닦은 선근인연이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송광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소임을 맡아 매달 한 차례 송광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서 철야정진을 하고 있는 것도 재학 시절과 군대 생활에서 얻은 추억과 환희심 때문이었다. 온-오프 라인 상에서 많은 도반들과 함께하는 공부는 늘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있다.(계속)

"토요일 밤, 철야참선으로 즐거운 인생"



◇23년째 월말 철야참선법회를 열고있는 부석사의 무량수전 내 정진모습.

■ 주말 철야참선 하는 곳

단 체	시 간	연락처
해운정사	매주 토	(051)746-4812
부석사	매월 마지막 토	(054)633-3464
화계사 선우회	매주 토	(02)900-4326
보림회	매주 토	(02)914-6187
수선회	매주 토	(02)517-3108
우곡선원	매월 첫째 토	(02)2055-3111
선학원 선정회	매월 셋째 토	(02)732-3327
통도사 극락암	매주 토	(055)382-7083
학림사 오등시민선원	매주 토	(042)825-0515
미타사	매주 토	(02)662-4736
법련사	매월 마지막 토	(02)733-5322
공림사	매월 셋째 토	(043)833-1029
대구구도회	매월 마지막 토	(053)654-8533
대전구도회	매월 셋째 토	(042)527-0559
법륜사	매월 둘째 토	(043)878-6122
홍련암	매월 첫 · 셋째 토	(063)263-6072
해인사 백련암	매월 넷째 토	(055)932-7300
해인사 원당암	매월 첫 · 셋째 토	(055)963-9551
범어사	매월 첫째 토	(051)508-3122
통도사 부산포교원	매주 토	(051)816-2241
장안사	매월 마지막 토	(031)703-7766

"이 궂은 날씨에 번잡한 일상사를 벗어던지고 전국에서 모인 재가 수행자들은 참으로 희유한 불자들로서, 참된 법보시를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철야정진동안 끊임없이 회광반조하며 화두를 챙겨서 생사해탈하시기 바랍니다."

장대비가 내리던 지난 8월 30일,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100여명의 불자들이 이날 저녁 9시부터 시작된 부석사 주지 근일 스님(고운사 회주)의 법문을 듣기 위해 6시부터 예불과 기도를 하고 있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동, 영주, 대구,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재가 선객들은 곧이어 법단에 오른 근일스님의 참선 법문을 들은 뒤, 죽비 소리에 맞춰 입선에 돌입했다.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10년 이상의 구참 선객들은 태산처럼 미동도 없지만, 억지로 화두를 챙기는 신참자들은 아무래도 힘이 달린다. 저린 다리를 바꾸기도 하고, 포갰던 손도 바꾸어 보고, 몸도 흔들어 보고, 어깨도 추슬러 보고…. 매달 한번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진행되는 철야참선 시간에 신참자들은, 수마와 싸우는 용맹정진을 통해 어느새 은산철벽을 마주할 수 있는 구참 선객으로 변해있을 것이다.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부석사와 같은 전통사찰이나 시민선원, 재가 수행단체에서 매주 또는 매달 정기적으로 철야정진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바쁜 일과로 인해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과 주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주말 수행패턴으로 각광받고 있다. 재가 불자들은 철야 참선을 통해 1주일간 미뤄둔 선정 수행에 집중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를 활기차게 맞이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후 실시하는 곳 증가
새로운 주말 수행패턴으로 각광
부석사, 화계사등 20년 이상 법회

매주 철야참선의 전통을 이어온 사찰은 서울 화계사와 보림선원, 미타사, 수선회를 비롯해 부산 해운정사, 통도사 극락선원, 대전 학림사 오등시민선원 등이 대표적이다.

화계사 선우회는 26년째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까지 주말 철야참선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보림선원 보림회는 30년째 주말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여름 및 겨울 휴가철에는 1주일 용맹정진까지 하고 있다. 부산 해운정사는 10여년째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조실 진제 스님의 지도하에 법문 및 참선, 1080배 등을 하고 있다. 97년 개원한 학림사 오등시민선원은 매주 토요일 조실 대원스님의 '대주선사어록' 법문에 이어 철야참선을 하고 있다. 경봉 스님이 주석했던 통도사 극락선원도 3년전부터 선원장 명정스님의 지도아래 매주 토요일 철야 참선법회가 열린다.

부석사와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기 철야참선법회를 열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해인사 백련암(매월 넷째 토)과 원당암(매월 첫, 셋째 토)은 입적한 성철스님과 혜암스님이 주석할 때부터 20여년이 넘게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선학원 중앙선원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선정회 주관으로 철야참선을 하고 있다. 서울 법련사, 통도사 분당포교원 장안사, 대구구도회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철야정진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민선원인 우곡선원은 5년째 매월 첫째 토요일, 주말 철야정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범어사, 공림사, 대전구도회, 법륜사, 홍련암, 장안사도 매월 1회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철야정진을 한 지 20년이 넘는 곳에서부터 최근 개설된 곳까지, 이와 같은 용맹정진의 열기는 간화선 수행풍토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20여년간 부석사 월말철야법회를 이끌어 온 부석사 이화춘(60, 도성화) 신도회장은 "선방에서 묵묵히 정진하는 스님들과 이를 본받아 공부하는 재가 불자들이 있는 한 간화선 수행풍토가 다시 꽃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영주=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무심선원 재가단체론 첫 '소참법회'



옛부터 선종(禪宗) 사찰에서는 정기적인 설법(大參) 이외에 '소참(小參)'이라고 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설법의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 무심선원(원장 김태완 · 사진 www.mindfree.net)은 이런 전통을 되살려 재가 참선단체로는 처음으로 '소참(小參) 법회'를 연다. 지난 8월부터 수(오후 7시~8시30분, '완능록' 강의), 토요일(오후 2시30분~5시, '원오심요' 하, '노자 도덕경' 강의) 정기 법회 이외에 아침, 저녁으로 소참법회를 열고 있는 무심선원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12시, 매주 목 · 금요일 오후 7~8시 정기 소참법회를 마련했다. 선어록 강의를 겸한 '선 법문'으로 '직지인심(直指人心)'의 활발발한 문답식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무심선원은 소참법문을 통해 수시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거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051)515-7226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가을 선수행

충남 논산 계룡산에 위치한 국제선원 무상사(주지 무심, www.musangsa.org)는 두 차례의 단기 가을 결제수행을 실시한다. 추석 선 수행은 9월 10~13일 4일간, 10월 결제는 10월 3~5일 3일간 열린다. 미국 스님인 무심, 명행 스님이 직접 참선을 지도한다. (042)841-6084

호두마을 우 소바나 스님 초청 수련회

천안 호두마을(이사장 조현곤)은 10월 3~12일 9박10일간 미얀마의 고승인 우 소바나 스님 초청, 특별수련회를 연다.

모곡수행센터(Mogok Meditation Center) 지도법사인 우 소바나(U Sobhana) 스님은 스승인 모곡(1899~1962) 스님의 방식대로 12연기와 오온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게 한 다음, 수행으로 그 과정을 체험하게 한다. (041)567-2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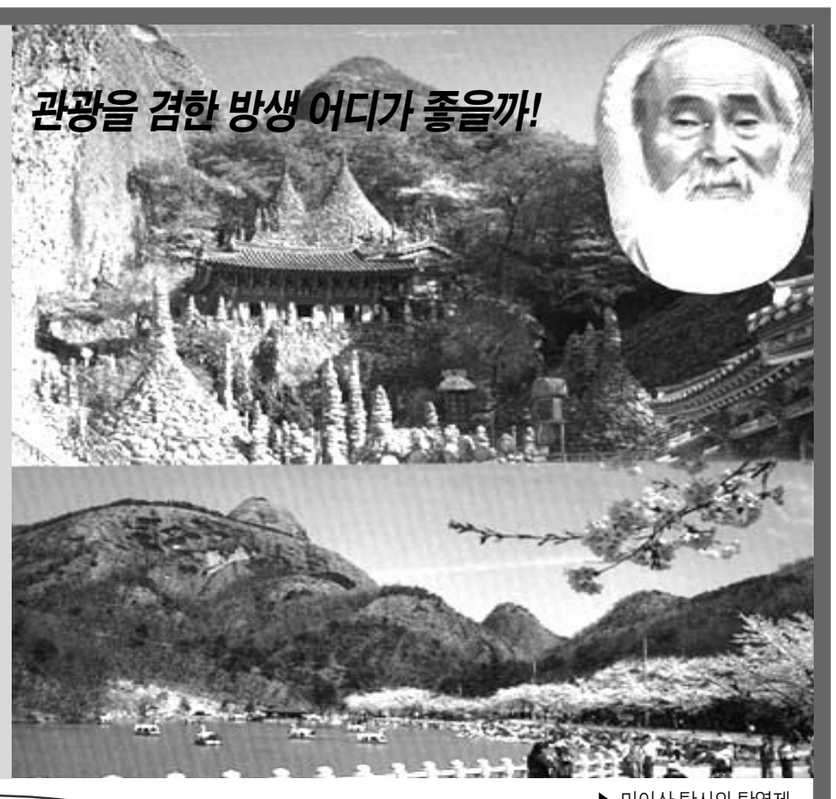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광주일원	주용직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제천지국	제천 / 단양	청산스님	043)644-4366 / 011-485-4080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40분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바라밀현장

조계사 청년회 '자제정사' 자원봉사

무주상보시 정신으로 9년째 봉사

제철 일거리 기록 노하우 축적

자녀들과 함께하는 산교육장



◇조계사 청년회원들이 창고에서 말리던 깨묶음을 차에 싣고 있다.

땀 흘리는만큼 마음은 '넉넉'

"저 메밀꽃밭 좀 보세요. 달빛이 들면 봉평이 따로 없다니까요. 저기 맨드라미랑 붓꽃도 아담하니 이쁘죠? 아이고, 고추 딸 때가 됐구나."

8월 31일 '조계사청년회지혜부 (부장 김석빈)'의 '자제정사 8월 봉사'는 회원들의 애정어린 눈길로 시작된다. 자제정사는 대만의 자제공덕회를 모델로 삼아 자급자족의 복지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불교계 양로시설. 조계사 청년회는 이곳에서 한 달에 한번씩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을 내지 않는 무주상보시의 정신으로 이어온 봉사가 올해로 9년째를 맞았다.

"오랜만에 볕이 나려고 하니 고추 좀 말려야죠? 대웅전 뒤의 잡초는 좀 뽑았나요?"

봉사팀장을 맡고 있는 김정희(35)씨가 일감을 귀신같이 찾아낸다. 청년회가 주로 담당하는 일은 농사일. 인근 1만여 평의 땅을 일구며 사는 자제정사 식구들에게 매달 큰 힘이 되어주는 그들이다. 청년회원들은 매 봉사 때마다 봉사일지를 작성해 제철 일거리를 기록하고 베테랑 일꾼들의 노하우를 축적한다. 그래서 청년회의 조직력은 그 어느 단체보다 탄탄하다.

"이젠 오랜 벗들처럼 지내죠. 그래서 험한 일을 부탁하거나 응하는 데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자제정사 총무 경덕스님 말대로 청년회 봉사 일정은 온종일 빡빡한 경우가 많지만, 회원들의 불평은 거의 없다. 오히려 백장 선사의 '일일부작 일일부식(一日不作 一日下食) 청규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노동의 보람을 느끼게 됐다는 그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 고추를 널거나 참깨 더미를 운반할 때, 땔감용 나무를 쪼개거나 밭이랑에 쪽파 씨앗을 심을 때 언제나 활기찬 모습이다. '봉사의 의무감'을 떨친 이들이기에 모든 일을 여여하게 받아들일 뿐이다.

"이곳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전해주러 왔는데 풍요로운 마음을 되받아 가는 것 같은 기분 아세요?"

허영곤(40)씨는 이곳을 찾을 때마다 마음이 넉넉해져, 봉사 때마다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올 정도라고 한다. 일부러 주말농장에 가입하곤 하는 마당에 이만한 산교육장이 어디있겠냐고 되묻는 허 씨. 구릉 위 법당에선 부처님이 아래를 굽어보고 있고, 밭으로 둘러싸인 시설 마당에는 백일홍, 능소화 할 것 없이 수십 종의 꽃들이 그 자태를 뽐내는 자제정사다.

특히 이번 8월 봉사에는 조계사 청년회 풍물원이 가세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한판 공연을 펼쳤다. 마침 안양지역 신행회 '가릉빈가'와 신림여고 학생들도 봉사를 나와 신명나는 흥을 돋구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은 같았기에 다가오는 한 가위 만큼이나 풍성한 하루였다.

"한시절로 마감하는 봉사활동은 의미없습니다. 불자들이 지역을 아우르는 넉넉함을 가지고 지역복지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역의 불국토 건설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김석빈(33)씨의 말에 청년회원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자제정사를 통한 조계사 청년회의 불국토 건설은 현재 진행형이다. 자제정사=(031)356-9030

화성=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편안한 임종 지켜드려요"

천태종 니르바나 호스피스 봉사회



◇'천태종 니르바나 호스피스 봉사회' 문춘금(오른쪽)씨가 임종을 앞둔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처럼 모든 분들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태종 니르바나 호스피스 봉사회'(대표 · 윤철준 부산회장) 회원들은 불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 불자호스피스의 부족으로 임종시 불자들의 개종 사례가 느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유가족 역시 고인과 함께 타종교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아 불자들이 꾸리는 '호스피스' 봉사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고 한다.

죽음 경계서 불자 개종 늘어 시작

병원 관계자, 타종교에서도 인정

니르바나 호스피스 봉사회는 서울과 부산, 제주 등의 도시에서 꾸준한 활동을 벌여 병원 관계자를 비롯, 타종교 호스피스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활동을 시작한 지는 일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경희의료원 · 동아대병원 아동암센터 · 부산대병원 · 메리놀 병원 · 제주의료원 등 이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병원은 상당수에 이른다.

단체 봉사활동 외에도 임종을 앞에 둔 환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호스피스 봉사와 관련된 교육과정 이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회원들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앞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일은 그들이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니까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더욱더 강해진다는 이금희(45) 회원. 그를 포함한 회원들은 예토를 떠난 이들이 정토에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봉사현장으로 향한다. (02) 575-3467

강신재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조앤 핼리팩스 (下)

일상 생활속 선(禪) 강조

"일상생활 속에서 좌선을 응용하는 것이 당신의 독특한 수행의 핵심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특별한 것입니다. 좌선할 때나, 봉사할 때나,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미국 불자들의 삶과 죽음' 중에서)

'평화주의 선종'의 공동 창설 멤버이자 불교 수행 및 포교단체인 '우파야(Upaya)' 선원의 창립자인 조앤 지코 핼리팩스(Joan Jiko Halifax)는 <인간의 죽음> <샤머니즘의 목소리> <샤먼, 상처받은 치료사> <생산적인 어둠> <미국 불자들의 삶과 죽음 : 복잡함 속의 단순함> 등의 저서를 통해 생활 속의 선(禪)을 강조한다. 그 자신 재가 여성신도이자 우파야선원의 설립자로서 누구보다도 재가자들의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살 것을 주장한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인 록펠러(우)와 함께한 핼리팩스.

"나는 주부 불자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간의 투명한 관계에 관심이 있었죠.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사형수들을 위해 일할 때마다, 거기에서 속속들이 공개되는 개인적인 삶의 비밀들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늘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과 숨김 없이 지냅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마음의 문을 열 생각이죠?'"('미국 불자들의 삶과 죽음' 중에서)

핼리팩스는 '어떻게 불교라는 미지의 공간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일에든 100% 몰입하는 게 요령입니다. 불교 수행은 선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이며, 삶은 곧 수행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시방(十方)의 세계로 문을 열고 참여해야 합니다. 수행, 봉사, 깨달음, 그리고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란 여행은 거친 마음의 체험들'이라고 말해온 핼리팩스는 여성으로서 매우 쾌활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교도소나 병원 등 거칠고도 위험한 포교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곳에서 외롭고도 긴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점차 남성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수행과 포교'라는 금녀의 구역으로 깊숙히 걸어 들어갔다.

"나는 수행의 만다라로 모든 생명체를 초대하고, 그들에게 봉사합니다. 나는 중생의 깨어있는 본성, 지혜와 자비의 바다, 상호의존성 안에서 수행하렵니다."(우파야나선원의 '청규')

이렇게 중생구제에 대한 서원을 세운 핼리팩스는 평소 '3대 행동준칙'으로 몸소 실천하는 불자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첫째, 보호소를 마련하고 실천과 수행의 마당으로 뛰어든다. 둘째, 모든 생명체가 상호간에 경외심을 갖게 되고, 내가 그들의 기쁨과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기를 서원한다. 셋째, 모든 배고픈 영혼들을 수행의 만다라로 초대하고, 나의 에너지와 자비심으로 지구, 사람, 모든 유정(有情)들을 치유할 수 있기를 서원한다.

김재경 기자

재가자 고통 알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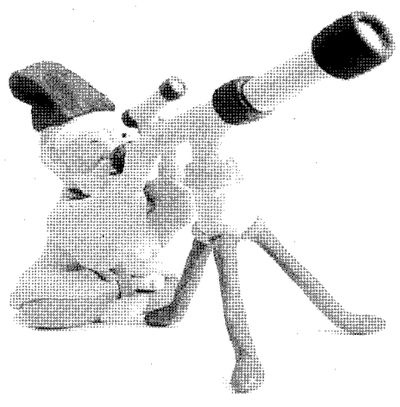
교도소등 거친 현장에서 '수행과 포교' 실천

紫微斗數全書

천년 신수의 왕 자미두수!!

『천하제일의 신수(神數)! 자미두수!』
천년만에 공개되는 『자미두수』의 핵심비급
그 유일무이한 교과서 !

국내최초로 소개되는 『자미두수』의 가장 완전한 텍스트북! 자미두수를 학습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독해야 할 책! 정확한 원문수록과 번역!



원저자 진희이(陳希夷) 선생
역자 이두 김선호(金善浩)

사주추명학에서 느껴보지 못한 시원함!!

『자미두수전서』

13년 동안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만과 홍콩의 어떤 해설서도 따라오지 못하는 치밀한 해설과 역자주! 장장 7년의 세월동안 각고의 노력끝에 탄생한 이 책은 자미두수를 연구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스승이 될 것이다.

공자 맹자 손자 등 고대인은 물론 의사 장군 등 현대인까지 무려 **121명을 예로 들어 풀이**하였고, 특별부록 **자미두수 CD를 활용**하여 생년월일시를 입력하고 연습한다면, 누구나 3개월 안에 자미두수로 본 인생을 논할 수 있다.

추천의 글

자미두수라는 고전을 자신만이 갈고 닦은 경험적 진실로 새롭게 재해석
김성기(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책을 일독(一讀)해 보면, 자미두수의 그 경이로운 적중률과 구체적 논리성에 대해 이해가 될 것 韓國紫微斗數學會長 碧謙 張正林

종주국인 中國의 어느 해설서라도 능히 제압하는 역작이니 韓國 사계의 福音이다. 易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널리 권장하여 마지않는 바다.
에스크퓨처닷컴 대표 李修

전 2권(상,하) 1,700쪽 100,000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대유학당
2249-5630
www.daeyou.net

특별부록 자미두수 CD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묘산 현응결 미두점 주역점해 등이 곧 출간됩니다. 대유학보 9월호가 발간 되었습니다.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36〉

무염족왕의 법문

형벌, 악업끊고 보리심내게하는 방편
근기 성품 잘살펴 효과적인 중생 구제

선재동자는 보안장자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선지식은 나를 거두어주고 보호하며 보리심에서 물러가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생각하였다. 가르침대로 남쪽으로 가서 다라당성에 이르러 무염족왕(無厭足王)이 있는 데를 물어보았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 왕은 지금 정전(正殿)에서 사자좌에 앉아 나랏일을 보고 있다. 법으로 교화하여 중생들을 조복시키는데, 교화해서 구제하기도 하고, 죄 있는 이는 벌 주고 소송을 판결하며, 외롭고 힘없는 이는 위로하고 보살펴 주어서 모두 열 가지의 악업을 여의게 하고 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찾아가 보니, 왕은 아름답게 장엄된 정전에서 위엄을 떨치며 있었는데, 일만의 대신(大臣)과 십만의 강건한 군졸을 거느리고 있었다. 왕의 앞에는 나쁜 일을 저지른 한량없는 중생들이 오랏줄에 묶이어 끌려와서는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고 있었다. 손과 발을 끊기도 하고 귀와 코를 베기도 하고, 눈도 뽑고 머리도 자르며, 살가죽을 벗기고 몸을 오리며, 끓는 물에 삶고 타는 불에 지지기도 하는 등 무량한 고통을 주니 소리높여 울부짖는 광경들이 커다란 지옥처럼 보였다.

이것을 보면서 선재동자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보살행을 구하고 보살도를 닦는데, 이 왕은 선한 법은 하나도 없고 큰 죄업을 짓고 있다. 여기에서 무슨 법을 구하겠는가."

이때 공중에서 어떤 천신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보안장자 선지식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생각하라. 그대는 선지식의 말을 떠나지 말라. 선지식은 그대를 인도하여 험난하지 않고 편안한 곳에 이르게 해준다. 선남자여, 보살의 교묘한 방편지혜 · 중생을 생각하는 지혜 · 중생을 성숙하게 하는 지혜 · 중생을 수호하는 지혜 · 중생을 해탈케 하는 지혜 · 중생을 조복시키는 지혜를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선재동자는 왕의 처소에 나아가 예배하고 가르침을 청하였다. 왕은 선재동자의 손을 잡고 궁중으로 들어가서 화려하게 장엄된 궁전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만일 참으로 악한 업을 짓는다면 이런 과보와 이런 육신과 이런 권속과 이런 부귀와 이런 자유자재함을 어떻게 얻었겠는가.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환술과 같은 해탈[如幻解脫]을 얻었노라. 선남자여, 나의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살생하고 훔치고, 내지 삿된 소견 가진 이가 많아서 다른 방편으로는 그들의 나쁜 업을 버리게 할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저런 중생을 조복시키기 위하여, 나쁜 사람으로 화하여 여러 가지 죄악을 짓고 갖가지 고통을 받는 것이니 저 나쁜 짓을 하는 중생들이 보고서 무서운 마음을 내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겁나는 마음을 내어 그들이 짓던 모든 나쁜 업을 끊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선남자여, 나는 이렇게 교묘한 방편으로써 중생들로 하여금 열 가지 나쁜 업을 버리고 열 가지 착한 도를 행하여 끝까지 즐겁고 편안하고 마침내 온갖 지혜의 지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선남자여, 나의 몸이나 말이나 뜻으로 짓는 일이 지금까지 한 중생도 해친 일이 없다. 선남자여, 내 마음에는 차라리 오는 세상에 무간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잠깐만이라도 모기 한 마리나 개미 한 마리를 괴롭게 하려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사람일까보냐. 사람은 복밭[福田]이라서 모든 선한 법을 능히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환술과 같은 해탈[如幻解脫]을 얻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무염족왕이 설하고 있는 보살의 '여환해탈(如幻解脫)'의 법문은 지혜로운 방편으로써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구제하는 법을 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왕의 명칭이 무염족인 것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에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어서 싫어함이나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성의 이름이 다라당(多羅幢)인 것은 '다라'가 '밝고 깨끗하다[明淨]'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출세간의 밝고 깨끗한 지혜로 세간을 잘 들어가서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근기를 잘 알아서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적절한 모습을 지어서[化作]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염족왕이 악업을 지은 중생들에게 가혹하게 형벌을 가하는 것도 그들에게 악업을 끊고 보리심을 내게 하려는 방편으로써 행하여지는 것이다. 중생을 위한 자비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을 이롭게 하고 만족케 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지혜롭게 헤아려서 필요에 따라서는 힘들고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도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자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식을 위한다면 필요한 경우에는 사랑의 매도 들어야 하지 않는가. 보살행을 실천하는 데에는 지혜방편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⑨

직지인심-8



고정불변의 자아 지어낸 관념일뿐

공도리에 입각해서 보면 무명번뇌라는 것이 본래 없다고 하였다. 우리가 그것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사고방식, 그것이 바로 무명이요 온갖 번뇌의 발단이다. 그런 사고방식은 아무튼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무명번뇌가 있다는 데로 논리가 귀결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 무아(無我)를 잊지 마시라.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인식의 주체는 우리 각자의 자아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자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오온(五蘊), 즉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졌다가 그 요소들이 흩어지면 자연히 없어져버리는 것이라고 본다. 생각의 주체라는 것이 그처럼 허망하니 그것이 만들어낸다는 온갖 생각 또한 자연히 허망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색수상행식 오온이 뭐냐? 이 개념은 초기 불교 교리부터 무수하게 등장하지만,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아리송하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또 눈살을 찌푸리겠지만 일단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즉, 우리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 자신이라고 여기고 믿어 의심치 않는 자아라는 것이 실상은 우리 몸의 감각 및 지각기관과 외부의 대상이 접촉하여 만들어내는 인식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내놓은 교리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일과 사물에 대하여 일으키는 기뻐하고 성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의 감정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며 내리는 판단, 그 늘 변화하는 인식의 마디와 흐름들을 가지고 바로 우리 자신의 자아라고 착각할 뿐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니 우리가 고정불변의 자아라고 여기는 것은 지어낸 관념일 뿐이다. 그 자아가 일으킨다고 여기는 절실한 감정과 판단과 인식도 모두가 지어낸 것이다. 흔히 듣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냈을 뿐이라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아는 없다 해도 마음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라. 그 또한 설명을 위한 개념일 뿐이니까.

이쯤해서 독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드리겠다. 싯다르타는 생사(生死)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했다고 한다. 복을 받거나 내생에 좋은 데 태어나기 위해 공덕을 쌓는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납자(衲子)의 본분(本分)이라고 선사들이 흔히 강조하곤 하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이다. 아무튼 그렇다면, 싯다르타가 깨쳐서 부처가 되고 해탈했다는 것은 곧 그 생사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인데, 과연 어떻게 해결했는가?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는가? 아니다. 석가모니도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말인가? 이 생은 죽음으로 마감했지만 다음에는 다시 환생하지 않게 되었다고도 한다. 어찌하여 그럴 수 있게 되었는가? 환생은 업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된다고 하는데, 석가모니는 어떻게 해서 업을 다 소멸하였다는 말인가? 진리를 깨침으로써 일거에 유루(有漏)의 업, 즉 환생의 원인이 되는 업을 다 소멸했다는데, 석가모니가 깨쳤다는 생사의 진상이 과연 무엇이기에 그런 어마어마한 효력을 발휘하는가? 다음 주에 찾아뵐 때까지 이 문제를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12〉

유정·무정 개유불성

프리온 증식 생·무생물 경계없음 입증
유정·무정 사람 기준의 분류에 불과

우리가 잘 아는 부처님 말씀 중에 유정 · 무정 개유불성이라는 표현이 있다. 아무리 유마의 불이(不二) 설법에서는 사바세계와 부처님 정토가 다르지 않다고 하며 선가(禪家)에서는 유무(有無)나 마불(魔佛)이 따로 없다 하고, 우리 몸도 어차피 지수화풍의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럴 수도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유정물(有情物)은 그래도 당장 눈앞에서 생생하게 돌아다니며 울고 웃고 하는 주인공을 지니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돌멩이 같은 무정물도 불성(佛性)을 지닌다 하니 어찌된 말일까.

생명체는 DNA라는 복제 가능한 유전물질을 바탕으로 생식활동을 통해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만들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간단한 생물체로서 무생물과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되어온 바이러스들도 스스로 복제하는 힘은 없지만 그 나름대로 유전물질을 지니고 있어서 숙주의 세포내에 들어와 기생하여 자신의 자손들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무생물은 유전자를 지니지 않기에 지금까지 생물과 무생물은 확실히 다른 것이라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렇게 복제 가능한 유전자에 의거한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은 1990년대에 들어와 전면적으로 도전받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의 치매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소에서의 광우병 원인체를 규명하고 나서부터였다. 프리온이라는 이 원인물질은 유전자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은 단순한 단백질에 불과했던 것이다. 단순한 단백질에 불과하여 유전자도 없는 무생물이 생물체내에서 증식하고 전파되어 확산되어 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생물체와 무생물체의 기준인가?

이때 비로소 생명과학자들은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란 따로 없음을 실감하게 된다. 유정, 무정이란 단순한 우리 기준의 분류이자 간택(揀擇)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유정, 무정이란 커다란 한 바탕으로부터 비롯되어 단지 원인과 결과에 의해 취하게 된 모양새(相)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고, 이것을 밝힌 미국의 프루즈너 교수는 1997년에 노벨상을 받게 된다.

이렇듯 우리가 생물이나 무생물로 어떻게 받아들여 이름 붙이건 그것은 단지 이름 하여 유정, 무정이지 그 본바탕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부처님께서 이미 이천년도 넘는 오래 전에 이러한 부분을 꿰뚫어 보시고 겉모양과 무관하게 모든 것의 원래 바탕으로서 불성을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과학이 이렇듯 부처님 말씀에 맞아가는 것에 놀라게 된다(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과학적이라는 표현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것).

삼라만상이 오직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동시에 마음은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 오직 이 마음이라 불리는 불성(佛性)을 제대로 알면 대장부 일을 마칠 것이니 불성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공허한 논의는 시간 많은 이들이나 하라고 하고 우리는 오직 마음공부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사암침술 · 명리학 강좌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면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저희학회에 오셔서 3개월만 수강하시면 누구나 전문가로서 삶의질을 높일수 있습니다.

사주추명학 강좌(초~고급)
가장 어렵다고 하는 용신법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배울 수 있으며 역술인에게 필요한 실력을 2배이상 책임지고 높여드립니다.
▶ 내용 : 사주작성, 취용법, 대세운법, 사주간명법, 적성판단, 직업판단, 택일, 궁합, 작명법(실습위주)
▶ 개강 : 2003. 10. 8 (매주 수, 목요일.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강사 : 명리학 교과서, 매화역수 저자 직강(교재 무료)

사암침술 강좌(초~고급)
3개월이면 침술인에게 필요한 실력을 3배이상 책임지고 높여드립니다.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 정골방법, 종합실습
▶ 개강 : 2003. 10. 6(주2회 - 매주 월, 화요일. 주 · 야간반)
▶ 강사 : 침술즉효요법, 침술학 교과서 저자 직강(교재 무료)

매화역수 강좌(고급)
매화의 맑고 독특한 향처럼 오직 수리학(1~9숫자)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매우 재미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개강 : 2003. 10. 10(주 1회 - 매주 금요일, 주 · 야간반. 1개월완성)
▶ 강사 : 매화역수, 명리학교과서 저자 직강(교재무료)

정통풍수지리 강좌(초 ~ 고급)
패철 사용법을 위주로 관산을 통해서 음택을 터득하고 양택에서는 사무실, 점포, 가옥의 길흉판단, 풍수건강법, 풍수인테리어에 중점을 두고 강의합니다.
▶ 개강 : 2003. 10. 8(매주 수, 목요일. 야간반 : 2개월완성)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자하철 12번 출구)
문의 : 011-307-2975. 02-355-8312

氣찬 명당을 만들어 주는 명당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 처방을 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신비의 황금보물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www.6kibang.co.kr
처방전용 명당육氣방 051)865-9933
氣가막힌 복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36화)

"뿌린대로 거두는 원리(2)"

〈출전 : 중아함경 제3;13도경;1-435상〉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 U대회는 끝나고

이산가족의 '슬픈 추석'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끝났다. 북한을 비난하는 일부의 시위 때문에 소동을 치르면서도 큰 일 없이 끝났다. 광화문 앞에서 인공기를 불태우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향해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많이 당황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언제 참 가국을 향해 이런 모욕을 준 일이 있었던가. 갑자기 북한의 지도자를 가면 쓴 돼지로 묘사한 '똘이장군'이라는 만화영화가 떠올랐다. 보기 흉한 혹을 단 김일성 주석이 북한 주민들을 기계에 넣고 피를 뽑아 먹는 반공회관의 그림도 생각났다.

선재는 나이 들면서 그것이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묘사며 사실은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생각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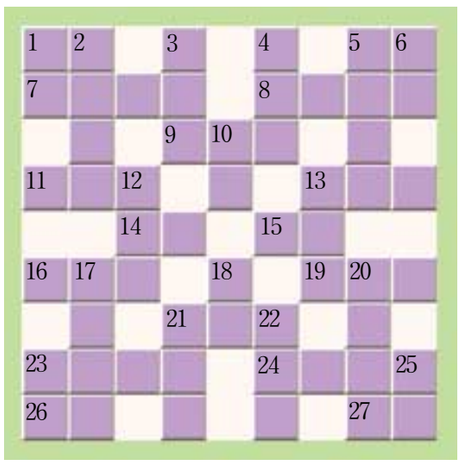
천지 그대로가 나와 같은 뿌리이며 만물 그대로가 나와 일체(一切)여서 천지만물이 나 아닌 게 없다는 불교인의 눈으로 보면 너무 어이가 없다. 천지는 관두고라도 사람을 저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니 말이다. 그들과 선재가 같은 점이라곤 똑같이 '통일'을 말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통일과 선재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우바새계경>에서는 중생을 바라보는 보살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설명한다. "남의 착한 일을 나타내 주고 남의 허물은 숨겨주며, 남이 부끄러워할 것은 알리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듣거든 발설하지 말며, 적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크게 갚으리라 생각하고 자기에게 원망하는 자에겐 항상 선심을 내며, 꾸짖는 자나 와서 때리는 사람을 보거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며, 모든 중생을 부모와 같이 보고 섬겨라."

이제 추석이다. 인공기를 태운 사람도 명절에는 자신의 가족과 친지를 위한 마음을 낼 것이다. 그들이 즐거운 그 명절에도 북한에 가족을 둔 남한의 760만 명은 지금의 현실에 눈물짓는다. 이것이 어쩌면 북한을 감싸안지 못하는 그들의 더 큰 잘못일지도 모른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가로

1. 영광 5. 흰 옷 7. 이름난 산과 큰 내 8. 마음과 마음이 통해 전함 9. 지혜의 밝은 눈 11. 대기의 상태와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13. 전쟁에서 이긴 나라 14. 법문을 들음 15. 괴이한 변고 16. 탁발 하는 승려 19. 어떤 이성을 그리워한 나머지 생기는 병 21. 방생을 하는 연못 23.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 24. 자신이 짓고 자신이 대가를 받는다 26. 구슬과 옥, 값지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비유 27. 초상난 집에 부조로 물건이나 돈을 전하는 일

〈437호 「교리퍼즐」 정답〉

개	선		불		종		청	소
가	재	걸	음		무	상	정	각
	동		주	종	소		법	
교	자	상		조		호	신	술
		염	주		교	환		
호	신	불		도		기	억	력
	수		금	강	저		조	
묘	봉	고	정		울	울	창	창
수	행		산		눈		생	사

세로

1. 밝은 빛 2.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던 자리 또는 그 설법의 모임 3. 별 세계, 속세와는 아주 다른 좋은 세계 4. 천리 밖을 볼 수 있는 눈 5. 백번 싸워 백번 이김 6. 믿지 못하여 이상하게 생각함 10. 중국 선종의 제6대 조사 12. 학문을 연구하는 승려 13. 사물이 생멸변화하는 모양 17. 나쁜 구업을 지은 사람이 받는 지옥고, 보습으로 혀를 가는 고통을 받는 지옥 18. 생물이 태어나는 4가지 형태 20. 4생의 자비로운 아버지, 곧 부처님 21. 미지수에 특정한 값을 주었을 때 성립되는 등식 22. 지방자치제도 23. 도장을 찍을 때 묻혀 쓰는 붉은 재료 25. 뜻을 이룸, 바라던 대로 되어 의기가 오름.

육 법 등 (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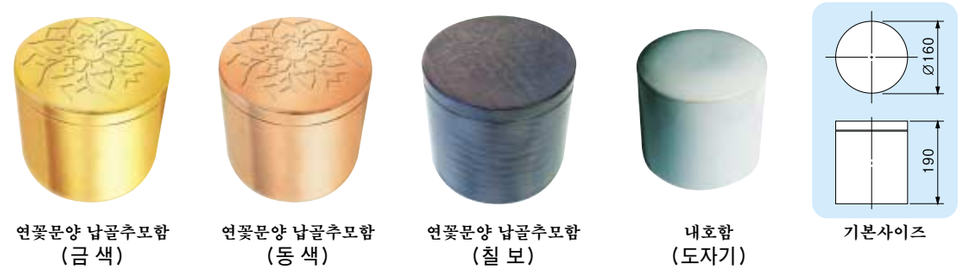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신소재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별도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 내호함 (도자기) |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을 평안하며 안전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추모함 선택은 올바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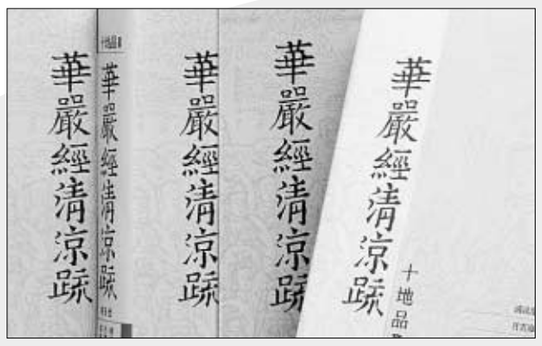
● 납골당이 공원화 되어가고있는 과정에서 문제가발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처럼 가족과 참배하러 왔는데 심한 악취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고 마지못해 참배를 올리던 일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악취나는 유골을 그냥 방치해 두는것이 참된 효(孝)일까요? 이미 악취가 생기기 시작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악취와 벌레까지 생깁니다.
2.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가볍고 강하며 외관또한 미려한 이화사의 납골추모함이 있습니다.
이화사의 납골추모함은 납골당이 붕괴되더라도 강한 견고성으로 고인의 유골이 유실됨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을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하실 수 있습니다.

외관의 문양은 원하시는 문양 또는 글씨를 삽입 할 수 있으며, 문양 삽입후 코팅 처리되어 오래도록 봉안 할 수 있도록 정성들여 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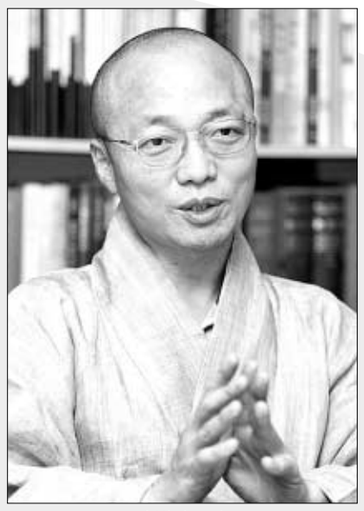
이화사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화엄경 청량소’

반산 스님 옮김

동국역경원 / 각 4만원



◇반산 스님

한글로 읽는 화엄경 핵심

‘세주묘엄품’ 이어 ‘십지품’ 번역
20년 계획 15권 완간 원력

<화엄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참고서인 <화엄경 청량소>의 핵심인 ‘십지품’이 한글로 번역됐다.

청량징관 스님(738~839)이 <화엄경>을 해설해 놓은 <화엄경 청량소>는 통형장자(635~730)의 <신화엄경합론>과 함께 80권 화엄경의 대표적 주석서로 손꼽혀 왔다. <합론>은 탄허 스님에 의해 우리말로 번역되었지만, <청량소>가 번역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책을 옮긴 반산 스님(봉선사 능엄학림 학감)은 지난 99년 1월 출간한 <화엄경 청량소> 1권 ‘세주묘엄품’에 이은 두 번째 작업으로 <화엄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십지품(十地品)’ 1~3권을 택했다. 순서상으로는 ‘보현행원품’, ‘여래현상품’, ‘여래명호품’ 등을 먼저 번역해야 하지만 “큰 산을 먼저 넘는다”는 심정으로 ‘십지품’ 번역을 먼저 시작했다고 한다.

20여년을 계획하고 <화엄경 청량소>를 모두 15권으로 완간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반산 스님에게도 번역 작업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청량소>를 컴퓨터에 한 자 한 자 입력하는데 만도 1년 6개월이 걸렸다. 1권 ‘세주묘엄품’을 번역한 뒤로는 책뿐만 아니라 눈병과도 씨름해야 했다. 매일 8시간씩 5년간 번역한 <청량소>는 200자 원고지로 1만매가 넘는다. 번역된 원고는 일일이 역경원장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의 감수를 받았다. ‘근래에 보기 드문 역경불사(譯經佛事)’라는 평가가 과찬이 아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화엄경 청량소> 번역 작업이 한글세대와 한문세대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반산 스님은 “번역 작업에 물심양면의 도움을 주고 있는 60여 명의 ‘화엄산림회(약칭 화림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화엄경 청량소>를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적묵 스님이 그린 현칙 스님의 캐리커처.



◇현칙 스님(오른쪽)과 재용 스님.

‘산중일지’

현칙 지음

지영사 / 9천 5백원

가난 속 ‘구도의 열기’ 생생

용성·만해·만공 스님 등
당대 선지식 일화도 담겨

1995년 9월 1일, 석남사 주지 스님에게 공책을 한 권 선물 받은 현칙 스님. 공책에 무엇을 쓸까 고민하던 스님은 입산 후부터의 이야기를 일기로 쓰기로 결심하고 제목을 ‘산중일지’라 하였다. “지나간 내 수행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철저히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쓴 이 일지에는 현칙 스님이 출가를 위해 선학원을 찾아가 만해 스님을 만난 1931년부터 1956년까지의 수행 기록이 담겨 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3년 전. <산중일지>가 고서경매전에 출품되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지난 3월 지영사에 입수되어 책으로 나왔다.

<산중일지>는 ‘일지’라는 형식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난이 재산이던 시절’의 산중생활을 현칙 스님의 진솔한 글을 통해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며칠씩 굶기도 하고, 겨울 옷을 얻어 입고 한 철을 나고, 피부병에 걸려도 약이 없어 낫기만을 기다리던 일화를 통해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란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된다. 또한 이 책에서는 현칙 스님이 만났던 용성, 만해, 만공 스님 등 당대 선지식의 면모를 후대인들에 의해 윤색되지 않은 생생한 일화로 만나볼 수 있다.

지은이 현칙 스님은 연희전문 문과를 거쳐 일본 메이지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기독교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가 서른일곱 살 되던 1931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도리사, 복천암, 통도사, 해인사 등에서 참선 수행하다 경북 상주의 직지사 포교원에서 입적했다.

해인사 송월 스님은 부록에 실린 ‘내가 기억하는 현칙 스님’에서 “현칙 스님은 계행이 청정하고 학식이 깊었다”고 회고하며 “<산중일지>는 수행자의 사표를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자료”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종교계 복지현황·과제 서술

‘종교사회복지’

이혜숙 지음

동국대 출판부 / 1만6천원

종교사회복지연구소 이혜숙 소장(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이 종교사회복지의 실제와 현황, 과제 등을 담은 <종교사회복지>를 펴냈다.

지은이는 “종교계는 사회복지 실현에 필요한 거대한 자원의 보고(寶庫)”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실제 사회복지학계나 복지현장에서 종교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미흡하고, 종교계 역시 사회복지의 이론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지은이는 책에서 불교계를 비롯해 기독교, 가톨릭, 원불교 등 각 교단의 사회복지사업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제시하고 있다.



큰스님 행장 詩語로 노래

‘광덕스님 시봉일기’

송암 스님 지음

도피안사 / 8천원

도피안사가 본편 10권, 별편 5권으로 기획·간행하고 있는 <광덕 스님 시봉일기> 여섯 번째 책이 나왔다. 6권 <광덕 스님 시봉일기-새 물줄기> 1장에는 ‘새 물줄기’에는 김영태 동국대 명예교수의 ‘불광운동의 사상과 실천’, 김광식(부천대) 교수의 ‘광덕 연구: 출가·수행·종단 재건’, 김호성(동국대) 교수의 ‘천수반야, 천수화엄’이, 2장에는 ‘스님의 비밀장’에는 송암 스님이 쓴 광덕 스님 시봉일기가 담겨있다. 3장 ‘미륵의 몸으로(시로 읽는 광덕 큰스님 행장)’에서는 불교인권위 대표인 진관 스님이 ‘미륵의 몸 여래의 몸’이라는 시로 광덕 스님의 행장을 읊었다.



회원들 佛緣 동기·수행 소개

‘불교와 수필’

전국 교수불자연합회 지음

우리출판사 / 9천원

1988년 창립한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가 처음으로 수필집을 펴냈다. ‘참 나를 찾는 정진’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는 45명의 회원들이 수필을 통해 불연을 어떻게 맺었는지, 수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강수균(대구대, 법륜불자교수회장) 교수의 ‘불교와 노인의 삶의 질’, 고준화(경기대) 교수의 ‘한국불교 거듭나야 한다’, 박경준(동국대) 교수의 ‘생사일대는 어찌 됐는고’, 이인자(경기대) 교수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굿 디자이너’ 등이 실려 있다. 책 뒷편에는 필자의 약력과 연락처도 담았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비키 매킨지	김 영 사
2	영원한 대자유인	강 정 진	궁 리
3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	우 승 택	장 승
4	더 오래된 과학, 마음	허버트 벤슨 외	여시아문
5	사람	서옹 스님	고요아침
6	영원한 대자유인을 읽고	청봉 스님	경 서 원
7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 공 사
8	파드마 삼바바	백 이 제	민 음 사
9	티베트 금강경	까말라쉴라	도피안사
10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 스님	다 라 니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서울大출신 공학도가 풀어낸 사주의 새로운 개념서

내사주 내가 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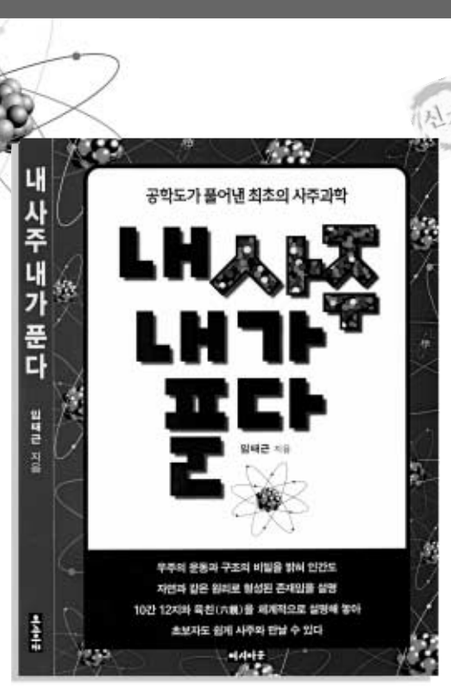
10干 12支는 순환하는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甲木 : 지표를 뚫고 나오는 힘
· 乙木 : 옆으로도 퍼지는 힘
· 丙火 : 밝게 빛나는 광선
· 丁火 : 조용히 타오르는 불
· 戊土 : 광활하고 거친 대지
· 己土 : 부드럽고 낮은 땅
· 庚金 : 거친 원광석
· 辛金 : 정교하게 연단된 연장
· 壬水 : 시원하게 흐르는 물
· 癸水 : 이슬 같은 생명수
· 寅木 : 햇살이 비치는 골짜기 숲
· 卯木 : 꽃이 아름답게 핀 초원
· 辰土 : 바깥은 건조하나 안은 습한 늪지
· 巳火 : 화려하고 번성한 도심지
· 午火 : 불꽃같은 정열의 장소
· 未土 : 문화의 산물을 저장및 중재하는 장소
· 申金 : 물이 샘솟는 구획된 도시
· 酉金 : 결실과 냉철함이 있는 곳
· 戌土 : 낙엽 지고 메마른 땅
· 亥水 : 생명이 숨쉬는 얕은 바다
· 子水 : 고요하고 깊은 바다

- 부시 美 대통령과 남북 정치인 3인의 運은? (실전풀이편에 소개)
- 육친(六親)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이 책은 자연의 순환하는 관점에서 사주를 분석하고 팽창(木火) 과 수축(金水)의 관점에서 중화용신(中和用神)을 설정하여 독자 스스로 운명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조부모 부모 본인과 자식의 4代에 걸쳐 진행되는 대하드라마입니다.



임태근 지음 / 46배판 / 336면 / 값 12,000원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2-1521(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남 먼저 배려하는 '삶'의 행복

'티베트의 아이들'

정희재 지음

꿈꾸는 돌 / 9천5백원



'중국의 침략을 피해 히말라야를 넘다가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없어졌어도 아침마다 중국인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소년.' '모기향을 피우기 전에 사흘 동안 모기들에게 경고하는 청년.' '길에서 만난 벌레 한 마리도 전생에 자기의 어머니로 여겨 소중히 대하는 아이.'

인도로 여행을 떠났다가 그곳에 사는 티베트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매혹된 저자는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다람살라, 데라둔, 따시종, 라다크 빌라쿠피, 훈수르 등 인도 대륙에 흩어져 있는 티베트 정착촌을 찾아, 평생 걸은 것보다 더 많은 길을 걸어다녔다. 그래서 증오와 분노의 독

> **"벌레 한마리도 전생의 어머니로 소중히 모기향 피우기전 사흘간 모기에게 경고"**

을 용서와 자비의 꿀로 바꿔버리고 전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났다. 이 책은 그 감동에 찬 아름다운 만남의 기록이다.

이 가운데 티베트 어린이 마을(Tibetan Children's Village)은 전세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티베트인들의 자치 구역이다. 어느날 저자는 그곳에서 두 달 동안 도보로 중국에서 인도로 탈출해 왔다는 티베트 소년을 만났다.

"티베트 사람들은 달라이 라마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팔을 가진 관음보살의 화신이라 믿는데, 왜 중국의 손아귀에서 티베트를 구하지 않는 걸까?"라고 저자는 물었다. 이에 소년은 "달라이 라마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티베트인과 중국인은 똑같이 소중한 존재예요. 만약 달라이 라마께서 신비한 능력을 보여 중국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티베트의 독립을 얻는다면 어떻게 그가 살아 있는 부처님일 수 있겠어요?"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놀라움과 부끄러움,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뜨거운 기운을 느꼈고 며칠 뒤 아예 짐을 꾸려 티베트 어린이 마을 근처에 숙소를 정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아이들을 찾아갔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졸업생, 망명정부 관리, 학교 앞 구멍가게 주인 등 티베트 정착촌 안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비로소 '말하기'를 멈추고 '듣는' 여행을 시작한 저자는 행복까지도 적에게 양보하고 아무도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티베트인들의 영혼을 온 가슴으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이 책이 온통 티베트 사람들의 찬사로만 가득차 있는 것은 아니다. 7년 넘게 약으로 삶의 허전함을 달래는 다와,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지만 품위를 갖춘 풍각쟁이 소남 등을 이야기 하는 대목에서 타국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며 힘겹게 살아가는 고단한 삶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티베트 어린이 마을 운동장에 걸린 '나보다 당신이 먼저(Others before self)'라는 표어처럼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삶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티베트 사람들의 건강한 정신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보이지 않으면서 가장 소중한 것

'마음'

원성 스님 지음 / 화니북스 / 9천원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단다. 그럼 보이는 것은 무엇인지요? 딱딱한 것, 만져지는 것, 물체, 그것들은 곧 사라질 헛것이지.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 그것을 볼 수 있게 나를 닦고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공부지!'('마음공부' 중에서)

'향기로운 마음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나비에게 벌에게 바람에게 자기의 달콤함을 내주는 꽃처럼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베풀어주는 나눔입니다.'('향기로운 마음' 중에서)

원성 스님은 '동승'이라는 그림을 통해 깊고 먼 산속에 있는 불교를 대중들과 좀더 가깝고도 친근감 있게 소개한 승려 화가이다. 사실 그의 그림은 불교인 뿐만 아니라 개신교와 가톨릭 등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애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스님의 그림이 꼭 불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공통 덕목인 '맑은 심성'을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풍경>과 <거울>에 이어 3년만에 발표하는 신작인 이 책은 바로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마음그릇', '마음청소', '마음그리기', '사랑하는 마음', '정성된 마음' 등 '마음' 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담고 있다. 스님은 이 책에서 우리들 본래의 마음이란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맑은 마음' 이라고 말한다.

살아가면서 맑은 하늘 아래 먹구름이 지나가고 바람이 불고 안개가 끼는 것뿐이지 마음의 본질은 파란 하늘처럼 맑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소 어렵거나 무겁게 느껴질지 모르는 '마음'을 주제로 한다고 해서 이 책이 심오한 진리나 깨달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원성 스님의 고유명사가 돼버린 해맑음과 청아함이 가득한 스님 특유의 천진난만한 글들이 읽는 이들의 마음을 더 단순화시키고 투명하게 해준다. 또 산 속의 풍경, 나무, 새, 달, 별 등을 지면에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수채화같은 99컷의 그림들은 동심과 자연의 세계로 흠뻑 빠져들게 만든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마음의 평화로움', 2장 '마음의 향기로움', 3장 '마음의 여유로움', 4장 '마음의 풍요로움' 등이다.

김주일 기자

전문가 서평



'살아있는 한국사'

이덕일 지음

휴머니스트 / 각 1만6천원

"대륙·해양성의 우리역사 복원"

역사책을 늘 끼고 생활해야 하는 교사로서, 역사가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길 늘 축원하는 만큼 주변에서 만나는 역사책이나, 교과서에 대한 아쉬움을 내뱉는다.

우리에게 역사는 늘 객관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함께 존재했다. 역사를 쓰는 이들은 논란의 소지가 없는 사실을 가장 체계적으로 진술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역사를 보는 이들은 역사가에 의해 도출된 딱딱하고 재미없는 사실을 무조건 암기해야 할 그 무엇으로 여겨왔다. 역사는 살아있었지만, 역사책은 죽어 있었다.

'살아있는'이란 수사가 붙은 새로운 한국통사 <살아있는 한국사>(이덕일 지음, 휴머니스트, 전3권)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살아있는 한국사>는 날날의 사실을 관통하는 큰 그림을 그리게 해 준다. 역사가 과거에 대한 지식의 집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진대, 지금까지

새 의미의 한국통사 …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의 통사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묻는데 늘 게을렀다. 그래서 '고대사는 살아있는 현대사'라고 이야기하는 1권이나, '고려, 대륙과 해양에서 세계를 만나다', '조선, 한국의 전통과 오늘의 한국인을 만나다'와 같이 부제를 단 2·3권은 기존의 통사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에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역사, 그런 역사책은 늘 기다려진다.

살아있는 한국사는 저자가 자신의 역사관을 드러내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한국통사다. 그동안의 통사가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된 것을 건조한 필치로 기술하는 것을 주 임무로 삼아왔다면, 이덕일은 그동안 정설로 여겨졌던 부분 가운데 상당수를 식민사학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단호히 선언한다. 그리고 "우리 역사는 만주 대륙과 일본 열도를 아우르는 대륙성과 해양성의 역사"라고 인식하면서, 고대사에서 조선 후기까지의 역사를 논쟁적으로 기술한다.

1권에서 이덕일은 학계의 정설이란 것이 실상은 식민사학의 굴레 속에 있음을 지적하고, 삼국시대 대신에 열국 시대라 칭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2권에서는 지방의 다양성과 중앙의 전체성이 조화를 이뤘던 고려의 새 모습을 생생히 복원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향할 새로운 미래상을 찾아낸다. 조선 시대사를 다룬 3권에서는 기존의 역사서술이 노론 위주 서술이었다고 논점을 제기한 뒤, 결과적으로 주권 상실로 이어지는 원인을 따져 묻는다.

살아있는 한국사는 저자의 생각이 선명하게 드러난 역사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수많은 사료와 발굴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판단은 독자 자신의 몫으로 던진다. 수많은 1차 사료와 다양한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책을 읽는 또 다른 맛이다.

살아있는 한국사는 생동감 있는 이야기로서의 역사를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이덕일은 기존의 한국통사가 체제와 구조만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역사란 화석화된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드라마여야 한다며 우리 역사의 흐름을 수많은 인간들의 이야기 속에서 녹여냈다.

이미지를 통해 독자의 눈길을 끌고 저자의 생각을 선명하게 기억하도록 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지도와 도표, 사진 등은 보는 책으로서의 역사서가 가능함을 확인시켜 준다.

이덕일은 <살아있는 한국사>를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국통사를 썼다. 1980년대에 중단되었던, 그래서 1990년대 이후 이뤄졌던 역사연구 성과가 반영된 새로운 통사를 기다리던 이들의 갈증을 채워준다. 그러나 '대륙성과 해양성의 조국정신을 복원한다'는 관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정치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된 서술 형식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는 관점에 대한, 통사의 서술 체제에 대한 대중적, 학술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을 반갑게 맞이한다.

■김육훈 / 서울상계고 역사교사

<살아있는 한국사>는 역사학자 이덕일씨(42,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가 20세기 식민사관을 허물고 우리 선조의 대륙성과 해양성을 복원한 대중 역사서다.

화제의 염주
금강염주
소원성취척척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의 강력한 氣기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氣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 하실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연꽃축제기념 행사기간 동안 전화 주시면 3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스님, 불자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란 참으로 어렵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를 보고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찰내 스님은 물론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어다. 위더스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로봇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말하는 영어로봇의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영어는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동원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쪽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쌍방향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다. 영어 학습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청취력" 훈련이다. 청취력을 위해서 라도 가장 중요한 영어학습 법으로 로봇 뉴지니컴이 영어로 한마디 하면 스님께서 영어로 대답해야 하고 스님께서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 지니컴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말을 안 하든가 수정해준다. 영어에 기초가 전혀 없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칩만 바꾸면 누구라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귀부터 트이지 않고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어도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영어로 대화하는 로봇 이름이 뉴지니컴으로 뉴지니컴은 스님께서 1:1로 재미있게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미국 친구와 같다. 영어로 말하는 뉴지니컴은 전면에 LCD창을 통해 에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누구나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것이다.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할도 할 수 있다.

몸체 전면에 설치된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한글 자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LCD형 영어로봇 '지니컴'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9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이드



삼취정계

부파불교시대에는 각 부파에 따라, 각각 자파의 입장에 따라 의지하는 율전의 차이가 있었듯이, 대승불교에 들어오면 대승불교운동가들의 신념 내지 운동 지역에 따라 의지하는 계율에도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대승불교로 대변되는 많은 대승경전들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이념을 추구하던 사람들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인도 전역에 걸쳐 독자적인 특징을 보이며 발전한다. 공통의 이념이 있다면 6바라밀에 입각한 보살사상이었으며, 계율은 적어도 십선계를 수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초기대승불교시대의 마감과 중기대승불교시대로의 발전은 계율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대승불교운동의 시작은 재가자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이어서 대승불교운동에 동참하는 출가자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출가자들의 참여는 대승불교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층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출가자와 재가자가 지키는 계율이 다른 점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출가를 했다는 것은 250계를 이미 수지했다는 의미이다. 재가자는 250계를 수지하지 않고, 5계나 십선계에 의지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럼에도 대승불교의 이념에 공감하고, 보살사상을 실천하는 일에는 함께하는 출가자가 등장했던 것이다. 출재가 사이에 이념은 하나였지만 사회적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지켜야하는 계율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출가자가 250계를 버린다면 그것은 환속을 의미했다.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계층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삼취정계(三聚淨戒)는 대승불교가 전개되어가는 과정에서 출가자와 재가자 계층을 하나의 이념으로 묶어 주기 위해 등장하는 것으로 본다. 우선 삼취정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보기로 하자. 삼취정계는 세 가지 성격의 계율을 모두 포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섭율의계, 섭선법계, 섭중생계가 그것이다. 여기서 섭율의계는 악을 방지한다는 의미의 지악문이라고도 말한다. 출가자들이 지켜야할 계율뿐만 아니라 십선계, 5계, 10중 48경계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결국 계율이란 사회적인 악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석한다. 반면 불교교단사의 입장에선 출가자들을 포용하기 위해 시설된 것으로 말한다. 두 가지 주장이 모두 틀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섭선법계란 다른 말로 수선문이라 표현한다. 선을 닦는 방법이란 의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몸과 입과 마음에 걸쳐 일체의 착함을 실천하게 만드는 계율이다. 섭중생계란 다른 말로 요익중생계라고 부른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시설된 계율을 지칭한다. 자비심을 바탕으로 일체의 중생을 가엾게 여기고 그들을 안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보살행이 그것이다.

여기서 섭율의계는 소극적으로는 악을 방지하는 지악문이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악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도 하다. 섭선법계는 착함을 실천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섭율의계와 섭선법계를 합쳐서 스스로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의 자리문(自利門)이라 말한다. 섭중생계는 중생을 섭수하기 위해 보살행 내지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의 이타문(利他門)이라 말한다.

자리와 이타는 대승불교의 핵심이다. 이것은 위로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한다고 표현한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자리이며,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이타이다. 삼취정계에서 말하자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섭율의계와 섭선법계를 지켜야 한다. 동시에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실천이 필요하다.

삼취정계는 대승보살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계율로 강조되고 있다. 행동거지와 생각을 조심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계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여 그들을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삼취정계를 순서에 입각하여 설명했지만 그것은 단계적인 것은 아니다. 동시적일 수도 있고, 개별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섭중생계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섭하고, 포용한다는 의미에서 섭이란 접두어를 공통으로 사용한 것이다.

계율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5계, 십선계, 250계를 지녀 자신을 청정한 생활로 이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회향이 없다면, 어떻게 회향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제자들 각자가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실천하면 될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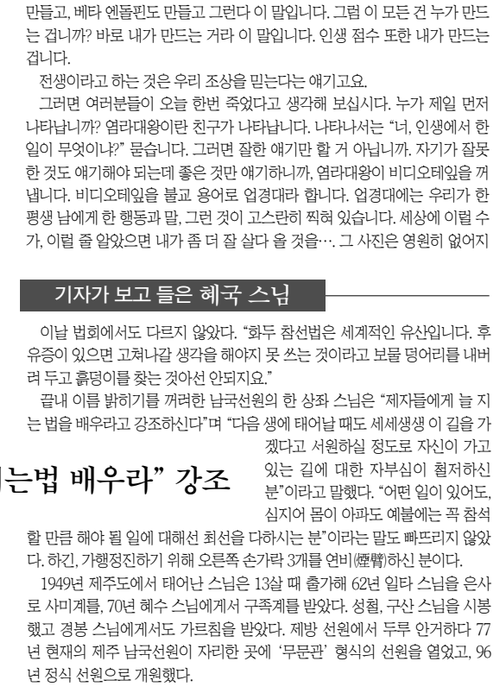
악행 멀리하고 선행으로 중생구제
대승보살 반드시 지키는 계율로 강조

지상 백고좌

혜국스님

(제주 남국선원 선원장)

내 인생 점수로 매길때
전생·금생·내생 따져야



◇"해야할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는 혜국스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면, 즉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자신은 과연 몇 점짜리 어머니이고, 몇 점짜리 아내이고, 몇 점짜리 남편인가. 즉 몇 점짜리 인생인가?

요즘은 건강 문제에 관심들이 많지만 오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내 마음 건강이 몇 점일까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듯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내 점수를 얼마만큼 높이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오래 사는 것만 가지고 말한다면 그건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몸뚱이 건강을 얘기할 때 스트레스를 예로 많이 듭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건강이 그렇게 안 좋다는 얘깁니다. 늘 불안하고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머리 속에 있는 뇌에서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우울증이라든지 짜증나는 그런 기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문밖에 나와 보지도 못 하는 환자도 있는데, 나는 내 눈으로 저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내 귀로 새소리 매미소리 음악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니 참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마음을 넓게 쓸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옵니까?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드레날린이 나왔든 베타 엔돌핀이 나왔든 그것을 누가 만드는 거냐? 자기 자신이 만든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내 한 생각이 뇌에서 아드레날린도 만들고, 베타 엔돌핀도 만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모든 건 누가 만드는 겁니까? 바로 내가 만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인생 점수 또한 내가 만드는 겁니다.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을 믿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염라대왕이란 친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너, 인생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러면 잘한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염라대왕이 비디오테잎을 꺼냅니다. 비디오테잎을 불교 용어로 업경대라 합니다. 업경대에는 우리가 한 평생 남에게 한 행동과 말, 그런 것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잘 살다 올 것을…. 그 사진은 영원히 없어지



◇최근의 '간화선 위기론' 과 관련, 혜국스님은 "화두선에 대한 근거없는 분별 · 망상을 그만두고 발심부터 하자"고 당부한다.

제자들에게 "늘 지는법 배우라" 강조

9월 1일 불교TV 무상사 큰스님 초청 특별 법회에서 처음으로 혜국스님을 친견했다. 원래는 이 법회에서 선원장 스님들을 한 번 모시려고 했는데 대부분 고사하셨다고 한다. "고사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나 같이 모자라서 대중 앞에 자주 나서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 남국선원으로 전화를 했더니 한 스님이 "요즘 간화선에 대해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이 많아 한 마디라도 더 바른 얘기를 해 주기 위해서 자주 나서시는 것으로 안다"는 말을 전했다. 순간, 올 봄 실상사에서 열린 선우논강에서 '간화선이 흔들리면 한국불교가 흔들린다' 며 간화선 수호의 단호한 입장을 밝히던 모습이 겹쳐진다.

기자가 보고 들은 혜국 스님

이날 법회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화두 참선법은 세계적인 유산입니다. 후유증이 있으면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못 쓰는 것이라고 보물 덩어리를 내버려 두고 흙덩이를 찾는 것아선 안되지요."

곧내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남국선원의 한 상좌 스님은 "제자들에게 늘 지는 법을 배우라고 강조하신다"며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세세생생 이 길을 가겠다고 서원하실 정도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자부심이 철저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몸이 아파도 예불에는 꼭 참석할 만큼 해야 될 일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하긴, 가행정진하기 위해 오른쪽 손가락 3개를 연비(燃臂)하신 분이다.

1949년 제주도에서 태어난 스님은 13살 때 출가해 62년 일타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70년 혜수 스님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성철, 구산 스님을 시봉했고 경봉 스님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제방 선원에서 두루 안거하다 77년 현재의 제주 남국선원이 자리한 곳에 '무문관' 형식의 선원을 열었고, 96년 정식 선원으로 개원했다.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보현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보현스님

세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보현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옛된 여승을 바랑을 짊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 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를 전하고 그들의 찌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출가 후 줄곳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반 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안양의 000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고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달마 6폭병풍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 현 사 보현스님 합장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신과 중영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기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기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기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기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영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기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현재의 신년 周易의 神秘

육효학 핵심비결

송월스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전국 서점 판매중!
神과 靈이 통하는 학문. 육효학을 알면 운명이 바뀐다



송월 스님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30,000원

동양철학은 동방문화의 기틀이요, 사회선도의 지표이다.
육효학은 음과 양 二元의 원리 즉 주역을 본바탕으로 사상팔괘, 육십사괘, 삼백팔십사효를 응용하여 우리생활에 적절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육효학이란 동서고금을 통하여 점서(占書)로써는 가장 적중률이 높은 학문이다.
이 책을 접하는 모든이는 물론이요, 운명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이는 보배 중 보배가 될 것이며 허전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15,000원(大)
신국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
신국판 / 양장본 김용식 저 / 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 / 이선암,전호일 공저 / 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 / 양장본 / 송월스님 지음 / 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 / 양장본 / 申坤 /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 哲學博士 /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 哲學博士 /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 / 백광 지음 /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 / 양장본 이상욱 지음 /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 / 양장본 진상백 저 /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 김윤중편저 / 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 양장본김성진 저 /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실록과 대백과
신국판 / 정현우저 / 정가 17,000원
17. 명가중가의 가상학 비결
신국판 / 김용식 저 / 정가15,000원
18.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 / 양장본 / 문길여 著 / 정가 25,000원
19.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 / 양장본 / 박봉주 著 / 정가 25,000원

다시 풀어보는 구성학의 사주풀이

문길여 선생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국내 최초의 역학 지침서

구성학이란 우주의 돌고있는 氣力을 이용하여 우리의부족한 운을 보충시키므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구성학을 알면 운명을 알고 운명을 알면 용운을 길운으로 바꾸어 모자라는 기를 보충시킬 수 있다.

◆ 구성학의 비밀을 소개한다
1. 점생이 역술인 무속인의 운명
2. 자식이 없거나 아들이 없는 여자의 운명
3. 결혼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여자의 운명
4. 가정의 변화 직업의 변화가 많은 여자의 운명
5. 부동산 4화 4의 대충의 운명
7. 일백에서 구자까지의 뜻



문길여 著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신/양장본
값 40,000원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 B/D 3층 T.921-8434 F.929-3470

내 '마음의 건강' 은 몇점? 영혼위해 얼마 투자했나…



◇혜국스님은 '내생에는 지옥중생을 구제하고 싶다' 는 서원을 밝힌 바 있다.

지 않는 사진이고, 어느 생에 가더라도 정신적인 세계에서 결혼할 적에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린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염라대왕이 지옥행과 극락행을 결정할 때 그 점수를 보고 하는데, 30점 미만짜리는 지옥으로 가고 70~80점이 넘은 사람은 극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40점쯤 되는 이게 문제입니다. 50점만 넘으면 인간 세상 중에서도 좋은 데로 태어나는데, 40점쯤 되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려니 점수가 약간 아깝고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려니 이게 또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묻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수 있는 부모는 저 부모, 요 부모, 이 부모밖에 없습니다. 점수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다면 그건 내가 원한 것이 됩니다. 내가 원한 거다 하고 내버려 두면 그건 운명론이고, 내가 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해서 운명을 바꾸는 것을 인연법, 불교에서 운명을 개척하는 법입니다. 곧 인생 점수를 바꾸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천상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고, 참나가 누구냐 하는 실상론, 실체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체론에 들어가려면 인간들의 언어를 가지고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음양존자가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한 물건도,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어찌 해야 합니까?" 하니까 "놓아버려라" 했습니다. 놓아버리는 것을 내 마음 관리한다, 내 마음을 길들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온 인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욕망이 하자는 대로 살아왔지 내 마음, 내 영혼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투자했나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염라대왕이 당신은 점수가 안 되니 요런 데로 가라고 하니까 "이번에 이 지구상에 가면 정말로 점수를 60점, 70점으로 올려서 오겠습니다" 하고 크게 맹세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다짐을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그 다짐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다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화두' 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극락으로 가겠느냐' 물었을때

"내마음의 고향에 가겠습니다"

답할수 있는 당당한 불자되세요



자, 여러분들 바다에 한 번 가보십시다. 바다에 가 보면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데, 바닷물이 우리 마음의 세계라면 파도는 망상입니다. 그럼, 그 파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닷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닷물에서 나온 거라고 해서 파도가 곧 바닷물이요, 바닷물이 곧 파도이기 때문에 다짐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이대로가 부처니까 안 해도 된다? 깊은 잠 속에만 가도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그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파도가 없어집니까? 바람이 끊어져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바람이라면 뭡니까? 탐 · 진 · 치 삼독에서부터 108번뇌를 바람이라고 합니다. 108번뇌를 무념, 즉 아무 생각 없이 바람이 끊어진 잔잔한 바닷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말아버릴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 내 인생 점수가 몇 점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부터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볼 게 아니라 나 한 번 다스려보자, 내 마음 한 번 다스려보자. <금강경>, <법화경>, <원각경>에 나왔듯이, "부처님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내 마음을 이겨내야 됩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길들여야 됩니까. '응여시주(應如是住) 여시항복기심(如是降伏其心)이니라." 그리고 저녁에는 지지지지~ 소리가 날 때까지 텔레비전을 볼 게 아니라 아홉시, 열시가 되면 딱 끄고 앉아서 30분 정도 자기 자신이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하고 화두 참선을 하든지, 염불을 하다가 잠자리에 들어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갈 수 없고 어제로 돌아갈 수 없듯이, 오늘 하루 잘못 산 것은 영원히 잘못 산 것으로 남기 때문에 텔레비전 연속극 좀 적게 보고 내 마음의 점수 한 번 올려보자 이 말씀입니다. 화두 참선을 해서 마음 수행을 하든지, 염불을 부지런히 하든지. 아니면 남이 내 마음에 맞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남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들 해,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맞고 있는가. 항상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마음의 점수는, 인생 점수는 올라가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바로 멀리 있는 관세음보살을 찾기보다 내 마음에 있는 '화두' 라는 관세음보살을 깨우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고 또 성취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겠느냐 연화대로 가겠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런 데 안 가요. 내 마음 고향 갈 겁니다" 하고 염라대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런 부처님 법을 믿는 불자들이여, 항상 긍지를 가지고 당당한 불자의 길을 갑시다.

정리=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진명스님의 스님이야기

혜은스님

로버트 풀검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해라, 네가 어지럽힌 것은 네가 깨끗이 치워라. …"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실천하기 힘든 일이다. 세간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며 기본으로 행해야 하는 것을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이라면 우리 출세간에 사는 수행자들은 초심시절인 행자시절과 학인시절에 배우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나에게는 초심을 다지고 평생 수행자로서의 길에 나침반을 제시한 어른이 계시다. 청도 운문사 문수선원장으로 계시는 혜은스님이다. 스님과의 인연은 오래 전 행자시절부터다. 이름난 나한기도 도량인 사리암에서 원주소임을 보던 때였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스님을 잘 표현해 준다고 할까. 작은 체구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아마 공심으로 살아오신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산 중턱에 자리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리암 중창불사를 원만히 회향하고 운문사 주지 소임을 역임하셨다.



그림 · 문병성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수행자의 말과 행동은 그 수행자가 품고 사는 사상의 표현일 것이다. 내가 운문사 강원에 입학하기 전이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내면에 크고 작은 갈등을 품고 있었고, 승가공동체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 알량한 분별심 때문에 강원에 가기 싫어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조용히 부르셨다. 아랫사람이 견책 받을 만한 잘못을 했을 때 스님은 항상 나지막하게 타이르셨다. 부처님 말씀이나 선사스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들어 이해를 시키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시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당신 수행생활에서 얻은 지혜로운 말씀은 설득력이 있었다.

"진명아! 선지식은 항상 역순의 경계에 함께 있단다. 순경계의 선지식 보다는 역경계의 선지식이 네가 반듯한 수행자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데 좋은 거울이 될 것이고 너를 단단한 수행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강원에 가면 모든 대중스님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하심하고 인내하며 살도록 해라. 그것이 수행자로 살아가는 첫째 조건이다" 라고 하셨다. 오직 부처님과 역대 선사들처럼 반듯한 수행자만 좋은 선지식이라고 생각했던, 아직 마음이 어린 나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었다. 어떻게 언행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선지식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했다. 강원에서 많은 대중이 부처님처럼 보이고 역경계가 '참선지식' 이라고 느낄 때 나는 비로소 스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실감할 수 있었다.

"스님, 대중을 부처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더니 오히려 "네가 그렇게 알아 들어주니 고맙다" 라고 하셨다.

한참이나 어린 아랫사람이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고, 조용하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스님의 성품은 인자하신 수행자 그 자체다. 휴지 한 장도 아껴 쓰고 주인 없이 흘러가는 물도 함부로 넘치게 쓰면 안된다고 하시는 혜은 스님은

시주물 아껴쓰고 남돕기 '우선'

누구에게나 존대…후학들에 귀감

시은(施恩)을 대할 때는 누구보다 엄격하셨고, 작은 토굴에서 공부하다 도움을 청하는 스님들이 있으면 소리 없이 보살피셨다. 운문사 주지 소임을 보고 계실 때 어느 정월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소임을 수행하시는 틈틈이 사경을 하고 계셨다. 마음밭을 갈고 계시는 당신 생활의 질서가 농부의 손길에 잘 정돈된 밭이랑 같으신 분이다.

스님은 어느 해인가 암 진단을 받아 그동안 두 번씩이나 대 수술을 받으셨다. 두번째 수술을 받고 빠르게 회복을 하시고난 후 남은 생은 덤이라고 최선을 다해 사신다고 하셨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크고 작은 병마에 시달리며 살기 마련이지만,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암이라는 병마를 거뜬히 물리치고 지금도 문수선원에서 대중들과 함께 죽비소리에 따라 앉으시는 여여 하신 스님의 모습은 후학들의 귀감이 되는 선지식의 모습 그대로다.

진명스님은 1983년 운문사로 출가, 84년 정심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운문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선학과를 수료했다. (사)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장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방송의 '차 한잔의 선율' 을 7년째 진행하고 있다.

대구 대승불교대학 · 정토사

범음 · 범패 수강생모집

대승 불교사상의 진수를 배울 수 있는 열린 기도전법도량
대승불교대학에서는 불교의식 전반에 걸친 강좌를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스님 및
일반 재가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강의내용
▶ 기초과정(3개월) : 도량석, 아침종성, 예불, 상강례, 사시불공, 신중기도, 지장불공
▶ 전문과정(1년) : 관욕, 대령, 전시식, 관음시식, 시다림 의식, 구병시식, 예수재 의식
▶ 기타강좌 : 천수바라, 나비춤, 북다루기, 경쇠, 징, 목탁 치는 법 등

강의장소
▶ 대승불교대학 3층 법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월촌지하철역 사거리)

개강일시
▶ 2003년 8월 말(수시모집)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4시간) 전문반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3시간) 기초염불반

대승불교대학 중무소 전 화 053)622-0333
휴대폰 011-699-9120

불교의식(범음 · 범패)
제 2기생 학인모집

본 대구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초종화를 막론하고 불교의식 염불, 또는 범패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스님)은 물론 현재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임 또는 법사님께서도 본 교육원을 이수하신 후에는 아무런 불편없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과 정

▶ 의식 초급반(3개월) 주 2회 강의 (매주 월, 화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 (새벽 도량석, 종성염불, 상단새벽예불, 저녁예불, 아침송주, 저녁송주, 상단불공(재불통청), 신중퇴공, 행선축원, 불공축원, 관음시식, 배송, 사미율법 및 초발심 자경문
▶ 의식중급반 (5개월) 주 2회 강의(매주 수, 목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 시련절차, 천도, 49제 재공편, 전점안법, 설교의식, 시왕불공, 시식, 배송, 다비편, 방생의식, 불상 및 탱화 점안법, 예수재의문, 구병시식 등
※ 재장엄번설치법, 령가축원문작성법, 위패, 지의, 전, 작성법
▶ 작법반 : 일반(5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일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2시간)
속성(2개월) 주 1회지도(매주 금요일) 시간 : 오후 1시 ~ 4시 30분(3시간 반)
● 종 목 : 천수바라, 도량게(나비춤), 사다나니(가지게) 화의재진연바라
▶ 역학반(10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수요일)
● 강의시간 : 오후1시~3시 (2시간) ※ 특별강사초빙
▶ 사물특강반 내용 : 태징, 광쇠, 북치는법(천수북, 정근북, 장엄염불북, 요잡쇠)
● 기 간 : 3개월 주 1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2시간)
▶ 속성반 : 의식, 작법, 사물(짧은 기간에 이수하실분은 별도 등록 요함)

대구불교의식 법음 · 범패 교육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7-14(2층)
원장 주동주(동현) 합장 ☎053)955-7725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중앙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견사된 사계절 상품 40%할인판매



퇴마승 혜원

영험 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초의선사 다례재와 다맥전수식

茶聖의 가풍 엄격하게 잇는다



◇한국선다회가 개최한 '초의다맥 전수식'에서 백운 스님이 전수증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한국 차문화의 중흥조인 다성(茶聖) 초의(1786~1866)선사의 기일인 8월 29일.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경남 하동 쌍계사에 차인들이 모여들었다.

최근 발족한 '초의다맥 한국선다회(회장 안광석, 이하 선다회)' 회원들이 초의 선사의 기재를 맞아 우리나라 전통 차문화와 차맥을 이어가기 위한 '초의선사 추모 다례재'와 '초의다맥 전수식'을 열기 위해 모인 것이다. 선다회는 초의 스님의 다맥을 공식적으로 전수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고산 스님(쌍계사 조실)이 고문을, 백운 스님(초의다맥 5대 전수자, 부산 미륵암 주지)이 자문위원을, 전각가 안광석 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오전 10시. 가사 장삼을 수한 스님들과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차인들이 대웅전에 모였다. 정성스레 달인 차를 초의선사 영정에 올리며 시작된 다례식에는 조유행 하동 군수를 비롯한 100여 명의 차인이 참석해 초의 스님의 차 정신을 기렸다.

다례재 후에는 다담(茶談)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백운 스님은 "오늘날 우리나라 차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진정한 차문화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지켜나가려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초의선사의 차정신인 '선다일미(禪茶一味)' 사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오전 11시. 쌍계사 대웅전에서는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증명법사로, 초의다맥 5대 전수자인 백운 스님을 전수사로 '초의다맥 전수식'이 거행됐다.

초의선사 다맥 공식 전수 의의
동진스님등 30명 6대 인정

이날 전수식에서는 쌍계사 주지 우담 스님과 백련차문화원을 이끌고 있는 동진 스님(망월사 주지)을 비롯해 종정다례원 이정애 원장, 고세연 차종가 고세연 원장, 가례원 설옥자 원장 등 원로 차인 30여 명이 6대 다맥 전수자로 인정받았다. 전수사 백운 스님은 "이번 전수식은 초의 스님의 차맥을 공개적인 증명과 전수를 통해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마련됐다"며 "수행 생활 속에 차를 마시며 차인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행사의 집행위원장 지환 스님(전 조계종 감찰부장)은 "조만간 선다회를 법인으로 등록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5월 21일 '차의 날'을 기념해 차맥 전수식과 차문화 축제를 쌍계사에서 개최할 것이다"고 밝혔다.

쌍계사=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가례원 설옥자 원장이 초의 스님께 올릴 차를 달이고 있다.

'초의다맥'이란

초의스님 '차정신' 계승
일부 "정통성 독점 우려"

사실 '다맥'이란 어휘로 차문화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잊혀져가던 우리 차문화를 찾아내고 이를 발전시킨 초의 스님의 뜻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시대의 흐름 속에 엄연히 존재했다.

이러한 '다맥'은 초의의순 스님에 이어 2대 전수자인 여암선기 스님, 3대 쌍수일한 스님, 4대 응송영희 스님에게 이어져 왔다. 4대 응송 스님은 백운 스님과 금당 최규용(2002년 입적) 씨에게 다맥을 전수했다.

지난 2000년 대흥사에서는 백운 스님이 전수사로, 1차 전수식이 비공개로 열렸다. 이 때 여연 스님(일지암 초의차문화원장)과 도형 스님(전 대흥사 주지), 지환 스님(전 조계종 감찰원장), 법조 스님(대구 지장암) 등이 백운 스님으로부터 다맥을 전수 받았다.

'초의다맥 전수식'은 5대 백운 스님이 초의 스님의 다맥을 공식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선다회가 다맥 전수자 모두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못하고 있고, "'초의다맥'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정통성을 독점하려 한다"는 차계 일부의 주장 등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해인사 다경원 차 수련법회

해인사 승가대학 다경원은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2003 가을 차문화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법회는 입재식에 이어 여연 스님의 차문화 강의, 향기를 찾는 사람들 박희준 대표의 전통향 강의, 소설가 정동주 씨의 '불교와 한국의 차살림' 강의, 마애불 헌다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차와 불교문화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비 4만원.(055)931-1016

제주 2003 국제차축제 개최

'2003 국제차문화축제'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목 관아지에서 펼쳐진다. 제주도다도협회와 (사)한국다도협회 서귀포지부가 '다도정신을 통한 인류의 평화와 복지향상에 기여'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일본의 우라센케 다회, 중국 천복재단, 대만의 천인다예문화기금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064)733-0061

일시		행사내용	장소
9월 19일	13:00~15:00	들차회	제주컨벤션센터
	15:00~17:00	다례시연	
	18:00~20:00	환영의 밤	
9월 20일	10:00~10:50	개회식	제주컨벤션센터
	11:00~12:00	전통문화시연	
	13:00~15:00	들차회	
	18:00~20:00	교류대회	
9월 21일	13:00~15:00	들차회	제주목 관아
	15:00~18:00	다례시연	
9월 22일	10:00~14:00	세미나	사무국

차맥 지킴이



이정애

(종정다례원 원장)

전통의 맥을 올곧게 지켜나가는 집안을 우리는 종가(宗家)라고 부른다. 1975년 향우회(香友會)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30여년을 차문화 보급에 매진하고 있는 종정다례원 역시 '차의 종가'라 불릴 정도로 우리 차문화 전통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종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정애(79) 원장. 종정다례원의 전국 13개 지부에 소속된 회원만도 줄잡아 1천여 명에 이른다.

"1980년대 초반, 서울에서 한창 우리 차문화 찾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때였습니다. 당시 차를 배우던 저에게 효천 스님이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에 차문화를 보급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습니다."

20명 남짓 활동하던 향우회는 이후 '종정차회'로 이름을 바꾸고 지부 설립에 나섰다. '종정차회'라는 이름은 얼마 전 100세의 나이로 타계한 금당 최규용 선생이 차의 종가가 되라는 의미로 붙여준 호 '종정(宗貞)'에서 비롯됐다.

"당시만 해도 정식 다도구나 다법은 찾아보기 힘들었지요. 그때부터 여러 사찰을 다니면서 찻잔 놓는 법, 차 정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다례가 정립된 후에는 일본인 이시구레 모도애 씨와 만나 한·일차문화교류의 물꼬를 텄다. 1985년 이후 매년 한국와 일본을 오가며 한·일친선문화교류회를 개

전국 13개 지부 1천여 회원
한·일 교류등 해외홍보 앞장
'주인정신' 잃지 말 것 강조

최했고, 다례시연과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또한 1991년 미국 하와이주립대학 한국전통 다도시범, 1994년 경주 흥륜사 신라불교 순교자 이차돈성사 추모제 등에 참가해 한국 다도 알리기에 앞장섰다.

종정다례원의 그동안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선류 신라차 다법'을 연구·개발해 낸 것이다. 1992년 12월, 부산여성문화회관에서 처음 선보인 이 다법은 신라 화랑들이 수련과정에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차를 마신데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원장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81년 일본 총편류 다도 교수증을 취득했고, 1994년에는 한국차인연합회 다도대학원을 수료하는 등 '배움'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탓일까. 이 원장은 문하생들에게 '주인정신'을 잃지 말 것을 항상 강조한다. "차 마시는 순간만 차인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예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차인이다"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기 때문이다.

매년 6월 9일과 12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문하생을 배출하고 있는 종정다례원은 조만간 법인을 설립해 활동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차는 마시면 마실 수록, 배우면 배울 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요즘 일부 차인들은 몇 년 정도 차를 해 놓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인에게는 항상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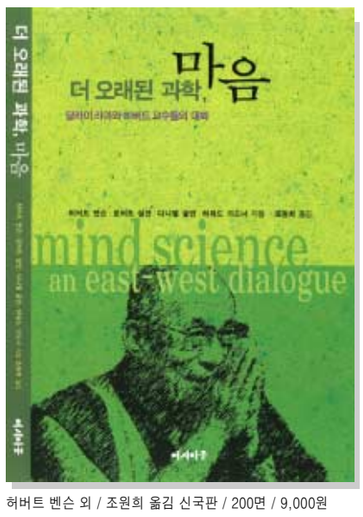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명상은 몸과 마음 건강에 큰 도움... 미국인 천만명 '명상 붐'
- <타임>지 최근호 보도

마음
더 오래된 과학,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타임>지 최근호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 행동의학과 허버트 벤슨 박사등이 연구한 명상할 때의 뇌상태 결과를 소개하는 등, 명상이 심장병, 암등의 만성적인 난치성 질병의 고통을 예방하거나 완화한다고 소개했다. 또 우울증, 주의력 결핍증 등 심적 불균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명상요법이 널리 활용

된다는연구결과도 소개하고 있다.
하버드 의대를 대표하는 허버트 벤슨 박사등 하버드 석학들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 마음과학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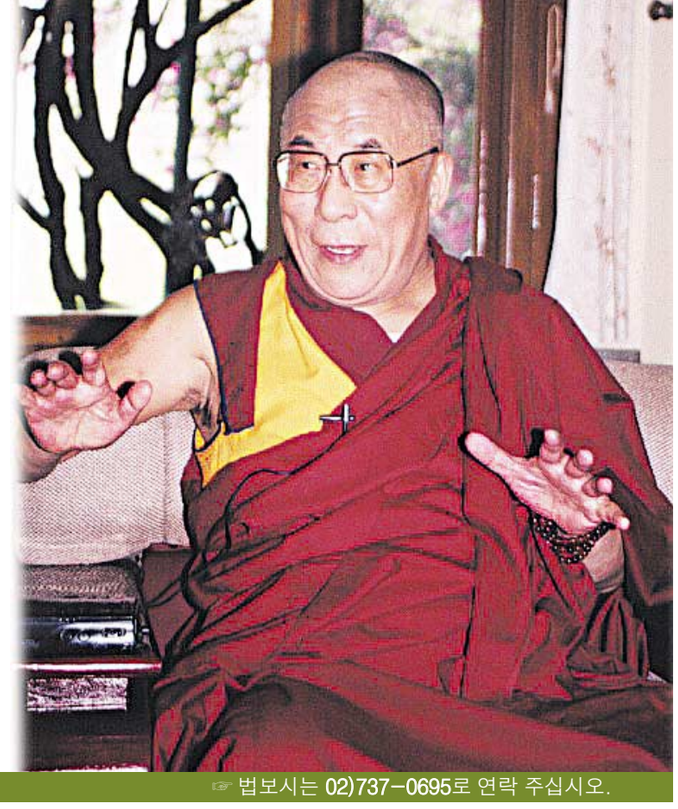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달라이 라마

" 마음은 정신적 사상들이 상호 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mind science

☞ 법보시는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

불교방송 '다시 듣고싶은 노래' 장수·인기 비결

"이심전심 傳法 프로그램이죠"

제30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불교방송의 '다시 듣고싶은 노래'의 제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박홍열작가, 김병조 MC, 한지윤PD.

배추머리 노래방 코너 모든계층서 사랑
"언젠가 평양에서 공개진행하고 싶어"

불교방송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담당PD 한지윤, 진행 김병조, 작가 박홍열)'가 9월 3일 KBS 홀에서 열린 '제 30회 한국방송대상'에서 연예오락 라디오 작품상을 수상했다.

방송을 맡은 11년 동안 "늘 절에 간다는 마음으로 한번도 방송을 거른 적이 없다"는 김병조 씨는 "제작진이나 진행자의 마음가짐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도 전달된다고 생각해 즐겁게 프로그램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청취자 분들도 늘 유쾌하게 듣는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심전심(以心傳心) 프로그램인 셈이죠"라고 말했다.

'다시 듣고 싶은 노래'의 코너 중 일등공신은 매주 월·금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배추머리 노래방'. 참여 신청을 위한 전화가 끊임없이 울려댈 정도로 종교와 상관없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코너다.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중·장년층만이 참여할 것 같지만 '부모님이 애청하는 프로'라며 청소년부터 대학생 등 젊은 세대의 참여도 두드러진다. 이를 두고 김병조씨는 "이 코너야 말로 훌륭한 불법홍포의 장입니다. 포교란 다른 것이 아니고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전법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포교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또 "언젠가는 반드시 평양에서 '다시 듣고싶은 노래'의 공개방송을 진행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1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5~6명의 PD들이 거쳐가면서 흘러간 옛 노래를 틀어주는 프로그램이지만 젊은 세대와의 공감을 위해 최신 유행곡도 과감히 방송하는 실험적인 시도도 있었다.

한지윤 담당 PD는 '다시 듣고…'가 장수프로가 될 수 있는 힘을 "이전부터 이 방송을 거쳐간 선배 PD들의 노고 덕택"이라며 "가장 든든한 힘은 바로 청취자분들"이라고 말했다.

5년 째 '다시 듣고…'를 맡고 있는 박홍열 작가도 "앞으로 이 프로가 계속되는 날까지 작가의 자리를 지키고 싶다"며 강한 애정을 내비쳤다. 세 사람은 "언젠가 평양에서 '다시 듣고 싶은 노래'의 공개방송을 진행해보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우리곁에 다시온 라이파이

김산호 화백 만화박물관서 전시회

'라이파이'. 제법 만화나 에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신세대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다. 하지만 50대 정도 되는 세대들에게는 인기가 높았던 만화제목이다. 만화가 김산호씨(64)가 59년부터 62년까지 총 4부작 32권 시리즈로 선보였었다.

올드 만화팬들에게는 향수가 되어버린 '라이파이'가 11월 30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전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라이파이'의 원본과 화보, 메카닉 디자인 등 90여점이 팬들과 만난다.

'라이파이'는 22세기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SF 만화. 주인공인 라이파이는 광속보다 빠른 우주선 '제비기'를 타고 지구와 우주를 누비며 지구를 위협하는 적을 무찌른다는 내용이다. (032)661-3745~6, www.rayphie.net 김주일기자



◇1969년에 발표된 SF만화영화 '라이파이'.



◇네 부처가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조선불화 '사불회'.

지옥과 극락은 어떤모습?

영혼의 여정-조선시대 불교회화 만남展

사후에 맞게 되는 내세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쯤 이런 궁금증을 품어봤던 이들이라면 국립중앙박물관이 10월 5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고 있는 '영혼의 여정-조선시대 불교회화와의 만남' 특별전에 가보자. 조선시대 불교회화에 나타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아름다움은 물론 사후 세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보물 제 1326호 '사여래도(四如來圖)'를 포함한 지정문화재 3점을 비롯해 조선초기의 사경, '태고사 시왕도(十王圖)'와 '영취사 영산회상도', '감로탱화', '아미타극락회상도(阿彌陀極樂會上圖)' 등 지옥에서 극락에 이르는 장면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40여 점의 다양한 불화와 불교 장엄구 등이 선보인다.

이 전시는 한마디로 우리가 사후에 겪게 되는 '영혼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다. 저승사자와의 만남에서부터 극락으로 인도되기까지의 과정을 불교회화를 통해 '영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한

저승가는 길·심판 등 5주제 40여점 선뵈

것이다.

특별전은 저승가는 길, 죄의 심판, 자비와 구제, 수행과 염원, 극락등 다섯 주제로 나뉘어 전시된다. 저승가는 길 부분에는 백마 혹은 흑마를 타고 나타나, 망자의 집에서 죽음을 알리는 전령으로 손에는 염라왕의 장부를 들고 있는 저승사자를 그린 불화와 나무조각상, 죄의 심판 부분에는 차례대로 심판을 내리고 형벌을 준다는 열명의 지옥왕의 모습과 이 왕들 앞에서 전생의 업을 비춰본다는 업경대라는 거울 등이 그림과 조각으로 펼쳐져 있다.

또 자비와 구제 부분에는 지옥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을 미룬 지장보살, 수행과 염원 부분에서는 인간으로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나한과 고승의 초상, 극락 부분에서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질병의 고통이 없는 약사정토 등의 모습을 구현한 불화들이 선보인다.

김주일기자

절대권력 비기담긴 두루마리 지켜라

영화 방탄승(防彈僧) 곧 개봉

티베트 승려를 주인공으로 한 할리우드 액션물 '방탄승(Bulletproof monk)'이 9월 19일 개봉된다.

누구나 읽기만 하면 엄청난 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의 비기(秘記)가 담겨 있는 전설의 두루마리는 티베트 고승들에 의해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 두루마리를 악의 무리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버린 무명승(주윤발)에게 내려진 마지막 임무는 60년 안에 반드시 다음 후계자를 찾아 안전하게 두루마리를 전해 주는 것. 60년 후 이 티베트 승려가 뉴욕에서 후계자를 찾아 나서며 벌어지는 사건들이 줄거리인 이 영화는 본래 플라이페이퍼(Flypaper Press)의 만화를 원작으로 했다.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주윤발은 30세부터 60년 동안 두루마리를 지키는 티베트 승려로 분해, 20년 연기

홍콩배우 주윤발 티베트승려로 출연

생활동안 한번도 선보인 적 없는 90세 노인으로 연기변신을 꾀했다. 또 주윤발과 오우삼이 각각 주연배우와 제작자로 할리우드에서 만난 영화로 미국 내에서 많은 화제를 일으키며 박스오피스 상위에 진입하기도 했다.

한상희 기자



◇비기가 담겨있는 두루마리를 지키려는 티베트 승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방탄승'.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08:10 한국에서 노인으로 살아가기
09:05 가을 우리의 선율, 그대 있음에
14:05 최영준의 한가위만 같아라 1부
15:00 최영준의 한가위만 같아라 2부
16:05 최영준의 한가위만 같아라 3부

Bt 불교TV <ch 32>

10일 09:05 추석특집 틱낫한스님 강의 1부
11일 09:05 추석특집 틱낫한스님 강의 2부
12일 09:05 추석특집 틱낫한스님 강의 3부
13일 09:30 설수진의 러빙유
14일 11:30 이화숙의 노래교실
15일 09:20 무비스님의 법화경 강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한가위 특집 최영준의 한가위만 같아라(9월 10일 1부 14:05-14:45, 11일 2부 15:00-16:00, 12일 3부 16:05-17:00) 추석연휴 기간중 다양한 오락과 정보를 제공하는 와이드 프로그램. 가족의 소중함과 아름다운 세시 풍속을 추억의 노래와 함께 만나본다. 지역별로 만나보는 '고향 릴레이'를 통해 이웃들과 덕담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불교텔레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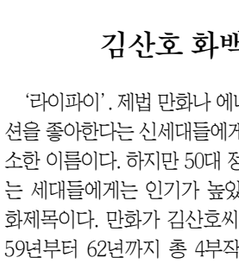
▷추석특집 틱낫한 스님 강의(10일-12일 09:05-10:30)지난 3월 방한한 틱낫한 스님의 동국대, 중앙승가대, 이화여대 강연을 학생과 직장인들을 위해 재구성했다. 이 강연은 반나절수행(Half Retreat)처럼 일상 속에서의 정념(正念), 마음챙김의 실천법을 가르친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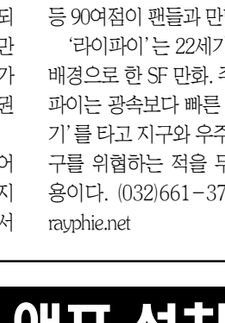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시설 설치.
1500여 사찰에 무선 마이크 및 각종 마이크 공급.



엄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법당전용스피커 YM-520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간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갱년기 장애 등
• 자율신경실조증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암, 관절염, 고혈압

C.W. 초원케미칼라이프 Co.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중풍(뇌졸증)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 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증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증(중풍), 동맹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5년 효성카톨릭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흉채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새한빛약국(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주)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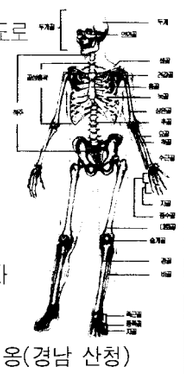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7화 61명의 아라한

이제 비로소 모든 준비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한 붓다는 61명의 젊고 정력에 넘치는 아라한들을 모아 놓고 뜻밖의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수행자들이여, 나는 신(神)과 인간들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는 그대들 역시 나와 같이 되었다. 그러나 중생들은 아직도 번뇌의 고통 속에 있다. 이제 그대들은 편력(遍歷)의 길을 떠나야 한다.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안락을 위해, 세상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 길을 떠나라. 그러나 같은 길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라, 아라한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내용과 이론이 정연한 법을 설하라. 사람들에게 그대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행 생활을 보여 주어라. 세상에는 때가 많이 묻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법(法)을 설하면 쉽게 깨닫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순 한 사람의 아라한들이 각각 갈 곳을 정하여 본격적인 포교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모두를 떠나보낸 붓다는 그 자신이 가야 할 곳을 갠지스 강 마가다국으로 정하고 다시 긴 여행을 시작하였다.

사르나트(Samath)의 물가다바(Mrgdava)를 떠난 붓다는 그 당시 인도 최강의 세력을 자랑하던 마가다(Magadha)국에서 최대의 종교 세력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우루빌바 카사파(Uruvilva kasyapa)의 사원을 찾아 가기로 한다. 그곳은 이미 마가다 국왕을 비롯하여 인근 앙카국에서 조차 많은 신도들로부터 숭배를 받고 있는 전통적인 바라문교의 불의 신(火神, Agni) 아그니의 대사원이었다.

브라만(Brahman, 婆羅門) 우루빌바 카사파(Uruvilva Kasyapa)는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의 아우 나디 카사파(Nadi Kasapa)는 300명, 그리고 막내 동생 가야 카사파(伽倻迦葉, Gaya Kasyapa)는 200명의 제자들을 각각 거느리며 막강한 세력을 떨치고 있어서 신흥 종교로 이제 막 그 날개를 펴려는 불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어차피 생각이 모자라는 중생들을 잘못된 길로부터 바로잡기 위하여 이들과의 한판 승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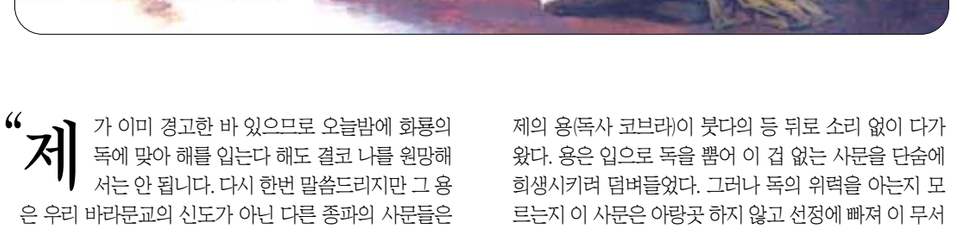
"제가 이미 경고한 바 있으므로 오늘밤에 화룡의 독에 맞아 해를 입는다 해도 결코 나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용은 우리 바라문교의 신도가 아닌 다른 종파의 사문들은 결코 살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염려놓으십시오. 아무리 사악한 뱀이라 할지라도 내 몸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밤은 이곳에서 하룻 저녁 신세를 지겠습니다."

화당(火堂)의 문이 닫히고 어두움으로 휩싸이자 붓다는 단정히 결가부좌(結跏趺坐)하고 앉아 곧 삼매에 들었다. 이때 한쪽 구석에서 붓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문제의 용(독사 코브라)이 붓다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왔다. 용은 입으로 독을 뿜어 이 겁 없는 사문을 단숨에 희생시키려 덤벼들었다. 그러나 독의 위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선정에 빠져 이 무서운 용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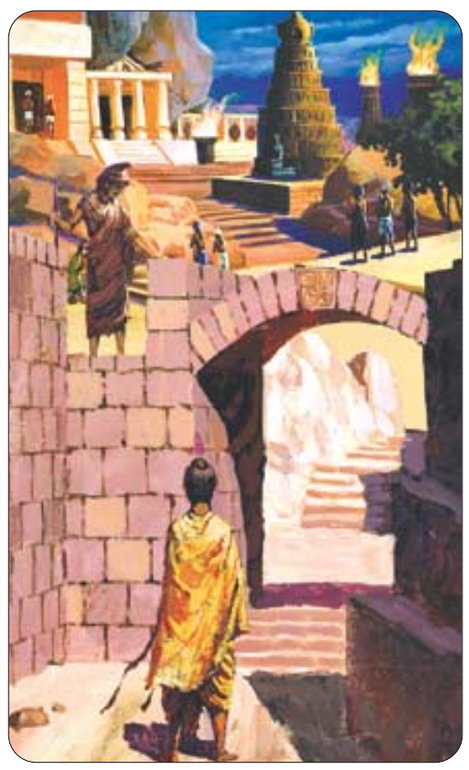
"아, 이 사문은 보통 사문이 아니로구나. 이미 카사파 브라만으로부터 나의 존재를 경고 받고 있어 잘 알고 있을 텐데 지금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니 도대체 나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붓다를 공격하던 독룡은 그만 기가 질리고 있었다. 붓다의 태연함을 보고 독룡은 계속 생각에 잠긴다.



이들은 정통 브라만의 혈통으로 크샤트리아(Ksatriya, 왕족, 무사) 출신인 붓다와는 그 출신성분이 달라서 교만하기가 한이 없었다. 매일같이 베다(Rig-Veda) 성전(聖典)을 읽고 성스러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켰다. 화신(火神) 아그니(Agni)에 제사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삼고 있었고 국왕을 비롯한 일반 신자들의 보시를 받아 길흉(吉凶)을 점치는 등 백성들의 살아가는 법에까지 깊숙이 관여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나를 보기만 하여도 미리부터 공포에 떨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내뿜는 독에 이내 목숨을 잃고 말았지. 그러나 이 사문은 나를 무슨 지렁이나 되는 듯 무시하고 있으므로 나의 독은 이 사문을 이길 수가 없다."

독룡은 오히려 붓다의 무심한 태도에 겁을 먹고 있었다. 그때 붓다의 두 눈이 광채를 뿜으며 독룡을 쏘아보자 이미 겁에 질렸던 독룡은 단숨에 기를 빼앗기며 정신이 아득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한번 기를 빼앗긴 독룡은 그 모습 또한 처참하게 쭈그러들며 쓰러지고 말았다. 이미 삶과 죽음의 경지를 초월하고 있는 붓다에게 이따위 독룡의 위협이 무슨 소용이 있었으랴.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듯이 독룡은 기를 제압당하고 보니 두 번 다시 도전할 힘을 잃고 모든 기력이 쇠진하여 조용히 바닥에 엎드리어 붓다의 자비만 빌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우루빌바 카사파는 언제나 해오던 것처럼 이날도 아침 일찍 불의 신 아그니에게 아침의 경배를 올리고 몇 명의 제자들에게 베다 서언의 참뜻을 강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심술로 인하여 공연히 죄 없는 한 사문(沙門)을 희생시켰다하여 심한 죄책감에 잠겨 있었다.

"물론 그 떠도는 고행승(苦行僧)의 잘못이다. 나는 몇 번이고 그 화당(火堂)에는 독룡이 있고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올 수 없다고 경고해 주었는데도 그 겁 없는 사문은 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곳에 들어간 것이다. 이 세상에 그 독룡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우루빌바 카사파 단 한사람뿐이다. 나와 같이 높은 수행을 쌓은 후에야 이처럼 불을 다룰 수 있고 용의 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아직 고행승인 그 사문을 화당에 보내 죽게 하고 말았다. 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지나가는 사문이요. 곧 날이 어두울 것이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붓다가 니련선하(Nairanjana, 尼連禪河) 강변에 자리잡은 우루빌바 카사파의 사원에 도착한 것은 이미 황혼이 지고 있을 무렵이었다.

"이곳은 성스러운 불의 신 아그니를 모시고 있는 우루빌바 카사파의 사원입니다. 어디서 오신 사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저녁은 특별히 제사를 모셔야 하고, 또 제자들이 모두 사원에 있는 바람에 비어있는 방이 없으니 죄송하지만 사문께서는 다른 곳에서 숙소를 찾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불청객이어서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을 것이니 염려마시고 아무 곳이나 재워주십시오. 그대들의 오늘밤 제사에도 결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있을 것을 약속드리니 너무 걱정 마시고 밤이 슬이나 피할 수 있도록 아무 곳이나 잠자리를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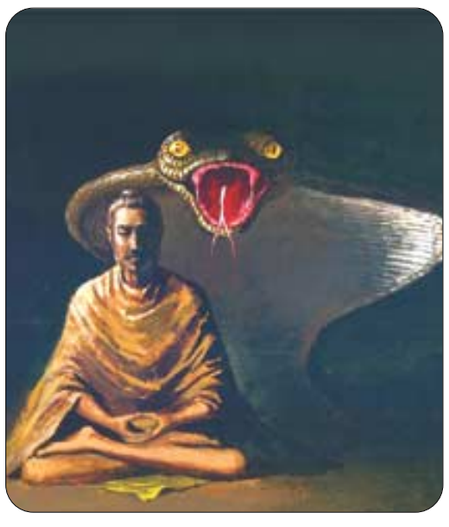
"이것 참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출가 고행하는 수도승인데 함부로 모실 수도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돌려보내면 우리들을 보고 섭섭히 생각하실 것이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방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 곳은 신성한 불을 때는 화당(火堂)이어서 그 안에는 무서운 용(龍, Naga)이 지키고 있어 사람이 들어오면 독을 뿜어 해치고 맙니다. 만약 용이 있는 방을 드렸다가는 사문께서 화를 입을 것이 분명한데 어찌 그런 위험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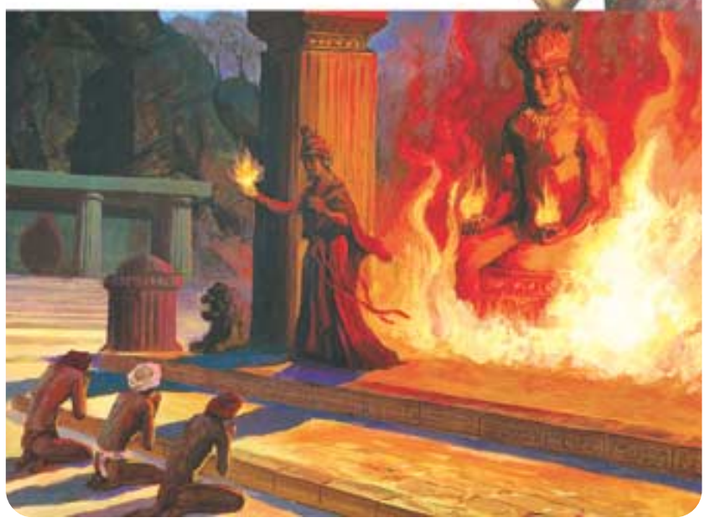
"오늘 오후에는 양을 잡아 피를 뿌리며 신께 나의 잘못을 빌고 또 죄 없이 죽게 된 그 이름모를 사문의 명복도 빌어주자. 너희들도 어젯밤의 일을 교훈으로 삼고 내가 가르치는 법(法)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서 그 사문처럼 쓸데없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자, 비록 후회해도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 사문의 시체를 거두어 화장이라도 해주어야겠다. 모두들 따라 오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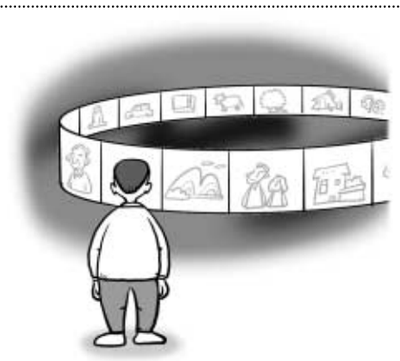
이때 우루빌바 카사파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 어제는 어디서 왔는지 신분이 불투명한 떠돌이 고행승이 감히 이 사원의 큰 브라만인 자신을 몰라보는데 기분이 상했고 또 자신의 경고를 끝내 무시하는 행동에 기분이 나빠져서 이름도 모르는 고행승을 독룡(毒龍)의 희생물이 되게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확실히 경솔한 행동 이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아라한(Arhan)은 자기 한사람뿐이라고 강력히 믿고 있는 카사파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의심하는데 그만 기분이 상하여 상대방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말았다. 그러나 그 역시 오랜 고행승의 시절을 보냈었다. 그는 불같은 감정이 식어들면 곧 이성을 찾게 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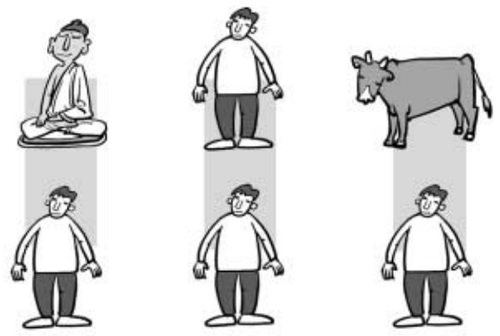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 하나 버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주인공 발현해야 하는 이유?

문 불경(佛經)에서 말하는 견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주인공이 발현되어 내면의 이끎을 받는 그 자체가 견성인지, 아니면 주인공의 이끎을 받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결과적 현상으로 견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견성을 하였다는 스님들의 행적이나 어록, 또는 경전에서도 내면의 이끎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스님들도 내면의 이끎을 받았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내면의 이끎이 없었던 것인지요. 없었다면 그 스님들이 말하는 견성은 무엇이며, 내면의 이끎이 없이도 견성할 수 있다면 주인공을 발현시켜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 질문을 참 잘했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경전에 담겨있는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서 모든 것을 알아 경전을 통달한 것하고, 내 마음을 깨달아 증득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경전의 말씀을 고대로 터득한 사람은 말을 유창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유창하게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결정적인 문제에 가서는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경을 아주 통달한 어느 큰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을 전체 위로 꿰고 바로 꿰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닥치는 것을 어찌할 바가 없더라." 이러셨어요. 그러고는 단식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도리와 경과 선과 교가 둘이 아니게끔 된 것은 다 모두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구랑신이 내려서 집을 못 짓는다든가 손이 있어서 이사를 못 간다든가, 터가 나빠서 집을 못 짓는다든가, 산소 자리가 나빠서 못 쓴다든가 이런 문제가 닥칠 때는 어찌해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꼭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법의 능력이, 나와 나 자체가 상봉을 했다면 그땐 선과 교가 둘이 아니에요. 일체 모두가 둘이 아니고 그대로 자유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짓고 싶으면 짓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테 화두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세상이 벌어졌지, 내가 없는데 무슨 종교가 있고 부처가 있고 세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나부터 알아라 이거죠. 사대 성인들이 다 '너부터 알라' 고 그랬어요. 너부터 믿으라고 그랬고요.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병자도 많은데, 예전에 고치지 못하고 막 쓰러지는 병이 동네에 발생을 하니까 도대체 그냥 앞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 이거예요. 물러서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날까지 이론적으로는 다 배우고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닥치니깐 이렇게 어렵더라 하고는, '그냥 나 하나 버리면 되지.' 하면서 그냥 거기에 들어섰어요. 그러니 나 하나가 문제입니다. 나 하나 버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도 고정됨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하고 부서지고 그러니 모두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그대로 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입니다. 그대로 공했기 때문에 내 몸도 그대로 있지 않고 공해서 돌아가요. 고정되게 그냥 있지 않은 겁니다. 말하는 거나 가고 오는 거나 만나는 거나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걸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이름을 가졌을 때 내가 그 이름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이름, 딸이라는 이름, 언니라는 이름, 오빠라는 이름, 형이라는 이름, 아우라는 이름, 또 장가들고 시집가면 며느리라는 이름, 사위라는 이름, 또는 아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 뭐, 천차만별로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름을 따라서 아버지 노릇 할 때에 나라고 할까요, 남편 노릇 할 때 나라고 할까요, 아들 노릇 할 때 나라고 할까요? 그러니깐 전부 공했단 말입니다. 나라는 게 없다 이 소리에요. 그래서 그 도리를 알면, 없다 하는 걸 알면 죽는 것이다 이 소리에요. 모두가 고정됨이 없다는 걸 알고, 그러니깐 모든 것은 고놈이 한다는 것을 알고 또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체를 다 거기서 하는 거니까 고놈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고놈이 있다는 것은 고놈이 증명할 수 있다.' 이러고 다 놓으라고 하죠. 그래서 나를 내가 발견해서, 과거의 내 조상을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를 끌고 온 나를, 진화시킨 그 장본인을 말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게 부와 자가 상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음 주인공을 믿고 일체를 무조건 거기다 놔야 된다, 맡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무조건 맡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화살을 쏘는데 똑바로 탁 들어가 맞아야 되는데 화살이 이리로 가서 맞고 저리로 가서 맞는다면 어떻게 그게 되나요? 전체 원을 해 놓고선 중심을 그냥 꿰뚫는 건데, 꿰뚫는 공부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뭣고? 이럭하는 놈이 뭘꼬?' 이런다면 10년 20년이 가도 어려워요. '이놈이 모두 집어 먹고 가는 놈이로구나.' 그러고 내놓는 놈이고 들여놓는 놈이고 '들여놓고 내놓는 거를 다 하는 놈이로구나.' 하고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빠르다 이겁니다. 아, 그놈이 하는 건데 왜 인정을 안 하느냐 말이에요. 왜 믿지를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곤 '이뭣고?' 하느냐 이 소리예요. 자기가 그대로 해가면서 지금 들이고 내고 해 가면서 왜 인정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석존이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석존이 깨달은 거지 내가 깨달은 건 아닙니다, 각자. 만약에 나 자신을 모른다면 내 주장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못났든 잘났든 제일 가까운 것이 자기와 자기입니다. 자기를 깨달아야 석존의 마음도 역대 조사들의 마음도 중생들의 마음도 풀 한포기의 마음도 같이, 같이 공존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사고를 당하는지?

문 사람이 살면서 왜 사고를 당해야 하는지요?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 사주를 논하는 게 아닌 줄 알지만 어느 사람으로 인해 눈을 다쳐서 앞이 안 보인다든가 귀를 다쳐서 들을 수가 없다든가, 또 머리를 다쳐서 정신이 이상해진다거나, 혹은 죽을 운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사고를 당하여 바보가 되어야 하는지요?

답 그래서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지은 죄는 알고 받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와서 날더러 묻기를, 아마 주역을 많이 공부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주역으로 보니까 자기가 올해는 꼭 물귀신한테 잡혀 죽을 수인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물귀신한테 말려서 당신이 죽게 되는 것도 당신의 마음이 물귀신한테 죽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귀신한테 말려 죽는 거다. 그러나 내가 물귀신한테 말려 죽는다는 것에 걸리지 않는다면 물귀신이 따로 없다."고 하니까 날더러 외려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올해 물귀신한테 꼭 말려 죽을 거를 피하려고 물에를 안 갔는데 어느 날 아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계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손님이 온다고 깨끗하게 아마 물로 다 쓸고 닦아낸 모양인데 그만 미끄러워 가지고선 계단으로 올라가다간 그냥 뒹굴어졌던 모양입니다. 그 물에 미끄러져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사오 년을 허리를 쓰지 못했다면서 이래도 날더러 믿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끝에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지혜가 없이 허공에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말리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하는 소리가, 또 한마디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모르는 네 살 박이 아이들끼리 놀다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네 살 박이 애는 죄지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활을 잘못 쏘아서 남의 머리에 활이 들어가서 죽게 만들었는데 과거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 현실에 다시금 나와 가지고 탄생을 해서 어린애끼리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어린애가 모르고선 불집게로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정수리가 찔려서 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죽은 사람은 과거에 활로 쏘아서 죽인 사람이고, 저쪽에는 모르고 또 연탄집게로 찔러서 죽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냐 이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 애들은 이생에 나와서 지은 죄도 없는데, 그거 걸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었느냐는 얘깁니다. 그것은, 과거를 못 보면 현실을 보랬다고,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모르고 그렇게 주고 받고 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을 이렇게 써도 뭐 괜찮겠지.' 하지만 인과의 도리에서는 어림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엔 어떻게 됐던지 간에, 미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이고, 오늘 내가 잘 살고 잘 저거 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지키면서 내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과거를 생각하지도 말고 오늘 현실에 내가 꾸준히,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잘한다 잘 못한다를 떠나서 오늘 현실에 다가오는 대로 돌려놓고 간절하게 관하라고 하는 겁니다.

> 과거도 내일도 생각지 말고
> 현실에 다가오는 대로
> 돌려놓고 간절하게 관하라

그러니깐 자기도 그런 줄 모르고 행했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하는 것도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스쳐 간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커버해서 주인공에다 '이것이 모르고 그랬든 알고 그랬든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고 진실로 맡겨 놓으면 그쪽도 밝아지고 이쪽도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극하게 하다보면 스스로 밝아지고 하나하나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깐 바깥으로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쓰게 된 쇠들을 다시 용광로에 넣어서 녹이면 다 같이 녹아버린다 이런 게 있죠. 또 자석덩어리를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거든지 거기다가 붙이면, 못 쪼가리든지 뭐든지 간에 거기 붙이면 그냥 한 자석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네가 잘못하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심하고 모든 거를,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주인공에 맡기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잘한 것도 주인공, 못한 것도 주인공! 다 그냥 주인공에다 맡겨버리면 나는 훨훨 털고 그냥 날아다니죠. 왜 괜히 짊어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고 원망하거나 미워할 것이 아니라 주인공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고 맡기면서 좀더 편안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성을 대하는 마음자세

문 신문을 통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실 때, 어느 제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답니다. "부처님! 여자를 대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바라보지 말아라." 또 질문하기를 "마주 보아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하시기를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 제자가 "말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대답하시기를 "제자야! 네 마음을 다스려라."라는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일반 신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부여돼야 하는지 궁금해서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여쭈어 봅니다.

답 그것은 아직 자라지 못한 아이들한테 계율을 설하는 것과 같은 얘깁니다. 아직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도 무조건 이럭하지 말아라, 이럭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건 왜냐? 아직 어린애한테 그것을, 만약에 여자다 남자다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면 아니 되고 또 그건 부정한 일이니까 자라지도 않은 애들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자라고 난 뒤에는 저절로 또 대답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에는, 이게 지금 마음공부예요. 여자 남자가 따로 없다, 동 · 서가 따로 없다, 과거와 현실도 따로 없다. 또 높고 낮음이 따로 없다, 길고 짧음이 따로 없고 가난하고 부자고 따로 없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참선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무심도리를 공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욕정이라든가, 또는 다르게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를, 자기가 안팎을 잘 헤아려 봤을 때에 이게 나한테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알면 다스려서 거기다 맡겨 놓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 잘한 것도 주인공, 못한 것도 주인공
> 다 그냥 주인공에 맡겨버리면
> 나는 훨훨 털고 날아다니죠

모두 봐서 이것이 잘된 거다 하면은 그대로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거다 하면은 거기다 맡겨 놓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선 놓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새 바뀌지게 돼요. 이것이 거짓말인 줄 알지 말고 진실로서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세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은 아직 어른이 되기 전에 그런 대답을 하셨을 거고, 또 제자의 근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다 되었으면 대답할 것도 안 할 것도 없는 거죠, 뭐. 그때 가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 할 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그 자체가 일어난 주처, 자기 주인공에 돌려놓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관하는 자세가 필요할 뿐입니다.

공부하는 생명들에 대해서

문 스님 말씀이나 다른 경전들을 보면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들도 마음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과 다른 생물이 다른 이유는 과거에 쌓아온 업과 습의 차이와 그 두께가 다르기 때문이며, 그 본래 성품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인간이 습과 업을 녹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생물들도 그 모습 그대로 역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다른 생물이 인간의 몸을 받기 위해서 그 생물의 몸을 버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요.

답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생명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체 만물에 대한, 일체 만생에 대한 문제를 다 얘기하자면 아주 거추장스럽고 복잡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생명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몸에 들은 모든 생명 의식들은 나쁘고 좋은 걸 몰라요. 사람처럼 이렇게 잘못되게 내가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

☞30면으로 계속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지 모든 것을 다스려서 돌려놓고 누구에게나 이익되게 작용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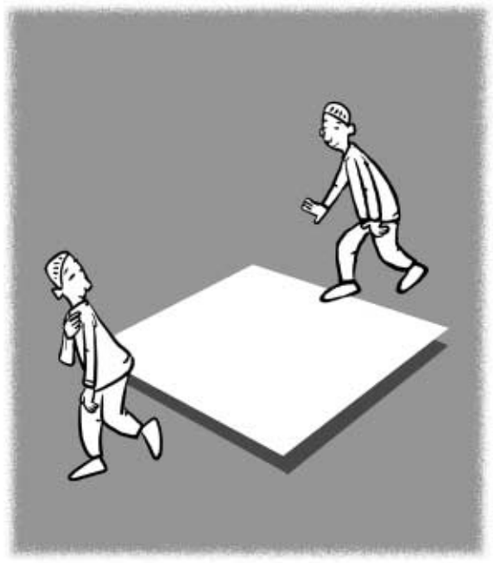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문에 사람의 마음이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와 같이 모든 게 인간이 돼야만이 부처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소립니다. 마음 하나 바꿔놓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100%지만, 또 백지장 하나 사이의 마음가짐을 두고 인간이 중생이다 부처다 이러는데, 인간이 되기 이전에 짐승이다 이런다면 어떻게 부처 될 수 있겠어요, 단번에?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자꾸자꾸 올라오면서, 또 인간이 잘못했을 때는 저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짐승으로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돌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이 됐다고 해서 인간만이 지속적인, 끊간 데 없는 진리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마음에 따라서 인간이 짐승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 하면 인간이 되기가 어렵다. 우리는 부처 되기 어렵고 짐승들은 인간 되기 어렵고 그런 거죠. 또 미생물에서는 미생물에서 나는 짐승이나 육지에 다니는 짐승 되기가 어렵다 이거죠. 이렇게 그 습이 자꾸, 뱀 소굴을 봐도 뱀으로 살던 습이 많기 때문에 그 모습을 털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답게 살아나가는 습을 길러야 하고 선덕을 쌓아야지, 악덕을 일삼으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가지고는 오히려 짐승의 모습을 타고나게끔 자기가 자처한다 이 소리예요. 이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틀림없이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남한테 이익하게 생각을 해줘라. 이익하게 행동해라. 이익하게 말해라. 또 없는 것을 좋은 일 한다고 꾸면서까지 주는 거는 그것은 미덕이 아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환경에 따라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 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처 되기가 어려운 것은, 마음 한번 제대로 못 굴리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바깥으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안으로는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한다고 믿고 맡기는 것조차도 거기다가 맡겨 놓고, 영원한 친구, 친구라고 해도 되죠. '영원한 친구야! 네가 이날까지 나를 이끌어 왔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안되는 것도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너밖에 없어. 네가 나를 이끌어 가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네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모든 걸 거기다가 맡겨 놓는 그 작업을 하면서 한꺼풀 벗어날 수 있도록 공부하세요.

보이는 모습이 촌챙이나 짐승이라고 해서 그것들만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을 받아 가지고 나왔으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외려 동물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침없이 행동해도 되는지?

문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들은 행동을 할 적에 거침없이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거침없는 행동이 잘못하다보면 어떨 때는 막행막식이 되어서 업을 짓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 그러니깐 생각을 다스리라는 말이 생겼잖소. 자기가 봐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든지 남들이 봤을 때 그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일이든지 간에 '야, 잘못된 생각이 왜 떠오르게 하느냐. 이 잘못된 생각을 굴려서 다시 그렇지 않게 하는 것도 당신만이 할 수 있어!' 그러곤 딱 돌려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스리는 작업이에요.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지 모든 것을 그렇게 다스려서 돌려놓고, 남한테 이익하게 하고 나한테도 이익하게 하고, 부모한테도 이익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보면 무엇이 잘하는 일인지 무엇이 잘못하는 일인지 다 알 수 있으니까 잘못돼 돌아가는 거는 자꾸 다스려서 맡겨 놓고 잘되게끔 생각을 해서 올바르게 활용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참선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덕을 쌓는 거구요.

거침없이 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상대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거나, 또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거침없는 행동을 한다거나, 자기 자신에게 누가 되게 하고 스승님에게 누가 되게 하면서 거침없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고 걸림이 없이 행동을 하는 것은 어른이 돼서 늙고, 늙어서 다시 세 살이 되고, 또 세 살이 돼가지고 다시 한 살이 돼야 거침이 없이 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전호흡 도장을 하고 있는데

문 스님, 저는 지방에서 단전호흡 도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둘 아니게 다룰 수 있어야만이 완전한 공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도하면서도, 그것들을 실제로 체험하지도 못했으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고민이 되는 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도장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이 고민이 됩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답 그렇게라도 회원들을 이끌어 가면서 그대로 다시 가르치세요. 마음 깨우침은 일체 만법을 다 카버하고 증득하고 물리가 터져야 하는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 몸 하나 어떻게 하자고 하다보면 잘못되는 수가 또 많이 있습니다.

단전호흡을 해서 나쁜 기를 바깥으로 모아서 나쁜 거를 빼지 않는다면 그거는 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잘못되면 기가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서 병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한계점이 오기도 하구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 되니까 앞으로도 남을 이익하게 이끌어 가야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기의 흐름만을 쫓아간다면 외려 해를 주기 똑 참한 일이에요. 다른 것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단전호흡 시킨다고 몸을 붙들어 앉혀놓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안 되지요. 그러니 그 도장에서는 마음도리로서 잘 가르쳐서, 모두들 마음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서 잘 가르치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해요. 남을 이끌어 준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면서, 선원에 나와서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책도 있고 또 신문에 나가는 법문도 있으니까 진실로 끊간 데 없는 진리에 관한 건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그대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공부의 맛을 보고 체험을 하다 보면 도장에 와서 수련하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감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도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데 따라서 생수가 될 수도 있고 썩은 물이 될 수도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모습들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백 년을 살겠습니까, 천 년을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론으로 알려고 하고, 머리론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모두 다들 잘 안다고들 하지만 실천하기는 칠십 팔십이 돼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체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놓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 열심히들 해서, 칠십이다 팔십이다, 스무살이다 열 몇 살이다 하는 거를 떠나서 우리는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체험을 해보고 느껴봐야 맛을 알게 됩니다.

왜 놓는 과정이 필요하나요?

문 스님의 자비심에 귀의해서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든다는 생각이 올라오니까 먹기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처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가 나를 만들었는데 제가 왜 법의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끄달려야 합니까? 난 그 자체에 대해서 내 주인공한테 뭇마땅해서 놓기가 싫어요. 왜 놓는 과정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답 아니, 그렇게 놓는 것과 받는 거를 둘로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 아닙니까. 본래는 놓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건데 그렇게 생각으로 공부를 하려니 머리가 아프고 밥맛이 없을 수밖에요. 그런데 그 자리는 놓기 싫고 놓기 좋고 하는 말이 붙지 않는 자리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일체를 그 자리에 놓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이 걸음을 걸을 때 한 발짝 걸었으면 그냥 또 한 발짝 떼어놓을 뿐이지, 아니 뒷발자국을 생각하면서 걷습니까? 아니면 뒷발자국을 가지고 다닙니까? 그냥 한 발 한 발 걸어갈 뿐인데 거기에 무슨 놓고 말고가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자꾸 생각에 걸려 넘어지고 말에 걸려 넘어지고, 보이는 데 걸려 넘어지고 들리는 데 걸려 넘어져서 아프다고 하니까 일체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사시라고 놓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원래 우리는 놓고 살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놓는 놈과 받는 놈이 어디 둘이던가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자면 바깥의 일이 있고 안의 일이 있으니까 바깥 경계와 내면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둘이 아니면서도 둘로 불리우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찌 숨을 쉬는 것만 쉬는 거고 내쉬는 건 내쉬는 게 아닌가요? 숨을 들이쉬는 거와 내쉬는 것이 둘이 아닌 까닭에 둘인 거예요. 그게 호흡하고 작용을 해야만이 생명을 유지하니깐 말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쉴 때도 잘 들이쉬어야 사레가 걸리지 않고 편안하고, 숨을 내쉴 때도 잘 내쉬어야 목에 걸리지 않고 잘 내쉴 수 있는 것처럼 올라오는 생각도 잘 다스려서 놓아야 머리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도 공부하기가 어려워서야 어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입니다만, 어렵긴 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못 먹겠다, 뭐 먹히지 않는다 이러는데, 들이쉬고 내쉬는 그 자체 양면의 작용함을 하나로 안다면 먹히고 안 먹히고가 모두 한군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잘 먹히는 것도 안 먹히는 것도 다 마음의 작용, 양면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몸이 없으면은 공부를 못한다 이겁니다, 부딪침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끼니 때는 먹어야지 무슨 소립니까.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시자를 그렇게 함부로 먹이질 않고 굶겨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듯이 그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지 그 생각이 어디서 올라온지만 안다면 다시 그 자리에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끄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선원에 와서 법회에도 참석하고 또 스님들 만나서 공부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유롭자고 공부하는 건데 그렇게 법의 고삥어리를 하나 더 덧붙여서야 어찌 공부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관세음보살 불러도 되나요?

문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되는지요?

답 사람마다 누구나가 다 자기 근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성입니다. 그래서 한 부처님도 한생각에 문수가 되고 한생각에 보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여러분이, 가정을 가진 분들이 때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가 생길 때 자기 근본에 맡기고 놓으면은 관세음보살로 화해서 응신이 돼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데로 못 가서, 좋은 데로 가고 싶어서 '주인공 당신밖에는 좋은 데로 가게 할 수 없어.' 이렇게 관하신다면 바로 자불이, 자성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성 부처님이 지장으로 화해서 다 좋은 데로 가게 하시고요.

보살의 이름이 그렇게 많지만 부처님 한생각에서 나온 방편일 뿐

그래서 우리가 매사 생활하면서 살아나갈 때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마음도 나오면서 이름도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아미타라는 그 이름은 정신세계를 말하고, 관세음이라는 것은 현상세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이름일 뿐이지, 과거 정신세계나 현실세계나 둘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정신과 몸이 둘입니까, 어디?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장갑을 낀 손이 어떻게 장갑하고 둘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 한마음 속에 아미타도 들어 있고 관세음도 들어 있고 지장도 들어 있고 약사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둘이 아닌 까닭에, 모두가 하나하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까닭에 일체가 다 가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연줄에 의해서 얽히고설켜서 돌아가는 이 가설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독불장군이 없다고 했죠? 큰 게 있으면 작은 게 있고 작은 게 있으면 큰 게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깐 아미타나 관세음보살이나 바로 여러분 한마음 가운데에 실질적으로는 들어 있는 것을 믿고 한군데에 관한다면 모두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미타가 따로 있고 관세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그렇게 알면 됩니다.

관세음보살이나 아마타를 바깥으로 찾으면서 끄달린다면 그건 공부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공덕이 하나 없고 이익도 하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나를 발견하고, 발견해서 깨달으면 일체가 들이 아닌 도리를 알고, 자유자재로 나투는 방법까지도 깨달아 가는 공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깥으로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다고 찾고 아미타불이 따로 있다고 찾는다면, 여러분은 때에 따라서 집에서 아버지 노릇 하고 남편 노릇 하고, 또는 아들 노릇 하고 형 노릇 하고 사위 노릇 하고 이러는데, 어떤 거 할 때 관세음이라 하고 어떤 거 할 때 아미타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 내 마음 아닌 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터득이 되는 거지, 내 마음 아닌 내 마음을 모르고서야 어찌 터득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정신세계를 간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보살의 이름이 그렇게 많지만 바로 부처님 한생각에서 나온 방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일체가 한 군데에서 나고 한 군데에 드는 것을 알고 일체를 오직 그 한 군데에다가 맡겨 놓아야 합니다. 모든 거를요, 일체 작은 거든 큰 거든지 다 말입니다.

기쁘든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틱낫한스님, 달라이라마 9 · 11 2주년 맞아 방미

자비와 평화 함께 하길

17일부터 뉴욕 시작으로 순회법회
평화 · 종교간 조화 메시지 전달 계획



9 · 11사태 2주년을 앞두고 틱낫한 스님과 달라이라마가 잇달아 방미, 미국인을 위한 법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한달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틱낫한 스님은 9월 1일부터 6일까지 콜로라도 로키산 에스테스파크 센터에서 수련회를 진행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미국, 인도 등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6세 이상의 아동부터 10대 청소년, 중 · 장년의 직장인들에 이르기까지 다국적 불자 850명이 참가했다.

수련회는 아침 6시 걷기 명상을 시작으로 오전 법문시간, 점심 식사후 야외 걷기 명상, 선차(禪 茶, Tea mediation)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같은 프로그램으로 틱낫한 스님과 함께 '마음챙김(mindfulness)'을 하며, 내면을 관찰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법문도 들었다. 이번 수련회의 홍보를 담당한 샨텀(Shantum) 씨는 "참가자 대부분이 평소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온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놀랍게도 짧은 시간에 명상을 익히고 마음관찰에 몰입, (수련회 전보다)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틱낫한 스님은 로키 산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7일 뷸더, 8일 덴버에서 공개 강연을 가졌으며, 이후 10일과 12~14일 워싱턴 디씨에서 미국 의회 의원들과의 공개행사를 앞두고 있다. 워싱턴 디씨 히브리회관에서 열리는 이 행사를 통해 틱낫한 스님은 '평화만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 불교 명상 수행지도 등을 펼칠 예정이다.

틱낫한 스님의 방미일정에 이어 달라이라마가 9월 17일, 뉴욕방문을 시작으로 미국서 순회 법회를 갖는다.

달라이라마의 이번 방문은 유례없는 순회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 티베트 소식지인 '파율(Phayul)'에 따르면 미국 각 지역의 티베트 센터와 배우 리처드 기어의 자선단체 등이 달라이라마의 이번 방미를 후원, 조직한다. 이와 관련해 이미 뉴욕 타임스스퀘어에는 달라이라마의 방미와 이에 따른 불교관련 행사들을 알리는 광고판도 게재됐다.

달라이라마는 17일부터 뉴욕, 샌프란시스코, 블루밍턴, 인디애나, 워싱턴 디씨, 보스턴 등을 순회하며 9 · 11사태 2주년을 맞아 평화와 종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번 두 큰 스님의 방문은 9 · 11 이후 테러 후유증으로 아직도 심한 불안감에 휩싸인 미국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정신을 전하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강유신 뉴욕특파원 · 한상희 기자



8월부터 한달 일정 방미, 수련회 진행
의회 공개행사에 강연, 수행지도 예정

대만, 자제정사 '서역기 사진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대만 자제정사(慈濟精舍)의 정사당(靜思堂)에서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사진전'(사진 · 포스터)이 열리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서역 고도를 따라 가는 삼장 법사의 경건한 불심과 1300년 전의 중앙아시아 불교 국가의 전성기와 현재를 보여준다. 법사의 취경 길과 서역불교국가 유적을 소개하는 견심행원(堅心行願), 유목민족지역을 보여주는 아주중심, 불교석굴이 난민촌으로 탈바꿈되는 실정을 담은 전화부생(戰火浮生), 파키스탄의 모습을 담은 초입천축, 부처님 생전 머무셨던 곳을 돌아본 불경순례(佛境巡禮), 삼장법사가 인도의 고승과 절을 찾았던 발자취를 좇은 주유오인(周遊五印) 등 6개 주제로 구성됐다.

자제공덕회에서 발간하는 잡지 '경전'은 자금과 인력을 아끼지 않고 중국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인도 등을 2년간 기획, 방문해 법사의 취경 길을 종으로, 또 현재 아시아의 모습을 횡으로 법사의 발자취를 좇았다. 이를 '불교의 성쇠, 정치의 분열, 조대의 변화, 전쟁의 무정함'등의 메시지와 함께 천 장 이상의 사진들에 담아 두 권의 책으로 펴냈다. 이상미 대만통신원

中, 1천년 전 석굴사원 발굴

중국 서남부 충칭시 인근 다주지방에서 1천년 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굴사원이 발견됐다. 발굴된 석굴에는 서기 907년부터 965년 사이의 것으로 보이는 천수관음상과 함께, 8개 동굴에 각각 다른 보살상과 사천왕상으로 보이는 신장상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주 석굴박물관 큐레이터 구오 싱지안 씨에 따르면 이번에 발굴된 석굴은 1999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불교석굴군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청두와 충진의 중간 쯤에 위치한 다주는 규모는 작지만 주변에 많은 석굴군이 있어 불교 성지로 손꼽힌다. 다주 석굴군은 바오딩산(寶頂山), 베이산(北山), 난산(南山)에 당나라부터 청나라 시대까지 1천 5백여 년에 걸쳐 조생됐으며 60km에 걸쳐 5만여 개의 석굴사원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희 기자

러, 사찰 불상 수리 마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찰의 불상이 본래 모습을 찾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찰은 불교 사찰로서 유럽 최북단에 위치한 것으로 20세기 초 창건됐다.

이번에 태국에서 복원작업을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온 고대 불상은 당시 태국의 왕으로부터 하사된 것이다. 불상은 1917년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극심하게 훼손돼 지난해 복원을 위해 태국으로 옮겨졌었다.

한상희 기자

세계의 불교학 연구현장

② 스리랑카 빨리불교대학

세계 유수의 불교 · 빨리어 전문대학
개방적 정신 바탕 아래 학생선발
학위 취득 과정 엄격, 손에 꼽힐 정도

남방 상좌(上座)불교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국가답게 스리랑카의 각 대학은 불교기본교리, 불교사, 빨리어, 불교응용학을 기본교과과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스리랑카 빨리불교대학교는 스리랑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일한 불교 · 빨리어 전문종합대학이다.

빨리불교대학교는 1981년, 스리랑카 의회법 제74조에 의거해 설립돼, 1982년 4월에 정식 개교했다. 당시 월폴라 라홀라 스님(사진)이 "빨리어를 공부하는 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결국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인 빨리 삼장(三藏)을 해독하지 못하게 되면 불교가 발전하지 못할 것" 라며 초기불교 연구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대학 설립의 주요 목적은 '스리랑카 국 · 내외에서 빨리어에 대한 연구를 진작시키고 관련분야 연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학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성별이나 인종, 계급, 신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개방한다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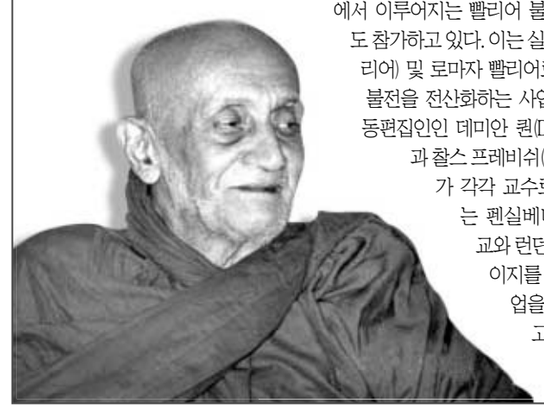
빨리불교대학은 독특한 학사 시스템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입교 시험을 위한 학습과정을 집행한다면 외국의 어떤 교육기관도 분교가 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스리랑카 외에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에 분교가 있다.

이렇듯 개방적인 제도로 학교의 문호가 열려있지만,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우리의 대학예비고사에 해당되는 디플로마(Diploma)과정을 거쳐야 한다. 디플로마를 수여하면 문학사에 해당하는 B. A.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학사는 일반학사(B. A. General), 특별학사(B. A. Special), 명예학사(B. A. Honorary)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학사과정 뒤에는 문학석사(M. A.) 학위과정이 있으며 이를 마쳐야만 비로소 부철학박사에 해당하는 M. Phil.(Master of Philosophy)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 5~10명의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 교수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 검증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다음 단계인 철학박사학위 과정까지 이르지 못하고 포기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학교의 본부는 스리랑카 콜롬보에 위치하고 있다.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전통강원에 해당하는 위조다야(vidyodaya) · 위자랑까라(vidyalankara) · 삿빠마랑마까라(sadhamakara) · 싸라스왓띠(saraswathi) 피리외나(pirivena, college)에서 교육을 담당했다. 최근에는 이들 피리외나 외에도 따로 캠퍼스가 마련됐다.

빨리불교대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불교사회철학(Buddhist Social Philosophy, 또는 응용불교학) 분야이다. 이 외에도 스리랑카의 캘레니아(Keleniya) 대학 등과 함께 스리랑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빨리어 불전 프로젝트에도 참가하고 있다. 이는 실론 빨리어(신할리어) 및 로마자 빨리어로 쓰여져 있는 불전을 전산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동편집인인 데미안 퀸(Damien Keown)과 찰스 프레비쉬(Charles Prebish)가 각각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와 런던대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완료된 작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한상희 기자

불자님들을 위한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 운항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 문화탐방

초특가 (3박4일) ~~₩749,000~~ ₩449,000 (단 3회 한정 / 선착순 500명/10월 1, 4, 7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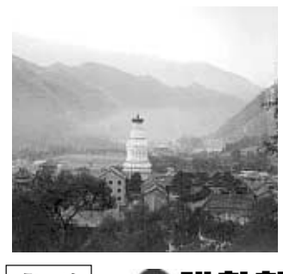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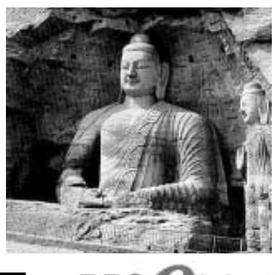
✻ 성지순례 : 오대산(중국 4대 불교성지) 운강석굴(세계문화유산/중국 3대 석굴)

✻ 문화탐방 : 평요고성(세계문화유산) 운강석굴(세계문화유산/중국 3대 석굴)

(4박5일) ~~₩899,000~~ ₩599,000 (단 2회 한정 / 선착순 200명/9월27, 10월10 출발)

✻ 문화탐방(3박 4일) + 북경 관광 추가 (천안문 만리장성 자금성)




주관 여행의 명문 한진관광 후원 대한항공 BBS 불교방송

공동 판매여행사 / 자유 3455-0037 / 하나투어리스트 2127-1517 / KRT 2124-5566 / 롯데 399-2303 / 범한 2001-4515 / 현대 3014-2336 / SK 2196-4021
한경리치웨이 755-9988 / 투어2000 319-2110 / 한화투어몰 3114-346 / 팬더 7777-230/ VIP 757-0040 / 한진관광 서울 02)726-5788 / 부산 051)463-2115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일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KE	10:10	인천국제공항 집합	조	
10/01	태원	전세기	11:30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태원 도착후 점심공양후	중	현지식
10/04	오대산		19:00	오대산 이동(문수보살 도량)	석	현지식
10/07				저녁공양후 호텔 투숙		
				HOTEL | 오봉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2일	오대산	전용버스	06:30	아침공양후	조	호텔식
10/02	대동		07:30	수상사(법회), 탑원사,현통사,보살정,대라정 순례		
10/05			13:00	점심공양후 오대산 출발	중	현지식
10/08			16:30	향산 현공사 순례		
			19:00	대동 도착후 저녁공양 및 호텔 휴식	석	현지식
				HOTEL | 태화촌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3일	대동	전용버스	07:00	아침공양후	조	호텔식
10/03	태원		08:00	구룡벽, 운강석굴 견학 점심공양후	중	현지식
10/06			12:00	대동출발		
10/09			13:00	태원 도착후 저녁공양	석	현지식
			18:00	발마사지 및 호텔 투숙		
				HOTEL | 유원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4일	태원	KE	07:00	아침공양후	조	호텔식
10/04		전세기	08:00	진사 순례		
10/07	인천		13:00	태원 출발	중	
10/10			16:00	인천공항 도착후 해산 - 성불하십시요 -	석	

중국 태원 문화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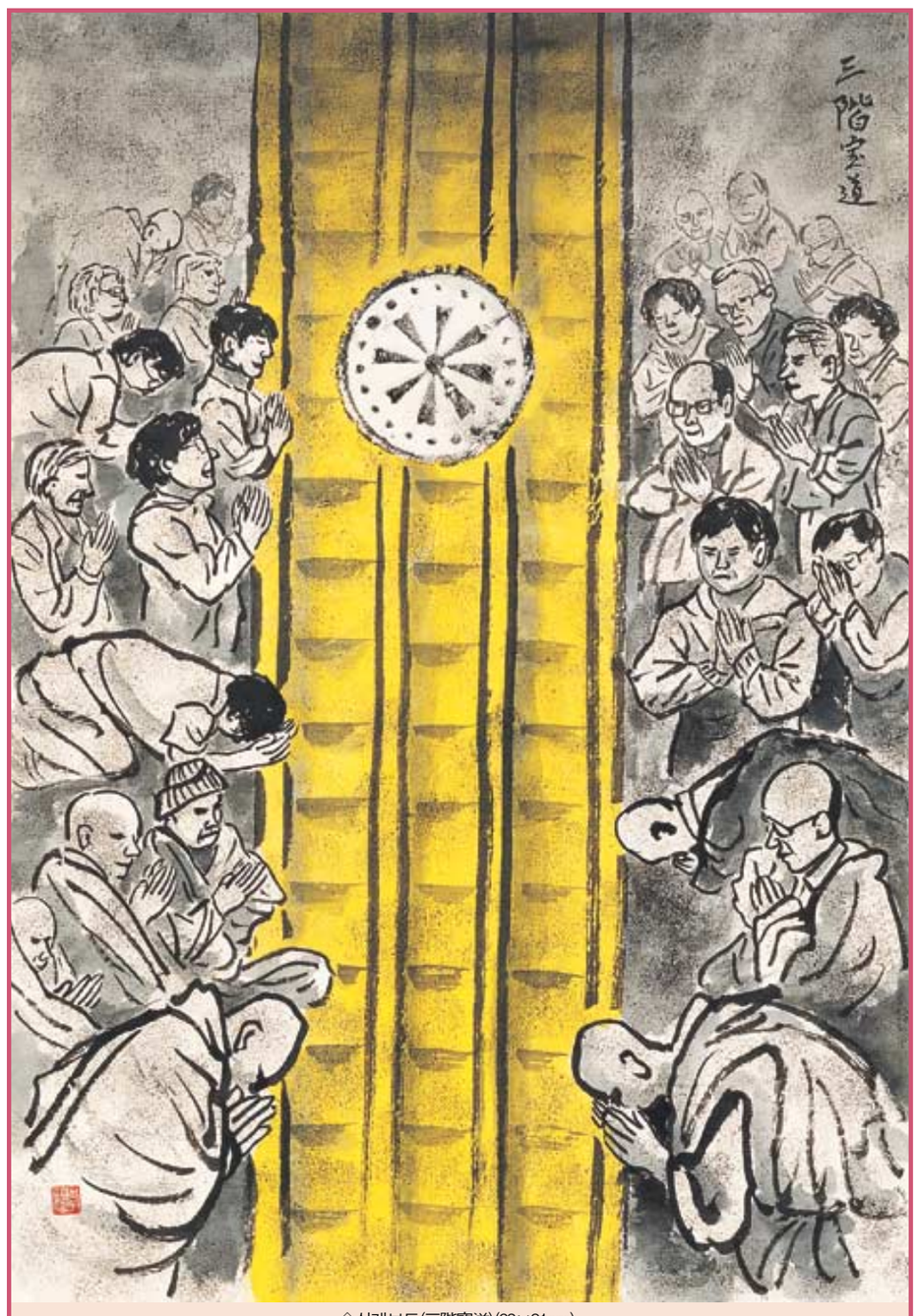
일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KE	10:10	인천국제공항 집합	조	
10/01	태원	전세기	11:30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태원 도착후 중식	중	현지식
10/04			18:00	간단한 시내관광(쌍탑사) 관광		
10/07				석식후 호텔 투숙	석	현지식
				HOTEL | 영서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2일	태원	전용버스	07:00	호텔 조식후 태원 출발	조	호텔식
10/02	향산		08:00	중식		
10/05	대동		13:00	향산 현공사 관광	중	현지식
10/08			13:40	대동 향발		
			14:10	운강석굴 관광	석	현지식
			15:40	석식후 호텔 투숙		
			18:00	HOTEL | 대동빈관 또는 동급호텔		
제03일	대동	전용버스	07:00	호텔 조식후	조	호텔식
10/03	태원		08:00	구룡벽 관광후 대동 출발		
10/06	평요		08:30	태원 도착후 중식	중	현지식
10/09	태원		13:30	평요고성, 교가대원 관광		
			18:00	석식후 호텔 투숙	석	현지식
				HOTEL | 영서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4일	태원	KE	07:00	호텔 조식후	조	호텔식
10/04		전세기	08:00	진사 관광		
10/07	인천		13:00	태원 출발	중	
10/10			16:00	인천공항 도착후 해산	석	

※상기 일정은 출발 당시 항공스케줄 및 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도그림기행

16 그림·글 이호신

중생구제의 길로 이어진 효심



◇삼계보도(三階寶道)(63×91cm).

어머니께 설법 후 하강한 상카시아
기록 속 찬란함 비해 '쓸쓸한 성지'

하늘 계단과 붓다의 효성

(오늘의 '삼계보도'를 그리며)

어머니는 / 눈물로/ 진주(眞珠)를 만드신다/
그 동그란 광택(光澤)의 씨를/ 아들들의 가슴에
심어 주신다/ 씨앗은 아들들의 가슴속에서/
벅찬 자랑/ 젖어드는 그리움/ 때로는 저린
아픔으로 자라나/ 드디어 눈이 부신/ 진주가 된다/
태양이 된다/…(중략)
어머니는/ 오늘도/ 어둠속에서/ 조용히/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정한모의 '어머니' 중에서)

삼라의 빛(태양)이 되고 인류의 보석(진주)으로 추앙받는 붓다에게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불모(佛母) 마야부인은 왕궁이 아닌 룸비니 숲길에서 아들 싯다르타를 낳고 7일만에 이승을 하직했으니, 그 어머니의 영혼은 천상에서 결코 한시인들 편한 날이 없었을 것이다. 생모를 생각하며 외롭게 자라야 했을 아들을 떠올릴 적마다 눈물겨웁고, 그 아들이 마침내 붓다가 되었음에 벅찬 자랑은 온통 그리움으로 물결쳤으리라.

어머니는 그 아들이 보고 싶었다. 아니 세존이 되신 존상과 말씀을 듣고도 싶었다. 이에 붓다는 마땅히 어머니의 영혼을 위무(慰撫)함이 자비의 보살행이요, 불심(佛心)이 곧 모심(母心)임을 천안(天眼)으로 깨닫고 천상(도리천)에 오른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인도 불교유적지에서 자주 살펴지는 '삼계보도(三階寶道)' 부조(浮彫)로서 붓다가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부인을 친견, 설법한 후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

그 하강의 땅이 오늘 찾은 상카시아(sankasya)지역으로 델리 동남쪽 파그나(pakhna)역으로부터 11km떨어진 곳으로 붓다의 8대 성지로 불린다.

성지의 흔적이라고는 부러진 아쇼카대왕 때의 석주와 작은 사당, 그리고 벽돌로 쌓은 담장과 그 속 계단을 오른 예불당은 이제 힌두사원으로 초라하게 살펴졌다. 하지만 일행은 현지의 인도 스님들과 함께 향을 사르고 탑돌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누구든 눈앞의 현상을 떠나 붓다의 지극한 효성을 기리고, 자신을 성찰하기 위한 까닭이 간절하였으므로.

인도를 다녀온 중국의 법현(法顯)스님에 의하면 "붓다께서 도리천상으로부터 동쪽으로 향해 내려오셨다. 그 길을 붓다는 신족통으로 3도(道)의 보계(寶階)를 만들어 칠보(七寶)의 계단 위로 내려오셨다. 범천왕(梵天王)은 백은(白銀)의 계단을 만들어 우측에서 흰 불자(拂子)를 손에 쥐었고, 제석천(帝釋天)은 자금(紫金 ; 수정)계단을 만들어 좌측에서 칠보의 일산(日傘)을 들고 내려오는데, 모든 하늘 천신들은 무수히 붓다를 따랐다.

위의 내용은 오늘날 아쇼카석주 옆 작은 사당의 부조 작품속에서도 보인다. 예전 신라 때의 혜초(慧超)스님은 "탑 왼쪽은 금으로, 오른쪽은 은으로 장식하고 가운데는 유리를 박았다. 붓다는 가운데로, 범왕은 왼쪽 길에, 제석은 오른쪽 계단에서 붓다를 모시고 내려 온 곳이 바로 이곳이라 탑을 세웠는데 절과 스님이 상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라며 725년 이곳을 방문한 후 <왕오천축국전>에 당시의 현장 기록을 남겼다.

이와 같은 기록에 의해 성지가 된 상카시아는 현재 매우 빈촌이요, 쓸쓸한 변방으로 남아있다. 헐벗고 가난한 이웃들의 눈망울이 성지순례의 일행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붓다께서 상카시아로 내려오시던 날, 수많은 중생들이 모여 합장하자 땅위로부터 세 갈래의 길, 즉 삼계보도가 솟아올라 하늘까지 닿았다는 '하늘 계단'. 그 칠보계단으로 내려오신 붓다는 다시 중생구제의 길로 들어섰다 하니 그 계단은 여전히 가난한 마을에서 하늘로 닿아 있음이리라.

나는 고민되었다. 옛 사람이 아닌 오늘의 작가가 굳이 경전기록에만 의지한 채 '삼계보도'를 그릴 필요가 있겠는가를. 관계 자료와 도판들을 살펴보니 모두가 조금씩 다르고 표현 내용도 참으로 다양한게 아닌가.

비로소 나는 용기를 내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시대에 맞는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낡은 가치요, 새 형식이라도 내용을 망각한 양식은 의미 없음을 새삼 떠올렸다.

우리 옛그림속에서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가 그린 '절로도해도(折蘆渡海圖)'는 달마가 갈대를 타고 물위를 걷는 모습인데 완전히 조선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염불서승도(念佛西昇圖)'에서는 우리 스님의 뒷모습을, 그리고 '남해관음도(南海觀音圖)'는 마치 모자(母子)가 나들이 나온 한국인의 얼굴로 바꾸어 놓아 친근감이 더하다. 한편 근대에 와서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昶)은 성화로서 '예수의 일대기'(1951년)를 제작했는데, 조선의 예수로 모델을 설정하고 주변 배경 또한 조선시대의 풍경으로 묘사하여 큰 감동을 자아냈지 않은가.

생각이 이에 미치자 후학으로서 하늘에 닿은 붓다의 효심이 이제 중생구제를 위해 하강하는바, 이를 맞이하는 중생의 모습은 오늘의 인물로 설정함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함께한 일행과 주변사람, 그리고 인도 스님들의 기원을 삼계보도 양쪽으로 설정하고 황금색 계단을 내려오는 붓다의 이미지는 수년 전 절집에서 구한 법륜이 새겨진 와당으로 탁본한 후 낙관하였다.

그림의 됨됨이를 떠나 나는 극진한 붓다의 효성을 기리는 불심(佛心)과 이를 찬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의 삼계보도를 표현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 글을 쓰면서 신라 경덕왕때의 김대성(金大城)이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佛國寺)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石窟庵)을 지어 봉양했다"는 지극함을 떠올리고는 이날토록 늙은 어머니의 눈물을 진주로 만들지 못하는 자신이 오늘 따라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lhs1957@lycos.co.kr



◇상카시아 아쇼카석주(34×25cm).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